

연구보고 18-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책임연구원 조아미

공동연구원 임정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58-02

연구보고 18-R16-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책임연구원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임정아(명지대학교 박사수료)

연구보조원 이지연(명지대학교 박사과정)

김남은(명지대학교 석사과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명지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이동훈(성균관대학교 교수)
협력 연구 기관	명지대학교	조아미 교수	임정아(명지대학교 박사수료)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실무자와 책임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지역자원특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애로사항, 성공사례를 분석한 후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을 위한 개발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본 연구의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기관의 실무자와 책임자에 대한 심층면접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지역자원 특성 및 발전방향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3개의 지역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도시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취약한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중단 후 생활을 보면,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공통적으로 청소년들은 무기력해짐과 생활패턴이 불규칙해짐을 느꼈다. 대도시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경험하였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청소년은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읍면지역의 경우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의 특성과 욕구로는 공통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불규칙한 생활과 비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검정고시 합격을 욕구로 지니고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지만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원한다고 모두 할 수는 없었다. 특히 읍면지역은 지역자원의 부족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타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특성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읍면지역은 지역사회의 자원이 부족하여 꿈드림센터와 CYS-Net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점 및 애로사항으로 대도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관련기관과 종사자의 수가 적은 것을, 중소도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바쁜 업무와 더불어 실적평가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을, 읍면지역에서는 중소도시의 제한점과 함께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시설 부족의 문제를 한계 및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성공모델 요인으로는 대도시는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중소도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후원을, 읍면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반영이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해 두 가지의 영역에서 10개의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공통점에 근거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방향으로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 모색,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쉼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진로지도,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해결을 제시하였다.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차이점에 근거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방향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기관이용률 증대 방안,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지원,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넷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다섯째, 지역별 차별화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성공요인으로 지역별 세부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5차 년도 연구 중 1차 년도 연구로서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실무자와 책임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지역자원 특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애로사항, 성공사례 등을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을 위한 개발 방향을 제시함

2. 연구방법

- 심층면접
 - 선정된 3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기관의 실무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지역자원 특성 및 발전방향 등 면접
- 전문가 자문회의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진행 계획을 수립
 -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3개 지역 선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

3. 주요결과

1)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상황 노출로 비행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욕구는 검정고시 합격,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음, 교통비·식비·생활비 지원 등이다.
- 기관의 상시이용인원은 30명 내외이며, 발굴과정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상담과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리스트를 통하는 경우, 부모님 권유로 직접 방문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를 나온 이유는 심리·정서요인 혹은 친구·선생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이다. 사례관리를 직접 발로 뛰며 일상생활을 전화로 체크한다.
- 기관 중점사항은 검정고시 지원과 아르바이트·취업지원이며, 특화서비스는 문화체험·리더육성·찾아가는 꿈드림이다.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실직의 부담이다. 기관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공간마련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이다.
- 기관 홍보방법은 교사대상 간담회 개최이다. 기관의 환경에 대해서 타 시설과 함께 쓰는 어려움을 호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독립공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관의 인지도는 좋아졌지만 네트워크는 순조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 한계와 애로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은 많은데 경제적 지원의 부족, 현장실무자들의 인력·수당지원의 부족, 연계기관과의 마찰이다.
- 기관에서는 취업 및 실습의 컨소시엄 서비스, 미인가 대안학교와 사업공유로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지역연계 시 필요한 것은 실무자 인력 보강이며, 지역사회가 지원·개선·보완 할 사항은 자치구 예산 확충,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공간·시설의 독립,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급식지원과 자립을 위한 작업 장소 지원이다.

-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 성공모델의 요인은 기관 종사자의 사명감과 지역의 경찰서 등 지역기관과의 연계다.

●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또래와의 비행, 학교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일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생활패턴은 나태해지거나 불규칙한 생활, 아르바이트로 구분되었다.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든 경험은 없다고 하였다. 희망하는 앞으로의 목표 및 욕구는 검정고시 합격과 진로 찾기이다. 목표를 위해 필요한 도움은 거의 학원비 지원이다.
- 학교 선생님·상담 선생님, 지인 및 친구를 통해 기관을 알게 되었다. 기관에서 도움 받는 것은 검정고시와 아르바이트 연결이라고 하였고,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은 또래들이 많이 와서 함께 활동했으면 하는 바램과 활동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것, 검정고시지원을 더 해주길 원하는 것이다.
- 지역사회에서 받는 도움은 취업연계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며, 지역사회에 바라는 지원은 교통비와 학원비 등 경제적 지원, 대학탐방과 같은 견학프로그램, 전용 시설 및 프로그램 활동 공간,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이다.

2)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 심층 면접 결과

●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 경제적 어려움, 위기상황 노출, 비행행동 증가이며, 욕구는 의식주 해결과 검정고시 합격·대학진학, 취업준비, 진로 및 진학이었다.
- 기관 중점사항은 정서지원과 생활지도 및 수용적 태도이며, 특화서비스는

수준별 검정고시 캠프, 직업인과의 만남, 진로동기, 책임감·사회성 향상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활동, 용돈지원 프로그램이다.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역 멘토의 참여와 편안한 공간조성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연결, 관계 형성, 먹거리 챙겨주기, 지역상인·주민과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발굴과정은 학업중단 숙려제, 홍보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 부모와 주변의 권유로 직접 방문하는 경우이다. 학교를 나온 이유는 대인관계 문제, 진로고민으로 인한 학업중단이다. 현재 불규칙한 생활 및 비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를 직접 발로 뛰며 일상생활 등을 전화로 체크한다.
- 기관 홍보방법은 관련기관과 연합하여 아웃리치를 하는 것이다. 기관의 환경에 대해서 공간 활용 등은 만족하는 편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다.
- 한계와 애로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부족, 실적평가에 대한 부담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대한 어려움이다.
- 기관에서는 동아리활동의 지역봉사, 취업 인큐베이팅 형태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있다. 지역연계 시 필요한 것은 자립을 위한 자체적 전문기관이다.
- 지역사회 지원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이고, 지역사회에서 지원·개선·보완 할 사항은 실무자 처우개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지역사회 재정 후원, 직업경험을 위한 지역사업장 마련, 생활비 지원, 지역사회와의 취업연계 등이다.
-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 성공모델의 요인은 기관책임자와 실무자의 사명감과 지역주민의 관심·후원이다.

●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비행, 선생님과 마찰, 공교육 시스템의 불만이다.

- 그만 두고 하고 싶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다. 생활은 나태해지거나 불규칙해졌으며,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든 경험은 없다고 하였으나, 여자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진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대처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희망하는 앞으로의 목표 및 욕구는 검정고시 합격과 진로 찾기였다. 목표를 위해 필요한 도움은 경제적 지원이다.
- 관련기관 선생님의 전화연결·소개로 기관을 알게 되었다. 기관에서 도움 받는 것은 검정고시와 취업 자격증 공부라고 하였고,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은 쉽게 오갈 수 있는 셔틀버스 마련이다.
 - 지역사회에서 받는 도움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하였고, 일부는 기관에서 해주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였다. 지역사회에 바라는 지원은 생활비·학원비 지원, 아르바이트의 연결이다.

3)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 심층 면접 결과

●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 무기력, 생활패턴이 불규칙한 것이다. 욕구는 취업을 위한 훈련 및 취업연계와 자립, 검정고시 합격이다.
- 기관 중점사항은 좋은 관계 만들기이며, 특화서비스는 검정고시 지원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제관념 및 자립관련 교육, 승마체험활동과 건강관리다.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실무자의 역량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다. 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관의 등록인원은 150명, 상시이용인원은 30명 내외이며, 발굴과정은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리스트를 통하거나 직접적 홍보로 찾아다니며 발굴하는 것이다. 학교를 나온 이유는 심리·정서요인, 따돌림 등의 친구문제이다. 학교

를 나온 후 도박이나 사기 등의 비행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사례관리를 직접 발로 뛰며 일상생활을 전화로 체크한다.

- 기관의 환경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이 없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기관의 인지도는 미흡하나 네트워크는 순조롭다고 하였다.
- 한계와 애로사항은 인턴십 과정 후 취업으로의 연결 부족, 청소년 관련시설의 부족과 실적위주의 평가이다.
-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취약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문화체험활동 지원이다.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원은 인턴십 프로그램이며, 지역연계 시 필요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역사회가 지원·개선·보완할 사항은 창업을 위한 공간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 전용공간 지원,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빠른 대응이다.
-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 성공모델의 요인은 실무자의 자발성, 학교 밖 청소년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이다.

●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일은 관심분야를 배우는 것이었다. 생활패턴은 무기력과 나태로 불규칙했다.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든 경험은 없었고, 일부는 친구들과 만날 수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힘들 때의 대처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희망하는 앞으로의 목표 및 욕구는 검정고시 합격과 진로 찾기이다. 목표를 위해 필요한 도움은 경제적 지원과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도움이다.
- 학교 선생님, 상담 선생님, 기관의 실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받고 이 기관을 알게 되었다. 기관에서 도움 받는 것은 검정고시라고 하였고, 만족의 정도는 매우 낮았다.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은 또래들이 많이 와서 함께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과 다양한 동아리, 검정고시 전용공간, 전문성이 있는 검정고시

교사를 원했다.

- 지역사회에 바라는 지원은 검정고시 공부지원, 인턴십 연결 지원이다.

4)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기관 특성 비교

(1) 지역별 특성

- 세 지역 모두 지자체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지역경제 수준이 낮아 재정지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도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많아 서비스 받기가 어려웠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비행과 학업중단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도시는 청소년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특성화고의 학업중단이 높다. 지역네트워크는 원활한 편이다. 읍면지역은 CYS-Net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교통시설, 인프라 등이 부족해 청소년들이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2) 지역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①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 **학교를 그만 둔 이유:** 대도시는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이유, 학교 시스템에 대한 불만, 비행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있었다. 중소도시는 학교성적에 대한 불만족과 적성에 맞지 않는 고등학교 선택이 주된 이유였다. 읍면지역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다니기 싫어서, 혹은 본인이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만 둔 경우가 있었다.

- **학교를 그만둔 후 하고 싶었던 일:**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고 읍면지역은 학교를 그만둔 후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를 그만둔 후 생활패턴:** 공통적으로 생활패턴이 불규칙해지며 무기력해진다. 대도시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경험하였고, 중소도시는 아르바이트 경험과 더불어 비행에 노출되어 있었다. 읍면지역은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지내거나, 위기상황(도박, 성매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 **학교를 그만둔 후 힘든 경험:** 대체로 힘든 경험은 하지 않았다. 대도시는 학교를 벗어나서 좋았다고 응답했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학교친구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짐에 따라 외로웠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②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 공통된 특성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 대도시는 가정의 구조적 기능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위기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행동이 많았다. 중소도시는 슬럼지역에서의 집단행동이 문제행동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읍면지역은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무기력하고 불규칙한 생활패턴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 공통적으로 검정고시 합격과 진로찾기의 욕구가 있었다.
 - 대도시는 교통비, 식비 등의 생활지원을, 중소도시는 대학진학과 취업준비를,

읍면지역은 취업과 자립을 위한 훈련 지원과 훈련 후 취업연계를 원하였다.

●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을 알게 된 경로**

-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학업중단 숙려제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 그 외 대도시에서는 친구와 보호관찰소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에서 도움받고 있는 부분**

- 공통적으로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다.
- 대도시에서는 기관에서 연결한 아르바이트를 받고 있었고, 중소도시에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공부 대비를 받고 있었다. 만족도는 대도시는 높은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밖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

- 대도시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점**

- 공통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원했다.
- 대도시는 검정고시 프로그램, 대학탐방 및 견학 프로그램, 전용시설공간마련을 원했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아르바이트와 취업 연결을 원하고 있었다. 읍면지역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검정고시 프로그램도 원하고 있었다.

● **학교 밖 청소년이 바라는 기관 및 시설 관련 욕구**

-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또래친구나 동아리가 많았으면 하는 욕구가 있었

- 고, 검정고시나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에 대한 욕구도 있었다.
- 중소도시에서는 교통편 부족으로 인한 셔틀버스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3) 지역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특성

● 기관의 위치 및 여건

- 중소도시에서는 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전용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다.

● 학교 밖 청소년 이용인원 및 발굴과정

- 상시이용인원은 평균적으로 월 30명 정도였다.
- 발굴과정은 대도시는 교육청 리스트, 학업중단 숙려제, 주변의 권유였으며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자체적인 홍보로 인한 발굴도 있었다.

●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 대도시는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공부지원과 아르바이트 및 취업지원에, 중소도시는 정서지원과 생활지도 및 수용적 태도에, 읍면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의 좋은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에서 실행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 대도시에서는 사계절 숙박체험 프로그램, 리더육성사업, 찾아가는 꿈드림, 1:1 멘토링 프로그램, 직업탐색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중소도시에서는 검정고시 대비 캠프, 직업인과의 만남 프로그램, 진로동기·책임감·사회성 향상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이 있었다. 읍면지역

에서는 승마체험, 건강관리, 검정고시 지원, 경제관념 및 자립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있었다.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행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

- 대도시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 중소도시는 지역 멘토의 참여와 편안한 분위기, 읍면지역에서는 실무자의 역량이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

- 대도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중소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형성과 지역상인 및 주민간의 네트워크, 읍면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 **기관 홍보 방법**

- 대도시는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간담회, 중소도시는 인근 기관이 함께하는 연합 아웃리치, 읍면지역은 아웃리치로 홍보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연계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원**

- 대도시는 지역사회의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취업과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와 사업을 공유하기도 하며 인턴십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중소도시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연계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이었다. 읍면지역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취업으로는 연계되지 않았다.

● **지역별 제한점 및 애로사항**

- 대도시에서는 현장 실무사에 대한 인력 및 수당 지원 부족, 실무자의 잦은 이직, 연계기관과의 마찰이 제한점이었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 평가가 공통된 애로사항이었다.
- 그 외 중소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관리가, 읍면지역에서는 관련 시설의 부족과 취업까지의 연결 부족을 제한점으로 언급하였다.

● **지역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대도시는 실무자의 인력보강을, 중소도시는 취업연계를 위한 전문 자립장소의 확보를, 읍면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필요로 하였다.

● **지역 내 인지도와 네트워크 정도**

- 대도시는 인지도는 높은 반면 네트워크는 좋지 않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인지도는 미흡한 반면 네트워크는 순조로웠다.

●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사항**

- 공통된 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직업, 창업 장소 등의 공간 마련이었다.
- 대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 자치구의 예산지원을 언급하였다. 중소도시에서는 실무자의 처우개선, 지역사회의 재정후원과 취업연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었고 읍면지역에서는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빠른 대응이 개선 및 보완사항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성공모델 요인**

-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공통적으로 기관종사자의 사명감을 언급하였고 읍면지

역에서는 실무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언급했다.

- 그 외 대도시에서는 지역 관내경찰서와의 연계를, 중소도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후원을, 읍면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반영을 성공요인으로 언급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 1)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공통점에 근거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 모색**

- 학교 밖 청소년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도움을 받는 청소년은 많지 않다.
- 적어도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심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태함, 무기력함, 불규칙한 생활패턴이다. 이들에게 상처를 치료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가고 싶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징검다리과 같은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학교 밖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은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학교 내의 청소년보다 높지만 비행을 제지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이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진로 지도**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련기관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정고시지만, 개별 기관에만 그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협조는 미비한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이들은 취업처를 찾고자 하지만 진로에 대한 탐색과 갈망이 미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위한 진로지도를 보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해결**

- 학교를 그만두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심리정서 문제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면서 친구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게 된다.
- 관련기관에서 상담이나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차이점에 근거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기관이용률 증대**

-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발굴과 기관이용률 증가 방안 모색
-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접근성 제고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 대도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방안 모색
-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지역사회 내에 자립을 돕기 위한 전문공간설치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도시: 자치구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검정고시 대비 집중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 대도시: 캠페인이나 공익광고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지역주민 간 교류(공동사업)를 통한 부정적 인식 개선

● **지역별 차별화된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 성공요인**

- 대도시: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중소도시: 지역주민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냄
-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연구보고 18-R16-1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 2. 연구내용 5
- 3. 연구방법 5
- 4. 연구계획 및 추진체계 7
- 5. 연구의 제한점 9

II. 이론적 배경

- 1. 지역사회 특성 13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및 네트워크 24

I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43
- 2. 심층면접 질문내용 45
- 3. 자료수집 및 분석 46

IV. 연구결과

1.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49
2.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95
3.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기관책임자,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143
4.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기관 특성 비교 183

V. 결론

1. 요약 203
2. 제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 216

참고문헌 231

부 록 235

표 목차

표 I - 1. 심층면접조사 개요	6
표 I - 2. 학교 밖 청소년 면담 참여자 분류 및 참여자 수	7
표 I - 3. 1차 년도 연구계획	8
표 II - 1. ○○구 청소년 인구규모	14
표 II - 2. 전국 학업중단율	14
표 II - 3. ○○구 학업중단율	15
표 II - 4. ○○구 청소년 시설 현황	16
표 II - 5. ○○시 청소년 인구규모	18
표 II - 6. ○○시 학업중단율	18
표 II - 7. ○○시 청소년 시설 현황	20
표 II - 8. ○○군 청소년 인구규모	21
표 II - 9. ○○군 학업중단율	22
표 II - 10. ○○군 청소년 시설 현황	23
표 II - 11. 꿈드림센터의 주요 서비스 내용	26
표 II - 12.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분야 및 세부 서비스특성	29
표 II - 13. 서울특별시 25개구의 학교 밖 배움터의 현황	31
표 II - 14.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분야와 세부사업내용	34
표 II - 15. 광주광역시 5개 지역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사업	35
표 II - 16.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구 도시형 대안학교 현황	38
표 II - 17. 광주광역시 청소년작업장의 특성	38
표 III - 1. 연구 참여자 현황(기관책임자 및 실무자)	43
표 III - 2. 연구 참여자 현황(학교 밖 청소년)	44
표 III - 3. 심층면접 주요내용	45

표 IV- 1.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심층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49
표 IV- 2.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80
표 IV- 3.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심층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95
표 IV- 4.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131
표 IV- 5.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심층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143
표 IV- 6.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171
표 IV- 7. 지역별 특성	184
표 IV- 8. 지역별 학교를 그만 둔 이유	185
표 IV- 9. 지역별 학교를 그만 둔 후 하고 싶었던 일	185
표 IV-10. 지역별 학교를 그만둔 후 생활패턴	186
표 IV-11. 지역별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든 경험과 대처방법	186
표 IV-12.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187
표 IV-13.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188
표 IV-14.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을 알게 된 경로	188
표 IV-15. 현재 기관에서 도움 받고 있는 부분과 만족정도	189
표 IV-16.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	189
표 IV-17.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및 필요한 지원	190
표 IV-18.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라는 기관 및 시설과 관련된 욕구	191
표 IV-19. 지역별 기관의 위치 및 여건	191
표 IV-20.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이용인원 및 발굴과정	192
표 IV-21.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193
표 IV-22. 지역별 기관에서 실행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193
표 IV-23. 지역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행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	194
표 IV-24. 지역별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이나 노력하는 부분	195
표 IV-25. 지역별 기관 홍보 방법	195

표 IV-26. 지역별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원	196
표 IV-27. 지역별 제한점 및 애로사항	197
표 IV-28. 지역별 지역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197
표 IV-29. 지역별 지역 내 인지도와 네트워크 정도	198
표 IV-30. 지역별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	199
표 IV-31.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성공모델 요인	199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계획	7
그림 Ⅰ-2. 연구추진계획	8
그림 Ⅱ-1.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과정	25
그림 Ⅱ-2. 꿈드림센터 서비스 지원체계	27
그림 Ⅱ-3.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구조도	28
그림 Ⅱ-4.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구조도	33
그림 Ⅱ-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40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연구계획 및 추진체계
- 5. 연구의 제한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교는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장소다. 미래를 위한 교육과 사회화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6~7만 명의 청소년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201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초·중·고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약 32만 명 정도이다(윤철경 외, 2017: 3). 이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화의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의 가출, 이혼, 별거, 심각한 폭력을 경험했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하거나 조손가구에 속해 있거나 가족이 없이 살고 있다(조은주, 2014: 331). 따라서 이와 같은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동반자,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여성가족부, 2018). 교육부는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교육부, 2015).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이 장은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와 임정아(명지대학교 박사수료)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이 법은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각종 지원제도 등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17), 2018년 현재 전국 206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등 5가지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²⁾.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서비스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각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다르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이나 욕구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직면하는 운영상의 애로 사항이나 제한점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어느 정도 축적되어 왔으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형을 연구하려면 지역을 적어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해야 효율적으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형 연구는 연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1차 년도의 연구로는 한계가 있다. 적어도 5년 동안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다. 1차 년도에는 지역사회 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하

2) 꿈드림센터 홈페이지 www.kdream.or.kr (2018.09.01.) 인출

다.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을 연구하고 5차 년도에는 지역사회 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5년 연구의 시작인 1차 년도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지역자원 특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애로사항, 성공사례 등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을 탐색하고자 한다. 추후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2~5차 년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개념을 청소년이 갖는 공간적 이동 범위를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시, 군, 구로 제한하여 연구하였다.

2. 연구내용

- 선정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개 지역특성
- 지역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 지역규모별 학교 밖 관련기관의 특성
- 지역사회 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제시

3. 연구방법

1) 심층면접 조사

선정된 3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기관책임자와 실무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1. 심층면접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면담 대상 섭외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실시 • 3개 시·군·구 선정 • 관련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피면담자 섭외 • 5월~7월에 걸쳐 면접조사 실시 • 면접 실시 전 면담·녹음·전사에 관한 본인의 서면동의
대상 특성 및 개요	기관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관련기관 책임자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관련기관 실무자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0명 •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취업 및 검정고시 준비 등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 • 학업중단 숙려대상 및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면담 방식 및 시간	기관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반구조화된 질문지 이용 • 참여자별 심층면접 • 참여자별 1시간 30분 ~ 2시간 / 총 1 ~ 2회 면담 실시
	실무자	
	청소년	
면담 자료 기록	기관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취 및 전사
	실무자	
	청소년	
조사 분석	기관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조사원(청소년지도학 전공 박사과정생 및 석사과정생 총 3명)
	실무자	
	청소년	
주요 면담 내용	기관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규모별 성공모델 발굴 후 성공요인 파악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규모별 특성과 한계, 필요, 발전방향, 지원상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규모별 당면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등을 분석

표 1-2. 학교 밖 청소년 면담 참여자 분류 및 참여자 수

연구참여자		학업중단 기간	대상자 수 (명)	합계
학교 밖 청소년	17-19세	1년 미만	8명	20
		1년 이상	9명	
	20세 이상	개인별 특성고려	3명	

2) 전문가 자문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3개 지역 선정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

4. 연구계획 및 추진체계

1) 연구계획

본 연구의 계획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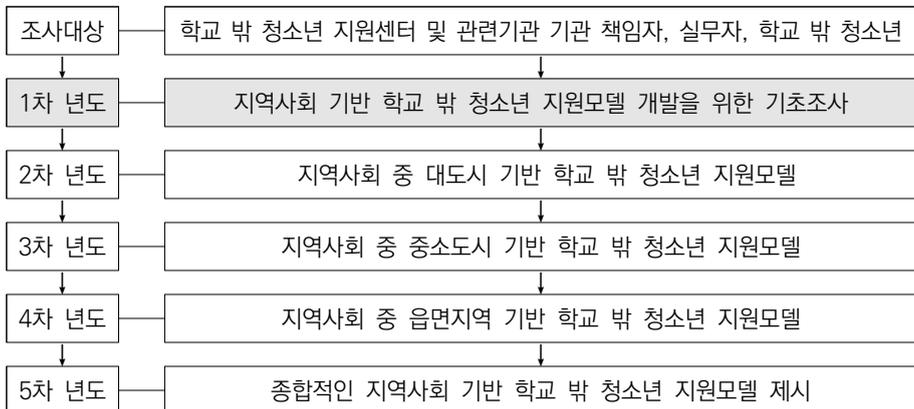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계획

2) 1차 년도 연구 계획

1차 년도 연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I-3]과 같다.

표 I-3. 1차 년도 연구계획

연구내용	세부 연구내용	연구방법
지역특성 조사	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지역규모별 지역 배경, 자원분포 (청소년 이용의 지역 내 서비스 기관, 인력자원) 등 조사	문헌연구
지역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분석	지역규모별 당면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등 분석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지역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특성	지역규모별 특성과 한계, 필요, 발전방향, 지원상의 어려움, 성공요인 등 분석	책임자, 실무자 면접조사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과 지침제시	지역사회별 기초적인 수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 제시	

3) 연구추진체계



그림 I-2. 연구추진계획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사회의 자원, 지자체의 의지, 지역사회 환경 등 학교 밖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특성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의 종사자와 기관장을 면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지만, 면접참여자의 수가 적어서 지역규모별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의 종사자와 기관장의 수가 적었는데, 이것은 연구계획 수립 시부터 지역특성별로 1개 지역만을 선정하였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차년도부터는 지역특성별로 대표성을 가지도록 충분한 수의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지역사회 특성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및 네트워크

1. 지역사회 특성

1) 대도시⁴⁾

(1) 지역의 특성

본 연구에서 대도시로 선정한 서울특별시의 ○○구는 총 면적 29.7km²으로 행정동 16개와 법정동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4.91%를 구성하고 있다. ○○구 지역의 진·출입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전철 3호선과 6호선, 경의선이 있으며 환승역을 포함해 해당 노선의 15개 전철역을 가지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구의 총 인구수는 491,476명이며, 서울특별시 25개구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 25개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수는 71,457명으로 가장 높았다. ○○구의 청소년 인구(10-24세)는 2012년 87,245명이며, 2016년은 79,304명(총 인구수의 16.1%)으로 지난 4년간 약 8천명의 청소년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 비해 2016년의 경우, 10-14세, 15-19세 청소년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20-24세 청소년의 수는 소폭 증가하였다. ○○구의 청소년 인구규모는 다음의 [표 II-1]과 같다.

3) 이 장은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와 임정아(명지대학교 박사수료)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4)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지역규모별 성공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의논한 결과, 대도시 지역으로는 서울의 00구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선정되었음

표 II-1. ○○구 청소년 인구규모 (단위: 인구수(명), 구성비(%))

년도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인구수	구성비								
합계	493,501	100	495,923	100	491,107	100	489,924	100	491,476	100
10-14세	25,545	5.18	24,557	4.95	23,007	4.68	20,958	4.28	19,962	4.06
15-19세	30,653	6.21	29,808	6.01	28,775	5.86	28,283	5.77	26,995	5.49
20-24세	31,047	6.29	31,918	6.44	32,360	6.59	32,782	6.69	32,347	6.59

* 출처: ○○구청 인구통계(2016.12월 기준) (2018.09.20.) 인출

○○구의 2017년 학업중단율은 전체 0.82%로 2015년 0.88%보다는 낮으나 2016년 0.72%보다는 높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2017년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54%, 중학생 0.62%, 고등학생 1.3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은 감소한데 비해 고등학생은 큰 차이는 없지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2017년 전국 학업중단율이 초등학생 0.6%, 중학생 0.7%, 고등학생 1.5%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은 다소 낮은 편이다. 전국 학업중단율은 다음의 [표 II-2]와 같으며, ○○구 학업중단율은 다음의 [표 II-3]과 같다.

표 II-2. 전국 학업중단율 (단위: 인구수(명), 구성비(%))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7	5,725,260	50,057	0.9	2,674,227	16,422	0.6	1,381,334	9,129	0.7	1,669,699	24,506	1.5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6	5,882,790	47,663	0.8	2,672,843	14,998	0.6	1,457,400	8,924	0.6	1,752,457	23,741	1.4
2015	6,088,827	47,070	0.8	2,714,610	14,555	0.5	1,585,951	9,961	0.6	1,788,266	22,554	1.3

* 출처 :교육부(2018), 교육기본통계

-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학생 수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5)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표 II-3. ○○구 학업중단율 (단위: 인구수(명), 구성비(%))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7	49,191	401	0.82	22,409	120	0.54	11,538	71	0.62	15,244	210	1.38
2016	51,292	367	0.72	23,037	109	0.47	12,263	81	0.66	15,992	177	1.11
2015	53,537	471	0.88	23,918	163	0.68	13,364	85	0.64	16,255	223	1.37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8.09.28.) 인출

-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학생 수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5)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구의 청소년(10~24세)은 79,304명(전체 인구의 16.1%)이다. 이들을 위한 ○○구의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진로체험센터 1개소, 여자청소년 쉼터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각 1개소, 미인가를 포함한 7개의 대안학교, 징검다리 거점공간이 3개소, 청소년 카페 1개소가 있다.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를 담당하는 시설은 쉼터 1개로서 대도시인 ○○구의 청소년 인구대비 청소년의 보호와 정서적 안정에 대한 서비스는 열악한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를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1개가 있으나 복합문화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어 온전한 청소년의 이용시설이 아닌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구민의 시설이라 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시설로는 꿈드림센터 1개소, 대안학교 7개소, 징검다리 거점 공간 3개소를 가지고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시설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의 청소년 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 II-4]와 같다.

표 II-4. ○○구 청소년 시설 현황

종류	시설 기관	시설 수	합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1	3
	청소년 수련원	-	
	청소년 문화의 집	1	
	청소년 특화시설(진로체험)	1	
	청소년 야영장	-	
	청소년 유스호스텔	-	
보호 및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1	1
	청소년 자립 지원센터	-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	
	청소년 복지관	-	

종류	시설 기관	시설 수	합계
상담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1
학교 밖 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1	11
	대안학교	7	
	징검다리 거점공간	3	
기타 시설	청소년 카페	1	1
	청소년 회관	-	
청소년 시설의 현황 수			17개소

2) 중소도시⁵⁾

(1) 지역의 특성

본 연구에서 중소도시로 선정한 경기도의 ○○시는 경기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왕시, 안양시, 안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주변에는 서울특별시, 과천, 수원, 광명시가 있는 분지형 도시이다. 총 면적 36.36km²으로 행정동 11개와 법정동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0.36%를 구성하고 있다. ○○시 지역의 진·출입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전철 1호선과 4호선이 있으며 환승역을 포함해 해당 노선의 6개 전철역을 가지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시의 총 인구수는 284,890명이다. 청소년 인구(10-24세)는 2012년 57,230명이며, 2016년은 51,838명(총 인구수의 약 18.1%)으로 지난 4년간 약 5천 400명의 청소년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 비해 2016년의 경우, 10-14세, 15-19세 청소년 인구는 감소한 반면, 20-24세 청소년 인구는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10-14세 청소년 인구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청소년 인구규모는 다음의 [표 II-5]와 같다.

5)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지역규모별 성공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의논한 결과, 중소도시 지역으로는 경기도의 ○○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선정됨.

표 II-5. ○○시 청소년 인구규모 (단위: 인구수(명), 구성비(%))

년도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인구수	구성비								
합계	286,841	100	286,344	100	288,408	100	287,519	100	284,890	100
10-14세	17,456	6.08	16,703	5.83	15,992	5.54	14,745	5.13	14,029	4.92
15-19세	20,095	7.00	19,453	6.79	18,907	6.55	18,585	6.46	17,880	6.27
20-24세	19,679	6.86	19,930	6.96	20,323	7.05	20,380	7.09	19,929	6.99

* 출처: ○○시 인구통계(2016.12월 기준) (2018.09.22.) 인출

○○시의 2017년 학업중단율은 전체 0.94%로 2015년 1.09%보다는 낮으나 2016년 0.88%보다는 높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2017년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60%, 중학생 0.83%, 고등학생 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모든 학교급별에서 학업중단율이 소폭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2017년 전국 학업중단율이 초등학생 0.6%, 중학생 0.7%, 고등학생 1.5%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시 초등학생 학업중단자 비율은 전국 초등학생 학업중단자 비율과 같고, 중학생, 고등학생 학업중단자 비율은 다소 낮은 편이다. ○○시의 학업중단율은 다음의 [표 II-6]과 같다.

표 II-6. ○○시 학업중단율 (단위: 인구수(명), 구성비(%))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7	32,755	307	0.94	15,850	95	0.60	8,200	68	0.83	8,705	144	1.65
2016	34,319	301	0.88	16,234	84	0.52	8,669	51	0.59	9,416	166	1.76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5	35,783	389	1.09	16,802	110	0.65	9,360	80	0.85	9,621	199	2.07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8.09.28.) 인출

-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학생 수
-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 4)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 5) 학업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시의 청소년(10-24세)은 51,838명(전체 인구의 18.1%)이다. 이들을 위한 ○○시의 청소년 시설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수련관이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이 2개소, 진로체험센터가 1개소, 미혼청소년 임신부 보호소를 포함한 쉼터가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각각 1개소가 있다. 기타 시설로는 청소년 카페가 3개소, 청소년회관이 1개소가 있다. ○○시의 청소년시설의 특징은 청소년 카페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카페는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공간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며, 이곳에는 청소년지도사가 교대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친숙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고민을 청소년지도사에게 공개하기도 한다. 청소년 카페에서 카페지기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는 곧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최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카페는 언제나 열려있는 아웃리치의 장으로써 ○○시의 대표적인 청소년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안학교가 없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이다. ○○시의 청소년 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 II-7]과 같다.

표 II-7. ○○시 청소년 시설 현황

종류	시설 기관	시설 수	합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1	4
	청소년 수련원	-	
	청소년 문화의 집	2	
	청소년 특화시설(진로체험)	1	
	청소년 야영장	-	
	청소년 유스호스텔	-	
보호 및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2	2
	청소년 자립 지원센터	-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	
	청소년 복지관	-	
상담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1
학교 밖 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1	1
	대안학교	-	
	징검다리 거점공간	-	
기타 시설	청소년카페	3	4
	청소년회관	1	
청소년 시설의 현황 수			12개소

3) 읍면지역⁶⁾

(1) 지역의 특성

본 연구에서 읍면지역으로 선정한 경기도의 ○○군은 경기도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가평군, 서쪽은 남양주시가 북한강을 경계로 접해있으며 동쪽은 강원도, 남쪽은 여주시에 접해있다. 총 면적 877.69km²으로 1개의 읍과, 11개

6)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지역규모별 성공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의논한 결과, 읍면 지역으로는 경기도의 ○○군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가 선정됨

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8.6%를 구성하고 있다. ○○군 지역의 진·출입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전철 경의중앙선과 KTX 열차가 있으며 해당노선의 9개 전철역을 가지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군의 총 인구수는 111,367명이다. 청소년 인구(10-24세)는 2012년 16,047명이며, 2016년은 15,590명(총 인구수의 약 13.8%)으로 지난 4년간 약 460명의 청소년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2012년에 비해 2016년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군의 청소년 인구규모는 다음의 [표 II-8]과 같다.

표 II-8. ○○군 청소년 인구규모 (단위: 인구수(명), 구성비(%))

년도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인구수	구성비								
합계	103,331	100	103,620	100	105,379	100	108,316	100	111,367	100
10-14세	4,991	4.83	4,782	4.61	4,738	4.49	4,562	4.21	4,523	4.06
15-19세	5,485	5.30	5,440	5.24	5,389	5.11	5,453	5.03	5,349	4.80
20-24세	5,571	5.39	5,437	5.24	5,662	5.37	5,724	5.28	5,718	5.13

* 출처: ○○군 인구통계(2016.12월 기준) (2018.09.22.) 인출

○○군의 2017년 학업중단율은 전체 1.13%로 2015년 1.00%, 2016년 1.07%보다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2017년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0.84%, 중학생 1.33%, 고등학생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점차 증가하는데 비해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2015년보다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2017년 전국 학업중단율이 초등학교 0.6%, 중학생

0.7%, 고등학생 1.5%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군 학업중단자 비율은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업중단자 비율보다 모두 높다. ○○군의 학업중단율은 다음의 [표 II-9]와 같다.

표 II-9. ○○군 학업중단율 (단위: 인구수(명), 구성비(%))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7	11,228	127	1.13	5,118	43	0.84	2,638	35	1.33	3,472	49	1.41
2016	11,282	121	1.07	5,029	28	0.56	2,686	34	1.27	3,567	59	1.65
2015	11,383	114	1.00	4,983	25	0.50	2,774	31	1.12	3,626	58	1.60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8.09.28.) 인출

-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학생 수
-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 4)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 5) 학업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군의 청소년(10~24세)은 15,590명(전체의 13.8%)이다. 이들을 위한 ○○군의 청소년 시설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수련원이 2개소,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1개소가 있다. 진로체험센터가 1개소, 청소년 공부방이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1개소가 있으며, 청소년 문화공간은 3개소가 있다. ○○군은 도시와 떨어져 자연과 가까운 지역으로서 숙박활동을 겸비한 청소년수련원이 타 도시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다. 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시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공부방이 있다. ○○군의 청소년시설의 특징은 청소년 전용의 문화

공간이 3개나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이곳은 동아리활동, 보드게임, 댄스연습, 목공작업, 도서관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중·고의 모든 청소년이 문화공간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군의 청소년 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 II-10]과 같다.

표 II-10. ○○군 청소년 시설 현황

종류	시설 기관	시설 수	합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	4
	청소년 수련원	2	
	청소년 문화의 집	-	
	청소년 특화시설(진로체험)	1	
	청소년 야영장	-	
	청소년 유스호스텔	1	
보호 및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	2
	청소년 자립 지원센터	-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	
	청소년 공부방	2	
	청소년 복지관	-	
상담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1
학교 밖 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1	1
	대안학교	-	
	징검다리 거점공간	-	
기타 시설	청소년카페	-	3
	청소년 문화공간	3	
청소년 시설의 현황 수			11개소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및 네트워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기관이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둘째, 서울특별시처럼 시차원에서 꿈드림센터와는 별도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셋째, 광주광역시처럼 시차원에서 여성가족부의 꿈드림센터와 서울특별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넷째,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네트워크(CYS-Net)이다. 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두드림·해밀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꿈드림센터의 중앙지원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과 꿈드림센터를 지원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이루어진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에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공간 설치지원, 중장기적인 문화예술사업 지원, 특성화 캠프 지원, 학교 밖 청년 자립성취 장려금 지원, 검정고시 합격자 대상 대입설명회 개최 등이 있다. 꿈드림센터를 지원하는 방법에는 전문성 강화와 인력관리의 전문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연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심층 컨설팅,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2018년 현재 전국의 206개소의 꿈드림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시·도 센터 5명씩, 시·군·구 센터 2~4명씩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꿈드림센터의 지원 대상은 9~24세의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학업 중단 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이다.

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 신청 한 후, 즉시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따라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자립지원을 한다. 그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한다.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과정은 다음의 [그림 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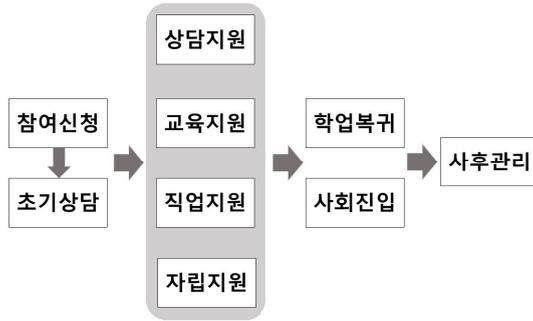


그림 II-1.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과정

* 출처: 꿈드림센터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 (2018.09.05.) 인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센터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의 [표 II-11]과 같다.

표 II-11. 꿈드림센터의 주요 서비스 내용

주요지원	서비스 내용
상담지원	청소년 심리, 진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교육지원	학업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진행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중단 숙려상담, 취학관리 전담기구 사례관리 복교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지원	직업탐색, 체험프로그램 제공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취업훈련 연계지원 (내일이룸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비즈쿨)
자립지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초 소양교육 제공
건강검진	10대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 서비스제공 (본인부담 없음) 건강생활 관리 지원
기타 서비스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등

* 출처: 꿈드림센터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 (2018.09.05.) 인출

꿈드림센터의 서비스 지원 체계는 우선,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총괄하며, 중앙지원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꿈드림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도의 지역자치단체는 시·도의 꿈드림센터를 설치·지정·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시·도의 꿈드림센터는 시·군·구 센터를 지원·교육·컨설팅을 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는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구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지원·자립지원·사후관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때 시·군·구 지역자치단체는 시·군·구 꿈드림센터를 설치·지정·지도·감독한다. 꿈드림센터의 서비스 지원체계는 다음의 [그림 II-2]와 같다.

서비스 지원체계



그림 II-2. 꿈드림센터 서비스 지원체계

* 출처: 꿈드림센터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 (2018.09.10.) 인출

2)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서울특별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센터에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였고(2012.5.8), 곧이어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였다(2012.7.30.). 현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와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2013년 7월1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운영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구조도는 다음의 [그림 II-3]과 같다.



그림 II-3.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구조도

* 출처: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allnet.org> (2018.09.15.) 인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본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 밖 배움터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자원을 발굴하고, 민·관·산·학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환경에 맞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및 성장사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학교 밖 배움터 지원사업이다. 2001년부터 학교 밖 배움터의 신규현장 발굴 및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둘째, 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사들의 직무역량 강화 및 교사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과 체험, 배움의 기회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교육연구사업으로 학교 밖 배움터의 우수한 교육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통해 학교 밖 배움터의 정책 및 발전방안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홍보 및 대외협력사업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회적 이슈를 폭넓게 공유하고, 센터와 학교 밖 배움터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분야 및 세부 서비스 특성은 다음의 [표 II-12]와 같다.

표 II-12.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분야 및 세부 서비스특성

분야	사업서비스	특성
학 교 밖 배 움 터	학교 밖 배움터 컨설팅	- 대안교육기관의 건설한 운영 토대마련 - 대안교육기관 실태점검 및 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정직한 교육문화 정착 - 개별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지원
	학교 밖 배움터 간담회 · 재협약	- 학교 밖 배움터 대표 교사간담회 개최로 청소년 지원사업의 협력적 모델 구축, 사업효율성강화 - 대안교육사업운영에 관한 협약서 체결을 통해 학교 밖 배움터의 책무성 강화

분야	사업서비스	특성
지원 사업	학교 밖 배움터 재정지원	- 학교 밖 배움터 대상, 교사 인건비와 사업비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복지모델 창출
	학교 밖 배움터 급식비지원	- 학교 밖 배움터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단계별 급식 지원
교육 지원 사업	대안교육컨텐츠 개발 및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 대안적 교과와 안정적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 - 연구활동지원을 통한 학교 밖 배움터 프로그램의 다양성확보
	길잡이교사 교육	- 학교 밖 배움터 예비 길잡이 교사 양성과정 - 학교 밖 배움터 재직 길잡이 교사 교육과정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과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제공 -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특기적성 개발 및 진로설계 도모 - 지역자원 및 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턴십 참여기회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형 성장(창업, 벤처, 사회적 기업등)과 비전 모색
	학교 밖 청소년 상담	- 위기유형별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력 신장 -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는 상담 서비스제공으로 학교 복귀 및 진로개발 도모 - 통합지원체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중심 허브 역할 수행
	학교 밖 청소년 연합행사	- 학교 밖 청소년들과 길잡이 교사의 공동체 의식고취 - 지역 내 학교 밖 배움터와 청소년관련기관, 단체, 시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학교 밖 배움터 활동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교육 연구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정책동향조사	-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이슈 발굴과 동향파악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 연계기관과의 연구적 협력
	학교 밖 청소년지원방안연구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추진 - 학교 밖 청소년관련 연구보고서 제작
	학교 밖 배움터 평가와 가이드라인 연구	- 대안교육기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대안교육기관 평가지표 개발
	학교 밖 청소년 심포지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현안과제와 쟁점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발표와 토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천 시스템, 연계와 협력방안 모색
홍보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모집, 행사, 소식공유 - 청소년기자단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콘텐츠 생산 및 확산 - 홈페이지 운영 및 정기적 뉴스레터 발송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우수사례 공유 및 사회인식 환기

분야	사업서비스	특성
대외협력사업	오프라인 홍보	-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 있는 관계자와 일반 시민대상, 월별 정기적 센터 기관방문으로 센터 소개 및 학교 밖 배움터 안내 - 학교 밖 배움터의 특성화된 학교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선택의 기회 확대
	사회자원 네트워크 사업	- MOU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참여 및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제공
	학교 밖 청소년 심포지엄	- 학교 밖 청소년 심포지엄

* 출처: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allnet.org> (2018.09.18.) 인출

현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도시형 대안학교 즉, 학교 밖 배움터는 34곳이다. 학교 밖 배움터가 1개소도 없는 서울의 지역구는 강서구·동대문구·동작구·종로구·중구의 5개 지역구이다. 반면, 영등포구·은평구는 각각 5개소의 학교 밖 배움터를 가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25개구의 학교 밖 배움터의 현황은 다음의 [표 II-13]과 같다.

표 II-13. 서울특별시 25개구의 학교 밖 배움터의 현황

지역구(수)	학교 밖 배움터	지역구(수)	학교 밖 배움터
강남구(1)	이룸학교	강동구(2)	꿈터학교, 징검다리거점공간 하품
강북구(2)	삼각산재미난학교, 징검다리거점공간도깨비학교	강서구(0)	-
관악구(4)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성장학교 별, 우리들학교, 징검다리거점공간 몽담몽담	광진구(1)	아름다운 학교
구로구(1)	꿈이 있는 학교	금천구(1)	대안학교 원두
노원구(2)	징검다리거점공간 나도 꽃, 징검다리 와락	도봉구(1)	징검다리거점공간 스킨제프
동대문구(0)	-	동작구(0)	-

지역구(수)	학교 밖 배움터	지역구(수)	학교 밖 배움터
마포구(4)	꿈들학교, 성미산학교, 징검다리거점공간 티움, 징검다리거점공간 캔틴스쿨	서대문구(1)	꽃피는 학교
서초구(2)	다음학교, 희망오름행복학교	성동구(1)	대안학교 통
성북구(2)	인디학교, 공간민들레	송파구(4)	인투비전스쿨, 단재학교, 대안학교 한들, 사랑의 학교
양천구(1)	내일새싹학교	영등포구(5)	돈보스코영상특성화학교, 사람사랑나눔학교, 로드스폴라, 하자작업장학교, 영세프스쿨
용산구(1)	푸른나무미디어학교	은평구(5)	은평씨앗학교, 동방학교, 징검다리거점공간 작공, 징검다리거점공간 주, 징검다리거점공간꿈꾸는다락방
종로구(0)	-	중구(0)	-
종각구(2)	꿈지락학교, 티움터학교		

* 출처: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allnet.org> (2018.09.18.) 인출

(2)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2011.7.27.)를 제정한 곳으로 타 지역과는 차별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조례 제정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8)에 근거하여 동·서·남·북·광산구 5개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후에 개소하여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연계를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원 보호 및 증진조례(2015.10.1)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작업장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이고, 타 지역에

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꿈드림센터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만 꿈드림센터와는 별도로 시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광주광역시에서는 꿈드림센터는 물론, 서울특별시의 학교 밖 청소년센터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센터, 청소년작업장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포괄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구조를 가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구조도는 다음의 [그림 II-4]와 같다.



그림 II-4.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구조도

* 출처: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lyyouth.or.kr> (2018.09.20.) 인출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크게 10가지로 구성된다.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활동지원, 자치기구, 학교 밖 청소년 네트워크, 대안학교지원, 대외협력사업, 권익 및 홍보활동이 있다. 사업의 분야와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의 [표 II-14]와 같다.

표 II-14.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분야와 세부사업내용

사업 분야	사업내용
상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보호자 상담, 온라인 상담
교육지원	대안학교 진학안내, 검정고시 안내, 복교지원, 대학입시설명회, 1:1맞춤형 입시상담, 부모교육, 세상배움카드 발급
취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운영지원,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자립지원	멘토링, 비행예방프로그램, 건강검진, 우수사례 공모전
활동지원	동아리 지원
자치지구	꿈드림 청소년단
학교 밖 청소년 네트워크	학교 밖 청소년 문화축제 감사의 밤, 체육대회,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합캠프 및 체험활동
대안학교 지원	대안학교 교사 인건비 지원,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 공동입학설명회, 대안교육기관 교사연수
대외협력 사업	기초센터 컨설팅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사업 분야	사업내용
	유관기관 합동아웃리치 지역자원 발굴
권익/홍보활동	꿀팁 정보지 제작, SNS 페이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

* 출처: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lyyouth.or.kr> (2018.09.20.) 인출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의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의 5개 센터를 위탁운영하며, 대안학교와 청소년작업장을 지원한다. 우선, 5개 지역구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주된 사업은 상담·교육·학습·자격취득 및 취업지원이다. 그 외 지역구만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5개 지역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5]와 같다.

표 II-15. 광주광역시 5개 지역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사업

지역	지원분야	지원방법
동구	상담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보호자 상담, 온라인 상담, 금연 상담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개인, 집단, 부모상담)
	교육지원	검정고시지원, 복교상급학교·대안학교 연계 및 진학지원 대학입시설명회, 1:1 맞춤형 입시상담 청소년근로·인권교육 및 기초 소양교육 등
	취업·자립지원	진로직업체험활동, 취업연계지원(내일이룸학교,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연계, 자격증취득지원(바리스타외) 해밀·두드림 프로그램, 인턴십 맵핑
	특성화(자기계발) 프로그램	문화예술 분야, 신체단련 분야, 봉사활동 분야, 환경보존 분야, 과학정보 분야
	직접지원 및	멘토링, 건강검진, 동아리활동, 문화·역사 진로직업체험활동

지역	지원분야	지원방법
	활동지원	서울대 인턴십프로젝트 청소년특별지원(학업, 자립, 건강, 활동지원)
	자치기구 및 대외협력사업	꿈드림 운영위원 운영, 유관기관연계협력 학교 밖 청소년 체육대회, 학교 밖 청소년 감사의 밤 합동아웃리치(검정고시장, 검정고시접수장), 경찰과 함께 하는 아웃리치
서구	상담지원	초기개입 개인상담, 심리·정서·진로상담 학업속려제 상담, 가정법원 수강명령상담, 멘토링 연결
	교육 및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1대1 멘토, 인터넷강의, 교재지원) 두드림, 해밀프로그램 운영 복학 및 대안학교 연계지원, 대학입학(수시/정시) 지원
	건강검진	무료건강검진지원, 잠복결핵검진지원, 금연프로그램연계지원
	자격취득 및 취업지원	진로 및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내일이룸학교 연계, 자기소개서 작성등
	활동지원	체험캠프 · 한국잡월드, 문화예술체육활동, 스포츠경기관람, 미술활동-명화 DIY, 동아리활동 지원
	센터특성화사업	100인의 인터뷰 (다양한 직업인을 만나 체험하고 꿈을 찾아가기)
남구	상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상담, 학업중단 속려제 상담 수강명령 상담
	교육지원	검정고시지원, 봉사활동
	자립지원	멘토링, 두드림교육
	건강검진	무료건강검진실시
	문화체험활동	영화관람, 문화공연관람, 야구관람, 볼링
	진로체험활동	쉐프체험, 목공예체험, 힐링원예체험
북구	상담지원	초기개입 개인상담, 심리·정서·진로상담 학업중단속려제 상담, 가정법원 수강명령 상담
	교육 및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1:1 멘토, 인터넷강의, 교재지원) 두드림, 해밀 프로그램운영 복학 및 대안학교 연계지원, 대학입학(수시/정시)지원

지역	지원분야	지원방법
	건강검진지원	무료건강검진지원, 잠복결핵검진지원, 금연프로그램연계지원
	자격취득 및 취업지원	진로 및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지원 (안전요원, 컴퓨터, 원동기면허) 취업성공패키지, 내일이룸학교연계,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
	활동지원	야외나들이, 체험캠프 문화예술체육활동, 스포츠경기관람, 미술활동-영화 DIY 동아리활동지원 (맛있는 요리동아리, 자원봉사동아리)
	센터특성화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아카펠라) 드론 날리기, 볼링프로그램, 한국사 자격검정반, 수공예 예술활동 자립특성화자유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바리스타와 요리 및 제과제빵 체험 교육 카페운영 및 판매로 수익형 동아리 활동지원
광산구	상담지원	심리·진로·자립상담, 학업중단예방상담
	교육지원	검정고시지원, 복교지원, 대안학교 연계 대학입시컨설팅, 해밀프로그램
	취업지원	자격취득 지원 청소년작업장 연계, 취업훈련기관 연계
	자립지원	1:1 멘토링, 집단 멘토링 두드림 프로그램
	건강증진	건강검진, 결핵, 독감예방접종, 금연지원서비스 정서·행동특성검사, 인터넷스마트폰중독검사
	자기계발	체력증진, 문화예술체험, 진로프로그램

* 출처: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lyyouth.or.kr> (2018.09.20.) 인출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는 총 11개소이다. 동구에 2개소, 서구에 3개소, 남구에 2개소, 북구에 2개소, 광산구에 2개소로 지역 내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에 차이가 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역구에 따른 도시형 대안학교는 다음의 [표 II -16]과 같다.

표 II-16.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구 도시형 대안학교 현황

지역구 (개소 수)	도시형 대안학교
동 구 (2)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YMCA 해밀학교
서 구 (3)	래미학교, 무진일움학당, 화일주 성장학교 다운
남 구 (2)	교육공간 오름, 바람이 머무는 학교
북 구 (2)	청소년공간 날다, 행복학교 36.5
광산구 (2)	별별학교, 지혜학교

* 출처: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lyyouth.or.kr> (2018.09.28.) 인출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각각의 특성을 지닌 청소년작업장을 설치·운영지원을 하고 있다. 2015년 5월 청소년작업장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2월까지 현재 청소년작업장은 6개소이다. 광주광역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작업장의 작업특성은 다음의 [표 II-17]과 같다.

표 II-17. 광주광역시 청소년작업장의 특성

개소	지역	청소년작업장 명	작업특성
1호점	동구	생각하는 손	목공기술 교육, 목공품 판매
2호점	서구	러브레더	핸드메이드 가죽공예, 공예품 판매
3호점	동구	찰나	미디어 작업(사진, 영상, 디자인)
4호점	동구	달콤한 흔적	커피, 바리스타
5호점	서구	예뻐져라	뷰티작업장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6호점	서구	놀아줄 개	반려동물 행동교정, 훈련, 미용, 관리

* 출처: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lyyouth.or.kr> (2018.09.28.) 인출

3)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네트워크(CYS-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CYS- Net)는 개별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정신건강문제, 가출, 폭력 피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운영되고 있다. CYS-Net 사업은 2016년 전국 16개 시·도 및 206개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186,336명의 위기청소년에게 2,322,564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다. 더불어 CYS-Net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계망의 범위를 민간사회로 확대하여 가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견·긴급구조 및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해왔고, 점차적으로 의료, 법률, 자활 등의 전문분야에서도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CYS-Net의 여러 연계기관 중 하나로 이 체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만이 아니라 위기청소년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거나 신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서비스 체제는 다음의 [그림 II-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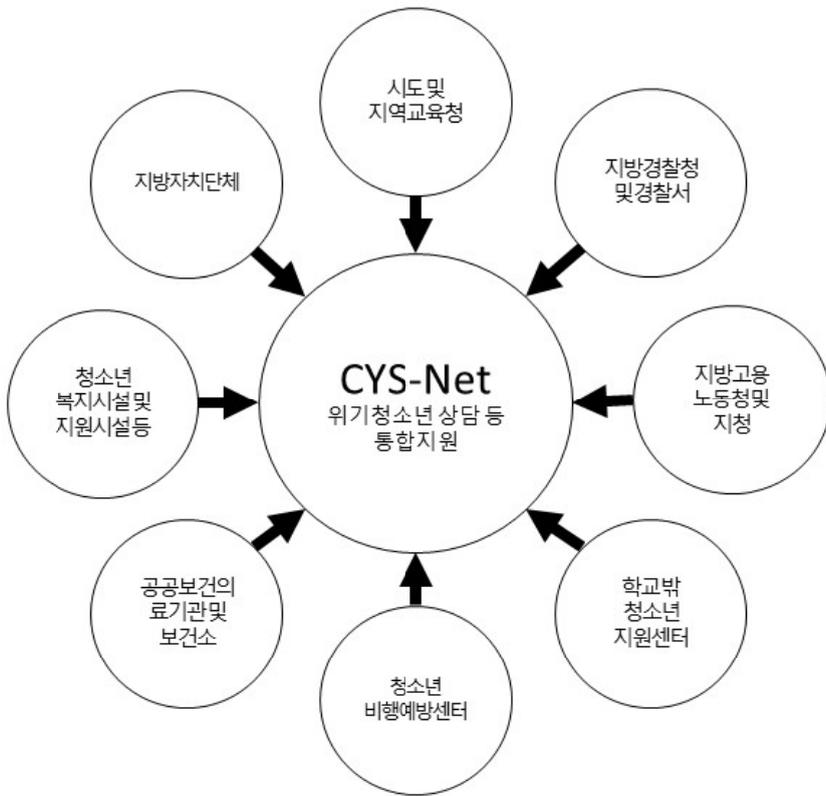


그림 11-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 출처: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백서, p.202

○ ————— 제3장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 2. 심층면접 질문내용
- 3. 자료수집 및 분석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기관책임자 4명, 실무자 3명, 학교 밖 청소년 20명으로 총 27명이다. 참여자는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된 3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의도적으로 표집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기관에 연구목적을 밝히고 기관책임자와 실무자에게 추천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례비 및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III-1], [표 III-2]와 같다.

표 III-1. 연구 참여자 현황(기관책임자 및 실무자)

구분	코드	성별	나이	근무기간	비고
기관책임자	기관장 1	여	43	1년	대도시
	기관장 2	여	44	13년	중소도시
	기관장 3	여	44	13년	읍면지역
	기관장 4	여	45	4년	중소도시
실무자	실무자 1	여	53	1년	대도시
	실무자 2	남	28	1년	중소도시
	실무자 3	여	40	3년	읍면지역

7) 이 장은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와 임정아(명지대학교 박사수료)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표 III-2. 연구 참여자 현황(학교 밖 청소년)

구분	코드	성별	나이	최종학교 종단시기	지역	비고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1	여	19	고2	00구	
	청소년 2	여	18	고1	00구	
	청소년 3	남	18	고1	00구	
	청소년 4	남	20	고2	00구	검정고시합격
	청소년 5	여	19	고1	00구	검정고시합격
	청소년 6	여	17	고1	00시	
	청소년 7	여	19	고2	00시	
	청소년 8	남	19	고1	00시	
	청소년 9	남	19	고2	00시	
	청소년10	남	19	고2	00시	
	청소년11	남	19	고1	00시	
	청소년12	남	18	고1	00시	
	청소년13	여	18	고1	00군	
	청소년14	여	19	고2	00군	
	청소년15	여	18	고1	00군	
	청소년16	여	19	고2	00군	
	청소년17	남	19	고2	00군	
	청소년18	남	19	고1	00군	검정고시합격
	청소년19	남	21	고2	00군	검정고시합격
	청소년20	남	19	고1	00군	

2. 심층면접 질문내용

인터뷰 내용을 얻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팀의 합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수를 받은 후 인터뷰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따른 심층 면접 질문의 항목과 주요 내용은 [표 III-3]과 같다. 구체적인 질문 목록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표 III-3. 심층면접 주요내용

구분	조사영역	주요내용
기관 책임자	청소년 특성 및 욕구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청소년 관리
	기관의 특성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도움 여부, 프로그램 영향 요인, 차별화(특화요인), 노력하는 부분, 운영
	지역 특성 및 연계	지역배경, 지역기관 연계 서비스 종류(지역기관, 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역기관 연계 시 필요사항
	발전방향	개선사항, 노력하는 부분, 애로사항, 지원(필요사항), 제한점
	성공요인	지역에서의 성공요인
실무자	청소년 특성 및 욕구	기관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기관별 청소년 이용 인원, 발굴과정, 학교를 나온 이유, 현재 상황,
	기관의 특성 및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종류, 청소년 관리, 기관의 위치 및 여건
	지역 특성 및 연계	지역네트워크, 지역 내 인지도, 지역특성, 지역 내 필요사항 (인적자원, 물적자원)
	발전방향	지역사회 및 기관
	실무	보람, 힘들었던 경험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특성 및 욕구	학교를 그만 둔 이유, 학교를 그만두고 하고 있는 일, 힘든 상황, 대처방법
	기관의 특성 및 프로그램	기관을 알게 된 경로, 기관의 도움, 기관만족,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
	지역특성 및 연계	도움 받는 사람이나 기관, 현재 받고 있는 지원
	발전방향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목표	경험해 보고 싶은 활동, 목표, 목표를 위해 필요한 도움, 도움 여부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이다. 면접은 연구원 3인이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과 FGI를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은 사전에 제작된 반구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개인특성에 따라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을 각기 다르게 질의하였다. 모든 면접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음 후 전사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질적연구의 기초적인 해석방법에 근거한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은 녹음 또는 필사된 원 자료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면담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경험의 본질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아내어 주요 영역과 핵심개념을 도출한 후, 이를 함축된 용어로 바꾸었다. 분석 후에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정을 거쳤다.

제4장 연구결과

- 1.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 2.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 3.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기관책임자,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 4.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기관 특성 비교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기관책임자와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을 심층 면접 하였다. 심층 면접 분석결과를 대도시·중소도시·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1)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와 실무자를 인터뷰한 내용 및 분석된 범주들은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심층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NO	인터뷰 내용	하위범주
1	대도시 지역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경제적 지원이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많음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비행과 학업중단

8) 이 장은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와 임정아(명지대학교 박사수료)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NO	인터뷰 내용	하위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인구와 학교 밖 청소년 많음 • 학교 밖 청소년이 많아서 서비스 받기가 어려움
2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어려움 • 위기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행동 증가 • 가정의 구조적 기능 문제(이혼가정,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3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음(그냥 놀고 싶음) • 교통비, 식비, 생활비 지원
4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이용인원 및 발굴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상담 • 교육청에서 리스트 전달 • 부모님의 권유
5	학교를 나온 이유 및 현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불안 등의 심리 정서적 요인 • 친구와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6	청소년 사례관리 및 관리 시 중점을 두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통화 및 일상생활 관리 • 검정고시 공부 지원 • 자립을 위한 아르바이트 및 취업지원
7	기관에서 실행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계절 숙박체험 프로그램 • 리더육성사업 • 찾아가는 꿈드림 • 1:1 멘토링 프로그램 • 학업 클리닉 프로그램 • 직업탐색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 자기계발 프로그램
8	기관 홍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관계자 간담회 개최
9	기관의 위치 및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련시설과 함께 쓰는 어려움 • 쓸 수 있는 독립 공간 필요
10	지역내 인지도와 네트워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도는 좋아졌지만 네트워크는 순조롭지 못함
11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행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여줘야 하는 실적에 대한 부담

NO	인터뷰 내용	하위범주
12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이나 더욱 노력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공간조성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13	지역규모별 제한점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족 • 현장 실무자에 대한 인력 및 수당 지원 부족, 잦은 이직 • 연계기관과의 마찰
14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및 실습 컨소시엄 • 미인가 대안학교와 사업공유
15	지역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실무자의 인력 보강
16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
17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예산지원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독립 •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작업 장소
18	성공모델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종사자의 사명감 • 지역 관내 경찰서와 연계

(1) 대도시 지역의 특성

인터뷰한 대도시 지역의 특성은 다섯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도시 지역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많은 편이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비행과 학업중단 현상이 일어나며, 청소년 인구가 많은 편이며, 학교 밖 청소년 수도 많은 편이다.

①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경제적 지원이 어려움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재원조달능력과 재정 상태를 살펴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활 인프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수준과 빚대어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00구 자립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14명인가 대상자가 있는데 1인당 만5천원, 2만5천원, 4만5천원 제일 많이 받는 친구가 7만5천원. 이걸 가지고 학원을 수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지원사례로 연계해서 좀 받으려 하지만, 자립도도 관심에 비해서 낮아서... (기관장1)

②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많음

00구는 지자체에서 학업 밖 청소년에게 가지는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이 부족하여 기관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이런 문제는 극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죠. 00구는 지자체장이나 구의원 마인드가 좋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답니다. (실무자1)

③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비행과 학업중단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낮는데 비해 기초수급자는 많다 보니 재정이 더욱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제대로 보살핌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취약계층과 위기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구대비 수급자율이 00구가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 방임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고, 적절한 위기상황에서 케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학교의 학업중단

으로까지 연결된 친구들도 많아 보이는 거죠. (기관장1)

저희 지역은 가난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모 없는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고요. 우리 구는 취약계층 해결의 문제가 심각한 숙제예요. (실무자1)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해요.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거나 비행행동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실무자1)

④ 청소년 인구와 학교 밖 청소년 많음

인터뷰한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 인구수가 서울시의 다른 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에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0구가 청소년 인구도 많아요. 학군으로 유명한 강남, 서초, 송파 빼놓고 노원 과 목동 빼놓으면 강서 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고요. (기관장1)

00구는 특히 교육청에서 받는 리스트가 강남3구나 양천구 이런 곳 빼고 강서구 랑 저희가 제일 많아요. 실질적 학교 밖 청소년이 많다는 거죠. (실무자1)

⑤ 학교 밖 청소년이 많아서 서비스 받기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이 많아서 적시에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학교 밖 청소년이 많다보니 지역특성상 상담대기 수도 굉장히 높고, 상담대기자 기간도 길고,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 수도 많고... (기관장1)

(2)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와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많은 위기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행

동의 증가, 가정의 구조적 기능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① 경제적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도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를 그만둔 후에 검정고시학원에 다니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 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를 포기하고 검정고시만이라도 합격하기 위해 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아서 검정고시 학원비를 낼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특별지원사례로 저희가 연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초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이 거절된 경우도 많구요. (기관장1)

이곳에 오는 아이들 중에 경제적 여력이 안 되어 부득이하게 학교를 그만 둔 경우도 있어요.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 싶지만 학원비가 더 비싸다며 학원비 벌 수 있도록 아무 일이나 연결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기관장1)

저희 지역은 가난해서 오는 게 많아요. 대략 7:3 정도? 8:2?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저희 00구는 어느 정도로 오는 친구들도 있냐면요. 부모 없는 보육시설에 아동청소년이 400~500명이 있어요. 00구 안에. 두 개의 보육시설이 있거든요. 저희 법인인 ***혜본에도 한 50명 정도 있고 저희 밑에 ***마을이라고 마리아 수녀회에서 하는, 네 거기는 서울시립이에요. 시립 ***마을은 거기에 한 400명 정도가 있어요. 지역의 특성상 경제가 열악한 경우가 많은 거죠. (실무자1)

② 위기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행동 증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 오히려 더 많은 위기상황에 노출 되어 있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

한다고 한다.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자격지심도 있고,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근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교 밖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어울리며 비행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저희 지역은 학교폭력이나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높아요. 이런 일로 학교를 그만 둔 후에 기존에 만나던 친구들과 더 많이 만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비행에 더 많이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관장1)

③ 가정의 구조적 기능 문제(이혼가정,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갈등 등 복잡한 가정사로 인한 가정불화를 겪는 경우가 많다. 실무자들은 기관을 찾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한다.

대부분이죠. 뭐. 가정이 편안한 아이들은 대부분 위기에 처하지 않아요. 가정폭력, 부모관계 나쁜 등 깊숙이 들어보면 별별 가정이 다 있어요. 아이들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도 아픈 부분은 건드리 않으려고 하구요. 학교에 강의를 가면 선생님들께서 당부를 하세요. 학교에 쫓나무 아이들(이혼부모, 조부모, 한부모의 가정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늘 염두에 두고 가정 얘기라던가, 가족 얘기를 할 때 조심해서 하라고 해요. 내 가정이,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시작해요. 가족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가정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섞어서 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00구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어요. (실무자1)

(3)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와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이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는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합격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반면, 일부는 학교를 그만둔 후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실비지원(교통비, 식비, 생활비)에 대한 바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검정고시 합격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을 매우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나온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그 중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도 있다. 그들에겐 검정고시 공부와 합격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검정고시 합격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공교육과정을 이수한 청소년과도 비교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들 욕구요? 검정고시가 우선이죠! 일단 빨리 합격을 해야 부담감이 덜어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해도 검정고시 공부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기관에 와서 제일먼저 물어보는 게 '검정고시 볼 수 있어요?'이예요. 전화문의도 검정고시에 관하게 제일 많고요. (기관장1)

검정고시 합격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죠. 그 요구에 부합하게끔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을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일반 검정고시 학원은 학원비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일반학원이랑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검정고시를 붙어야겠다는 욕구가 크다 보니까 이곳에 오는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편입니다. (실무자1)

②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음(그냥 놀고 싶음)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시간들을 매우 행복해 한다고 한다. 학교를 그만둔 초기에는 틀에 박힌 생활을 벗어난 자신의 결정에 만족해하며 일단은 진로와 진학의 아무런 압박 없이 그저 놀고만 싶어 한다.

자퇴한 아이들은 일단 놀고 싶은 욕구이죠. ‘그냥 뒤라’, ‘나 놀겠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기관장1)

③ 교통비, 식비, 생활비 지원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다. 교통비나 식비 생활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길 바라지만 예산상 자유롭게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이 지역의 경제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생활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교 밖 아이들도 식사대신 이곳에 와서 먹을거리를 먹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긴 한데... 서류상으로만 확인했을 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저희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소득 등 서류상으로 보여 지는 거 말고 실사라도 나가던지 해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해요. (실무자1)

(4)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이용인원 및 발굴과정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는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이용인원 및 발굴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기관을 이용하는 상시이용인원은 30명 내외이다. 발굴과정은 학교 밖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상담으로 발굴되거나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리스트를 통해 발굴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부모님의 권유로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상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두기 전 그만둘 의사표현을 하면 학업중단 숙려제를 하게끔 되어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사업설명과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라 학업중단 숙려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한다.

옛날에는 Wee 센터나 상담복지센터 등을 거쳐서 저희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 그리고 올해는 지역에서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도 되어있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중요하게 한다는 사업설명회 많이 되어있어서 집중적으로 저희한테 많이 보내요. 대부분 학업중단 숙려제를 하게 하려면 저희 쪽으로 많이 보내요. 그래서 학교 연계가 많아요. (실무자1)

② 교육청에서 리스트전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고 관련 자료를 취합해 각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으로 리스트를 보내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리스트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접연락을 취하고 기관이용 권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와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이진 법에 의해서 교육청, 경찰청, 보호관찰소, 법무부 이런 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되어서 리스트가 확보가 되면 무조건 학교 밖 지원센터로 연결하게끔 되어있어요. 리스트를 저희에게 보내줘요.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둔 친구가 있으면 '우리 학교에 학교 그만둔 학생이 있다'라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모든 학교의 보고를 취합을 해서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리스트가 와요. 분기별로, 매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리스트가 와요. 그럼 그 리스트를 받아서 보면 그 중에는 이미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중복되거나 중복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와요. 그럼 일단 그런 친구들을 다 등록해야 돼요. 중복된 친구들도 또 등록했어요. (실무자1)

③ 부모님의 권유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 중 기관에 대한 소식을 알고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 부모님이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자녀

와 함께 직접 방문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학교 밖 지원사업의 홍보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하 학교 밖 사업)이 4년차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 사업이라는 것을 나라에서 해준데, 공짜래.'라고 소식을 듣고 와요. 부모님이랑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인 아이들이 와서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교 밖 지원센터가 서비스 지원을 잘 해주는 기관처럼, 제 2의 학교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부모님도 간혹 있어요. '이런 것도 해줘요? 저런 것도 해줘요? 대학입시 공부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자1)

(5) 학교를 나온 이유 및 현재 상황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는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를 나온 이유 및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것은 개인의 심리 정서요인(우울, 불안) 혹은 친구나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우울·불안 등의 심리 정서적 요인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그만 두기 전 각 개인별로 다양한 이유들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그 중 인터뷰한 대도시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은 개인의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정서적인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모에게서 본인의 심리상태가 힘든 것에 대한 이해를 받기 어렵다 보니 마땅히 마음을 열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 그만 둘 때 딱 그 시점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깊게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몇 년씩 풀아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성마다 다른데 굳이 퍼센트를 얘기하면 심리정서적인

요인이 많아졌어요.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우울 증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은둔형 이런 쪽도 많아졌구요. (실무자1)

② 친구나 선생님과 갈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두기 전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친구 관계의 어려움으로 괴로움을 받는다가나 선생님의 교육 및 지도방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 둔 경우도 많다.

옛날부터 어떤 친구 때문에 갈등이 쌓여있으면서 왕따를 당했는데, 그 친구와 중학교 때는 다른 곳에 서로 있어서 어떻게 버텼는데, 고등학교를 갔더니 그 친구와 또 같은 학교를 갔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화장을 한 여자애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기 초에 과하게 잡는다고 터치가 들어가면 그게 쌓여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과목에 뭐 체육선생님이라던지 미술선생님하고의 갈등이 있었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실무자1)

(6) 청소년 사례관리 및 관리 시 중점을 두는 부분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사례관리는 직접통화하며 일상생활을 묻고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은 검정고시 공부 지원과 자립을 위한 아르바이트 및 취업지원이다.

① 사례관리 - 직접통화 및 일상생활 관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이용 시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사례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속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관리를 위하여 일일이 전화를 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며 추후 일상관리 차원에서도 꾸준히 직접통화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보통 저희는 그림자 노동이라고 해요. 원래는 실무자가 전화번호를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는 어느 순간 다 오픈 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애들이랑 연락이... 특하면 잠수타고, 약속 안 지키기고 이러니깐 하루에도 열두 번씩 전화하고. 검정고시가 오늘 2시에 수업이 있다고 하면 어제 저녁부터, 그 몇 일전부터 단체문자 돌리고, 전화하고, 못 올 것 같은 애들은 아침에 깨우고 “일어났니?” 뭐 이려고 점심 때 쯤 한 번 더 깨우고, “2시인 거 알지?”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단체톡 계속 하고. 이런 다음에 오면 이제 음 이렇게 봐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얼굴이 안 좋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체크하고 이런 사례관리, 상담 쪽은 상담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나서 좀 심하면 아 이에 상담 선생님 배치하고 상담 일정 잡고 이렇게 사례관리를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집중 케어하는 친구가 한 10명 정도 있어요. (실무자1)

② 검정고시 공부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관리에 있어서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관을 찾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합격에 대한 바람이 매우 크다고 한다.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가장 많은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사회에 나가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도 많아요. (기관장1)

③ 자립을 위한 아르바이트 및 취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경험들과 지원들이 중요하다.

어떤 친구는 검정고시 보다 아르바이트가 우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립이나 취업 등의 지원이나 그런 쪽으로 상담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 하나에 중점이 되기보다는 개인의 욕구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립지원이네요.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되어

야겠지만 우리는 일단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기관장1)

(7) 기관에서 실행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기관의 특화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일곱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그것은 사계절 숙박 체험프로그램, 리더육성 사업, 찾아가는 꿈드림, 1:1멘토링 프로그램, 학업클리닉 프로그램, 직업 탐색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자기계발 프로그램이다.

① 사계절 숙박체험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스스로 학교제도권 밖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학교라는 곳에서 내몰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하는 체험프로그램이나 숙박을 겸하는 문화체험 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또 다시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좋은 기회다.

1년에 4번 계절별로 체험을 나가고는 있어요. 숙박형보다는 당일예 다녀오려고 하긴 하는데 아이들은 무조건 숙박형을 좋아하더라고요. (기관장1)

② 리더육성 사업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영역은 여가부에서 지정을 해주지만 그 세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관의 몫이다.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서비스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리더육성사업’이라고 후엠아이(Who am I?)라는 프로그램을 법원에서 개발했어요. 지금은 강의안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요. 곧 아이들에게 제공될 예정이에요. (기관장1)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저희 지역만의 어떤 특성화로 청소년 리더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2015년부터 시작하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구의 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도 많고, 취약계층도 많은데 대학의 입시율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 성인으로 자라났을 때, “자기 인생의 자기 주인이 돼서 가야돼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 청소년 리더 육성 사업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지금 4단계까지 개발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Who am I’ 단계, 자기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비전 설정하는 프로그램. ‘인성아 놀자’라고 해서 인성·창의 프로그램 하고, 학습 프로그램 하고, 독서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네 개 진행을 하거든요. (실무자1)

③ 찾아가는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을 골고루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관에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기관을 찾지 않는 청소년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실적과 연관 되서 하는 거는 찾아가는 꿈드림이라고.. 경찰들과 연계하고 대안학교 선생님하고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오는 대상자들 명단을 가지고 주소를 보고 찾아가서 발굴을 하는 거죠. 가정방문을 가요. (기관장1)

올 해부터 시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꿈드림이라고, 찾아가는 동사무소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교육청 리스트 중에 연락두절이나 서비스 유보한 친구들을 직접 가정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00경찰서라던가, 지역에 대안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찾아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만나고 그런 다음에 꿈드림에 오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학교에, 가까운 대안학교를 소개시켜주거나 뭐 이러한 작업들을 저희가. 크게 가는 아웃리치 작업이고, 작게는 그 안에서 찾아가는 동반자처럼, 찾아가는 꿈드림을 시작했어요. (실무자1)

④ 1:1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지원이나 심리 및 정서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실행하면서 개개인으로 접근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교육지원은 검정고시 집중반 기초반이 있어요. 멘토 연결해서 1:1 학습이나 심리정서부분 등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들 중에서 멘토가 필요한 친구들은 대학생 멘토라던가, 어른 멘토를 연결 시켜 줘요. 그야말로 자기 얘기, 상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얘기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요. 학업적인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실무자1)

⑤ 학업 클리닉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적으로 조금 부족한 청소년이 있는 반면에 기초학습이 아예 부진한 청소년이 있다. 이를 위해 학업 클리닉 서비스를 실행하여 학업의 수준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학원은 학업 클리닉이라고 해서 학업에 대해서 잘 못하는 친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하는지를 뭐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대학생 봉사단을 연결해서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을 연결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입시설명회, 대학입시설명회라던가 이런 거 담당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실무자1)

⑥ 직업탐색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진로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알고 배워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기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도 듣고 그에 따른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함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직업탐색 체험, 진로 이런 거를 하는 파트의 프로그램은 작게는 직업 체험부터 직업인과의 만남, 진로 여행이라던가 자격증 같은 거, 인턴십. 자립지

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 어쨌든 직접적인 직업과 관계되는....직업 탐색, 진로 지원사업 이런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요. (실무자1)

⑦ 자기계발 프로그램

검정고시와 진로에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특화 시켜서 진행하고 있었다.

또 하나가 자립지원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보통은 자립 특강, 뭐 진로교육이라던가, 성교육이라던가, 법교육이라던가, 경제교육이라던가 이런 특강부터 자기계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3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놓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저희가 하죠. 그건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꿈드림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올해는 한 30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계발을 어떤, 어떤 걸해서 아이들에게 수료증도 주고, 공연도 하고 아니면 전시회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이런 게 자기계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실무자1)

(8) 기관 홍보 방법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홍보방법은 주로 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① 학교 관계자 간담회 개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홍보에 있어서 실무자들의 홍보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리플렛이나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현장실무와 홍보까지 업무가 과중되면 자칫 학교 밖 청소년에게 소홀 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학교 일선 선생님들은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는지도, 꿈드림이 뭐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일 년이면 몇 차례씩 맨날 리플렛 홍보하고 사업설명회하고 해요. 간담회 같은 거. 올해도 간담회를 네 번 정도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뭐 학교장 이런 선생님들도 모시고, 상담선생님들도 따로 모시고, 교무부장이나 뭐 이런 진로부장 선생님들 모시고, 지전가랑 사회복지사 모시고. 루트를 다양하게.... 하지만 너무 홍보에만 치중할 수 없는지라... (실무자1)

(9) 기관의 위치와 여건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위치와 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청소년 관련시설과 함께 쓰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독립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① 청소년 관련시설과 함께 쓰는 어려움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함께 하고 있다. 수련관과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수련관의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발걸음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우리 여건은 적합하지 않아요. 수련관 내에 있는 자체가 적합하지 않아요.(중략)... 학교 밖이랑 청소년 수련관이랑 다 같이 있는 게 썩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낮에 왜 재는 학교에 안가고 여기에 왜 있어?”, “그래도 요새는 자유학기제도 있고요” 이러니깐 “아~ 학교에 안가고 오늘은 여기 와서 프로그램 때문에 왔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나마 요 근래 생긴 거였지, 옛날 같았으면 이상한 애들이죠. 거기에다가 우리 애들은 피어싱에다가, 노랑 머리, 파랑 머리, 치마 짧고, 여름에는 레이스 막 이렇게 하고 오고, 화장 진하게 하고 오고. 그러면 이제 한마디씩 하세요. 그리고 말을 못하시면 눈부터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벌써 들어올 때부터 삐죽삐죽 대고 들어와요. 그러면 “왜~?” 막 이러면. 기분 나쁘다고, 할머니들이 욕 막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런다고. “야 그래도 네 옷이 오늘은 좀 심했네~”이러면서 “그냥 이해해버려~”이렇게 가는 거죠. (실무자1)

② 설 수 있는 독립 공간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은 기관에 프로그램을 하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이야기 하러 오는 경우도 있다. 그들만은 자신만의 아늑한 공간에서 이야기 하고 싶어 하고 주변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편견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이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아늑하고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단독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도 사실 쭈뼛쭈뼛하고 오는데 공간이 거대하면 사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폐쇄적이어도 그렇지만, 음습하고 폐쇄적이어도 그렇지만 분위기는 밝고 명량한 분위기여야 하지만. 저는 공간이 너무 커도 주눅 들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애까지 막 있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욕심을 낸다면 그런 공간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무자1)

(10) 지역 내 인지도와 네트워크 정도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지역 내 인지도는 좋아졌지만 네트워크는 순조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① 인지도는 좋아졌지만 네트워크는 순조롭지 못함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리스트를 받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접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교육청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뷰한 대도시 학교 밖 관련기관 실무자는 교육청 리스트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기관과의 네트워크는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것은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청소년이 어느 기관에서 지원을 받든 그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실적경쟁을 떠나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관과 관련된 인지도는 예전에 비해 높아진 편이라고 한다. 기관 내 홍보효과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을 이용해본 사람들의 이야기 등으로 알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많이 좋아졌어요. 꿈드림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꿈드림을 좀 아는 것 같고요. 상담센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이나 학교부적응이나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건 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이 정말 얼마나 아는가는 아직은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오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연계 퍼센트에서 개인이나 부모라고 하는 이런 쪽의 퍼센트가 조금 높아져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인지도가 생겼나보다~”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지역 내 여러 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리스트 받는 정도? (실무자1)

(11)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행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보여줘야 하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① 보여줘야 하는 실적에 대한 부담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서류체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관 종사자들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행정상의 서류작업을 하는 것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실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 그런 어려움들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번에도 취업연계가 작다고 나왔던 부분이. 아이들이 취업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굳이 푸쉬할 필요가 없지만, 골고루, 다양한 영역의 실적, 평가가 필요하다 보니 이런 양적인 평가로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이너스 요인일 수도 있고, 플러스 일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평가지침에 맞는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저는 기관장이다 보니 그걸 안 맞춰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관장1)

아이들이 있다가 아르바이트 연계해준다고 하면 이를 있다가 그만두거든요. 원하지 않고, 요즘 알바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만의 특성이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이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실적으로 해버리면, 그래서 1단계 적응기간, 일주일동안 체험해보고 해보기,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는 과정들. 그래서 지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구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가야하는데.. 어찌 보면 더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 게 실적을 딱 해놓고 성과를 내라고 하면... (기관장1)

(12)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이나 더욱 노력하는 부분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이나 더욱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① 학교 밖 청소년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공간 조성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에 오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을 방문했을 때 아무것도 안하더라도 편할 수 있는 공간, 여기에 오니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 계속 오고 싶은 공간, 이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 기관책임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한번 와봐야겠다' 그런 인식을 주는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던 거죠. 한번 와봤는데 '여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대개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왔을 때 '내가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괜찮네, 내가 내일 또 와도 되겠네'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실 숨도 못 쉬고 살았을 아이들인데 그냥 잠시라도 와서 숨 쉬고 내가 멍 때리고 있다가 갈 수 있고 또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관장1)

②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개인의 다양성 때문에 개인의 욕구에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슷한 욕구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들을 그룹으로 만들고 그 그룹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일반 청소년들은 다양한 기회를 줘서 체험하게 하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체험하고 알게 하는데 학교 밖 애들은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그게 아이들에게는 '버거운 짐이 없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왔을 때는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김정고시, 취업, 알바, 실만한 장소 필요 등 아이들이 기관에 오는 목적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관장1)

(13) 지역규모별 제한점 및 애로사항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지역별 한계와 애로사항은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은 많은데 비해

경제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과 현장실무자들에 대한 인력 및 수당지원의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과 잦은 이직, 그리고 연계기관과의 마찰이다.

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도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도시 학교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지원받고 싶어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비해서 지원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관마다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문화 활동 지원 등 영역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인 경제적 지원은 부족하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지자체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자체 지원은 물론 가정에서조차 경제적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특성상 학교 밖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기관에 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 중 가정경제가 어려워도 매번 특별지원사례로 지자체에서 지원받기는 힘들어요. 지원기준이 완화되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관장1)

사례평가를 해요. 초기 사정을 해서, 그런데 만나는 아이들이 다 경제적 위기인 거죠.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다 보니 이걸 N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많은 자치구에서는 많은 돈에서 N분의 1이 되기도 하고 그 N이 작다보면 크게 배분이 되는데 저희는 대상자가 많고 금액은 한정이다 보니 작게 N분의 1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원이 적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관장1)

② 현장 실무자에 대한 인력 및 수당 지원 부족, 잦은 이직

학교 밖 청소년과 가장 많이 접하는 기관 종사자는 실무자다. 현장업무와 행정 업무를 함께 진행하다 보면 초과근무를 하는데 그에 대한 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없고 급여에 대한 형평성도 없어서 현장실무자들이 자주 바뀐다고 한다. 현장실무

자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운영해나가는 동안 다른 실무자가 이직을 해버리면 남아있는 실무자가 모든 걸 감당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실무자에게 업무를 알려주는 것도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일들의 반복이 실무자에 대한 지원의 부족에서 오는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력, 왜냐면 선생님들이 팀장님을 빼고 1년차인데 2년이 지나도 그 금액이고 3년이 지나도 그 금액이에요. 급여가 초과근무수당도 없고, 연차야 발생되면 무조건 쉬어야 하는 거죠. 연차수당이 없으니까 그런 직원의.. 저희가 여기에 용기 중기 있잖아요. 수련관도 있고 상담복지도 있고, 바로 옆에 꿈드림도 있는데 하다못해 상담복지센터와도 비교가 될 수 밖에 없으니까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죠. 직원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깐 사람이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데 2년 지나도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요. “괜찮다”.. 2년 지나도 그것도 2천2백, 3년도 2천2백 그러니까 그게 한계점이죠. (기관장1)

일이 많아져서 그렇지. 그 일들이 우리에게 그만큼 위기인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하고. 그런 거. 그래서 학교 밖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었고요. 인력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해요. 아니면 인건비라도 올려주든지... (중략)... (실무자1)

③ 연계기관과의 마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먼저 시작한 다른 기관과 갈등구조가 형성되기도 했다고 한다. 관련기관 사이에서는 실적경쟁이라 표현하기도 한다고 한다. 지금은 조금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갈등구조가 완전 해결 된 것은 아니다. 다른 기관을 이용하던 학교 밖 청소년이 본 기관으로 오는 경우 타 기관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있고, 공간이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학교 밖 지원사업을 하기에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다섯 개의 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랜 역사를 가진 다섯 개의 기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먼저 했던 사람들인 거 같아요. 학교 밖 사업은 자기를

이 먼저 했어요. 근데 언제 난데없이 2015년에 꿈드림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돈도 왕창 받으면서, 자기들 입장에선 그래요.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00구 안에서 처음의 갈등구조였어요. 굉장히 큰 갈등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화합해서 가는 거죠.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같이 하는 게 맞다 라고 공유하고, 그래야 학교 밖 사업을 하자라는 거지, 우리가 언제 밥그릇 싸움하자는 게 아니지 않았느냐. 이렇게 가는 거죠. (실무자1)

(14)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실습의 컨소시엄 서비스와 관내 미인가 대안학교와 사업을 공유하는 두 가지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① 취업 및 실습 컨소시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중 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취업 서비스이다. 여러 가지 이론이나 기술들은 기관에서 습득 할 수 있지만 그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지역과 컨소시엄 형태로 취업 및 실습을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지역기관과 연계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거 꼽으라면 지역상인들과 우리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학교 밖 청소년이 취업이나 실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기관장1)

② 미인가 대안학교와 사업공유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미인가 대안학교와 사업공유가 가능하다고 한다. 네트워크나 간담회 등 다양한 분과회의를 통해서 실적도 공유하고 사업도 공유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 다음에 대안학교 연계해서 '찾아가는 꿈드림' 해서 같이 아이들 발굴 하는 거랑, 아웃리치, 점점고사장에서 아웃리치하고 이런 지역 연계 활동이 있고 00구는 혁신지구 사업하고 대안학교 지원금을 꿈드림에서 줘요. 그래서 사업실적이나 사업공유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 00구만의 독특함이 있는 거죠. 저희 00구에서 저희 상담복지센터로 돈을 줘서 꿈드림에서 3개의 미인가 대안학교를 관리하게끔. 꿈드림에서 관리하면 그래서 사업을 공유하는 거죠. 지원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도 하고, 실적도.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거니까.. 사실 다른 구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꿈드림이 서로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교류하는 게 많이 없어서. (기관장1)

(15) 지역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지역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현장 실무자에 대한 인력 보강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① 현장 실무자의 인력 보강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 종사자가 발로 뛰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실무자에 대한 근무조건이 열악함으로 실무자가 계속 바뀌게 되니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떨어지고, 지역사회네트워크도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관 연간예산이..... 근데 사실 기관에서 팀장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예요. 1억 2천에 사업비 15% 3천만원 정도를 사업비에서 써야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면 퇴직금 뭉치면 팀장 월급이 안 나오거든요. 아 1억 천이구나. 그럼 팀장이 정말 박봉인데도 불구하고 팀장급여가 안 나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보조를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학교 밖 사업이 명맥을 이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하려면 인력부분의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워낙 인건비 안정이 안 되서 계약직이다 보니까 들고 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2년을 채우는 직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전산망에 실적을 입력하는 것도 신규직원이 오면 연계성이 떨어지고, 다시 교육하고, 달라지고 계속.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사람이 하는 거거든

요, 상담도 그렇고 아이들의 활동도 그렇고, 인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인력에서 계속... 바뀌고 변화가 있으니까... (기관장1)

(16)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원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지역사회에서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고 하였다.

①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인턴십 서비스로는 바리스타 교육이 있지만 그 외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지금 서울시에서 원래는 인턴십으로 바리스타, 카페가 정해져서 거기서 인턴십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역으로 일정금액을 주고 거기서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을 인큐베이팅 하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페들을 지정했고, 예산이 나오면 거기서 아이들이 인큐베이팅 할 수 있도록, 활동이든, 알바할 수 있는 곳이 4군데 정도 구에서 지정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따로 지원 받는 거는 현재는 없어요.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는 건 아닌데 구에서 혁신지구 사업으로 받는 거 하고, 법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후엠아이(Who am I?) 프로그램, 그리고 위기분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걸로 해서 사업비는 1억1천 말고 사업비는 플러스 2천정도 더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오버인거죠. 지역사회에서 관심도는 높지만 그에 따른 지원은 부족하네요. (기관장1)

(17)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발전방향)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치구 예산 확충,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독립이다.

① 자치구 예산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충분히 경험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자치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 예산지원을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자치구의 예산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뿐 아니라 실무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인터뷰한 대도시 지역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지원해주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한다. 관내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비해 인터뷰한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으로는 지원이 거의 안들어 온다고 한다.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방법처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법인에서는 아이들 장학금이 있는데 막상 우리기관으로는 들어오지 않아요. 아이들의 자립할 수 있는 지원비나, 아니면 검정고시 지원비, 생활지원비,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특별지원사례 뭐 기금을 좀 더 마련해서 구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기관장1)

저는 현실적으로 구청하고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 없다. 그래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안학교를 사업비 지원하듯이 꿈드림도 지원하고 또 다른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그 사업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학교 밖 아이들에게, 대상자 하나하나에게. 취약계층 청소년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친구들에게 지원비가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에 실질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실무자1)

②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곧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공교육을 중단한 이유는 분명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부모들조차 청소년이 학교를 벗어난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숨기려 한다고 한다. 그로인해 학교 밖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점점 더 포기하고 위기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인식개선을 통해 일단 학교 밖에서 다른 기회와 다른 도전을 함으로써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격려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학업중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학업중단 곧 '애 인생은 끝' 이라고 생각하는...(중략) 그로 인해서 인생이 마감하는 것처럼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니 아이들 역시도 '내가 학교를 중단한 이 순간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기관장1)

③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독립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 건물이 있지만 그리 많은 경우는 아니라고 한다. 여러 기관이 함께 쓰다보면 공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역시 개방된 시선을 피해 자기들만의 아늑한 공간을 원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이 가장. 그리고 공간,.. 공간부분도 저희가 지금 수련관에 있기 때문에 수련관에서 실을 같이 쓰지만, 대부분 상담복지센터가 수련관내에 있거나 지역에서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는 별도 건물이 있는데 대부분 작게 하는 경우가 많죠. 개별공간이 이렇게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 공간도 없이 그냥 상담실에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 수련관내 있는 센터는 공간의 제약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산과 적절한 예산을 주고 '너희가 사업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이게 설치에 급급한 모형이에요. 예산은 한정적이고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든 그 사업을 했던 곳에서 그냥 하다 보니 공간의 제한.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긴 하죠. 딜레마예요. 계속, 상담복지센터가 독립해야한다고는 하는데 독립할 수 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관장1)

④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이유도 있고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식사를 거의 못 한다고 한다. 이에 실무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급식과 같은 식사지원과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요새 외치는 게 있어요. 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급식지원 해줘야 한다. 왜 학교 다니는 애들만 급식지원해주냐, 학교 안다니는 애들도 줘라.”그러면 학교 안다니는 애들, 저희 아이들은요. 하루 한 끼 먹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늦잠 자서 아침 못 먹고, 점심 저녁 중간쯤 해서 한번 먹고 저녁에 이제 어른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거나 나가가지고 깔깔대거나 이러면서 저녁 굶고 이래서 한 끼.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집밥을 해요. 오늘도 제가 아까 육개장 끓이고 돼지고기두부김치 이런 거 했다고 했잖아요. 밥을 먹어야지 돼요. 저희는 늘 컵라면과 핫반이 준비되어있어요. 그런데 늘 핫반하고 컵라면을 주다가 저희도 지레 질려가지고 그것도 한 두 번이지, 예산도 한계가 있구요. (실무자1)

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작업 장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립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 대학을 어디로 가야하는지 취업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더 바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술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가 그 경우이다.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작업장이 필요하다. 작업장에서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윤창출을 위한 창업장으로서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경기도 어딘가 그런 데는 시에서 아예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가지고 학교 밖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년 작업소. 요새 유행하는 실버, 시니어들을 위한 작업소 이런 것처럼 아예 커피숍이라던가 이런

어떤 창업장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그래서 매일 와서, 매일 오픈되어 있어서 몇 개조로 근무해서 매니저 하나 두고 이렇게 가는 방식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이윤을 창출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키플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방법들을 하는데도 있고, 생협방식으로 꾸릴 수 있게. 어쨌든 그거를 지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시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실질적 지원할 수 있는,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실무자1)

또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 규칙적이지 않아요. 밤낮이 바뀌어 있어요. 은둔형이 많고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문제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친구들의 특성에 맞는 어떤 자립구조를 찾아내야 해요. 그 친구들이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제 안 되면 오후에 직장생활을 3시쯤 출근해서 저녁에 11시, 12시에 퇴근하는 방식의 작업장을 만들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실무자1)

(13) 성공모델 요인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성공모델의 요인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것은 기관 종사자의 사명감과 지역의 경찰 등과의 연계다.

① 기관 종사자의 사명감

학교 밖 청소년들과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이다.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와 부족한 지원 때문에 실무자가 자주 바뀌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 기관 책임자는 기관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은 기관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열정이 제일 큰 몫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도 마인드 자체가 사명감이 있어요. 담당자들의 열의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마음들이 남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근무조건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런 걸 이겨내자면 사명감이 필수인 것 같아요. (기관장1)

② 지역 관내 경찰서와 연계

인터뷰한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실적이 높은 이유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관내에 경찰서와 협업이 잘 되고 있어서 위기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구에도 미인가 학교들이 있는데 연계하지 않는 거죠. 저희는 연계하다 보니 어떤 사업이나 아웃리치도 협업하는 부분들이 가장 다른 구와 달리 성공사례라 볼 수 있고, 지역연계 플러스 하면 경찰서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다 협업이 잘 되요. 그래서 저희가 SPO(검찰청)들 하고도 관계가 잘 되어 있고, 서장님도 다 한 번 씩 와서 다 보고 가시고, 경찰과 저희 대안학교와 기관과 협업이 잘 되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열정도 경찰관들도 지역사회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도 그렇고 이런 협업이 잘 될 수 있는 이유인거죠. (기관장1)

2)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선정된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인터뷰한 내용 및 분석된 범주들은 다음의 [표 IV-2]와 같다.

표 IV-2.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NO	인터뷰 내용	하위범주
1	학교를 그만 둔 이유 및 그만 둘 당시 하고 싶었던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친구들과 어울림(비행) • 입시위주의 학교 시스템 불만
2	학교 그만 둔 후 생활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패턴 불규칙 • 아르바이트 경험
3	학교 그만 둔 후 힘든 경험과 대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들지 않음 • 학교를 벗어나 좋음

NO	인터뷰 내용	하위범주
		• 양가감정
4	앞으로의 목표 및 욕구	• 검정고시 합격 • 자신이 관심 있는 진로 찾아보기
5	목표나 욕구를 위해 필요한 도움	• 학원비 지원
6	기관을 알게 된 경로	•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기간(선생님) • 친구를 통해 • 보호관찰소
7	기관에서 도움 받고 있는 부분과 만족정도	•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 아르바이트 연결(가운나래)
8	현재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 기관에 또래친구가 많았으면 • 프로그램 활동 공간 늘리기 • 검정고시 공부 교재 지원
9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	• 인턴십 프로그램
10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및 필요한 지원	• 교통비 및 학원비 지원 • 대학탐방 및 견학프로그램 • 전용 시설 및 프로그램 활동 공간 • 체계적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

(1) 학교를 그만 둔 이유 및 그만둘 당시에 하고 싶었던 일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이유 및 그만 둘 당시 하고 싶었던 일은 두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담배피기 등 또래친구들과의 비행의 이유로 그만둔 경우와 입시위주의 학교 시스템의 불만으로 공부하기가 싫어서 그만 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일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림(비행)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들과 어울리며 비행에 노출되고, 함께 어울리면서 행했던 비행들을 학교에서 알게 되어 몇 번의 경고 끝에 학교를 그만 두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 담배 피다 걸렸어요. 여러 번 걸렸거든요. 엄마가 그걸 알고 “너는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랑 몰려다녀서 그래”라고 하면서 그런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릴 거면 학교 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청소년1)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다보니 선생님들이랑 트러블이 심해서.... 저는 계속 친구들이랑 사고치고.. 그제 잘못된 건지는 잘 몰랐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친구들 때문에 학교 그만두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약간 돌려서 “자퇴하라”고 해서 “자퇴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이야기 하길래, “알겠다”고 자퇴했어요. (청소년4)

나쁜 친구들이랑 논다고 학기 초부터 선생님은 저를 안 좋게 보신 거 같아요. 반 아이들한테 재는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는 아이니 함께 놀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러니 친구도 없고...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가 진짜 학교 나갈 맛도 안 나더라구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더 신나게 놀았죠 뭐. (청소년5)

② 입시위주의 학교 시스템 불만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데 그것이 잘되지 않을 때는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

중3 거의 끝날 때쯤 학교 신청을 하잖아요. 거기에 특성화고를 신청했어요. 근데 그게 떨어져서. 특성화고 가려는 이유도 시험에 얽매어서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일반학교 가봤자 솔직히 공부 안 할 거여 가지고, 그냥 네.. 그대로 끝냈어요. (청소년3)

(2) 학교 그만 둔 후 생활패턴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후 생활패턴은 두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둔 후 대부분 나태해져서 생활이 불규칙해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① 생활패턴 불규칙

학교를 다니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나서 다양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한다. 꾸준히 다니던 학교를 가지 않으니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되어 규칙적인 생활이나 시간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 밤·낮이 바뀌어 수면패턴도 바뀌게 된다.

단체로 몰려다니면 어... 좀.. 확실히 다른 애들에 비해, 많이 태평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제가 순식간에 버릇이 안 좋아져가지고... (청소년3)

집에서 핸드폰하고, 티비 보고, 영화보고 아 취미생활이 영화 보는 거. 주말에는 친구랑 놀고, 평일에는 하루 종일 집에도 있고, 학원에도 가고..아무래도 불규칙하죠. (청소년1)

②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 검정고시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자립의 욕구도 크다. 그래도 그 중에 학교를 그만 둔 후 제일 먼저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라고 한다. 원해서 하는 아르바이트지만 학교 다닐 때의 생활패턴과 다르게 늦은 오후에 출근해 심야까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로 인해 역시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바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는 골고루 다 해봤던 거 같아요. 힘든 것

도 있고 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힘든 게 돈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힘든 건
심야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라서...(중략)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나면 벌써 오후이
고.. 아르바이트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기라도 하면 밤새우기 일쑤고... (청소년4)

(3)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든 경험과 대처방법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든 경험과 대처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은 힘든 경험이 없다거나 학교를 벗어나 오히려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현재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었다.

① 힘들지 않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든 상황들에 처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편견일 수 있다.

힘든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뭐하며 재미나게
지낼까? 이런 생각들 했어요. (청소년3)

② 학교를 벗어나 좋음

학교를 그만 둔 후 다소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를 그만 두어서
학교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것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였다.

뭐부터 할까하고 순서의 혼돈이 오긴 했지만 학교를 벗어난 것 자체는 너무 좋
았어요. (청소년2)

③ 양가감정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청소년

도 있었다.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들기는 한데 학교가 싫어서 나왔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학교가 싫어서 나왔으니 힘들지 않아야죠! 힘든 건 없는데... (청소년4)

(4) 앞으로의 목표 및 욕구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앞으로의 목표 및 욕구는 두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과 자신의 진로 찾아보기로 구분 할 수 있다.

① 검정고시 합격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그만 두면서 당장은 특별한 대안이나 목표를 따로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기간의 길어지면 제일 먼저 세우는 목표는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공부인 것이다. 검정고시는 수능 및 직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 먼저 해야죠. 처음에는 그냥 놀고만 싶었는데.. 음.. 나중에 대학을 가려면 검정고시를 패스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공부를 1차적인 목표로 두고 하고 있어요. (청소년1)

잘 될지 모르지만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워낙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뭐 해봐야죠! (청소년2)

② 자신이 관심 있는 진로 찾아보기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다. 검정고시 공부와 더불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경험해보고 살펴 본 후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

네. 뭔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확실히 제가 알아보긴 했었어요. 일단 엄마가 알아볼 때 국비지원 되는 걸 알아보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좀 가야되지만, 그래가지고, 어 저기 다니면 확실히 좋겠다. 거기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관련 상담하시는 분이 확실히 벌써 이 나이 때부터 그런 쪽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자기 직업으로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셔가지고,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다. 너가 여기 다니면은 한정된 신청금액에서 내가 좀 말씀 드려가지고 늘려줄 수 있는 그 자리다. 너가 다니면 그 정도 해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반. 기초반이나 그런 것도 너가 원한다면 시간대는 달라도 해줄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못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19살 때 국비 지원 그게 19살만부터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살 때 하려고요. (청소년3)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요리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싶었고, 지금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 여러 가지라서 하나만 결정하기엔 어렵구요. 음... 시간이 지나면 제 꿈이 뭔가 나오겠죠. 참! 지금은 장사하고 싶기도 해요. (청소년4)

(5) 목표나 욕구를 위해 필요한 도움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앞으로의 목표나 도움을 위해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부분이 학원비 지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① 학원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기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원비 지원 같은 실제적인 도움을 더욱 필요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좋긴 해요. 하지만 매번 여기 온다고 제가 배우

고 싶은 걸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저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미술학원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청소년2)

돈이요. 뭘 하던 간에 밑천이 있어야죠. (청소년4)

제가 자격증을 따려면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미용은 좀 많이 비싸거든요. 4개월해서 100만원 넘어가고, 메이크업 박스도 100만원 넘어가고, 근데 지금 당장 나에게 그만큼 돈이 없잖아요. (청소년5)

(6) 기관을 알게 된 경로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 지인 및 친구를 통해 이 기관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①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기간(선생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두기 전 숙려상담을 경험한 친구들은 상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을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서 그만둔다고 선생님께 이야기 하니 상담숙려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만두지는 못한다고 하던데요? 그때 알아봐주신 거 같아요. 저 공부할 데를.. 그래서 한번 와 봤죠. (청소년2)

엄마가 담임쌤이랑 이야기 하면서 걱정을 하니까 담임쌤이 꿈드림이랑 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셔서 바로 왔어요. (청소년1)

② 친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도 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관을 알게 되어 이용을 하게 된다. 그 중 이미 자퇴를 경험한

친구들이 꿈드림에 다니게 되면 그 친구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는 경우가 있었다.

친구. 친구가 꿈드림 다니거든요? 여기 말고 다른 꿈드림 다니는데. 개한테 처음에 자퇴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개한테 먼저 이야기해서 “꿈드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청소년5)

③ 보호관찰소

인터뷰한 학교 밖 청소년 중 보호관찰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는 대도시지역의 기관은 지역의 경찰서와도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 담당 선생님이 여기서 뭐 공부를 한다고 했거든요. 교과서를 받아가라 해서. 받아갔는데 프로그램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뭐 나열하면서. 그래가지고 읽어보니까 나쁘지 않네? 해서 오게 됐어요... (청소년4)

(7) 기관에서 도움 받고 있는 부분과 만족정도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에서 도움 받고 있는 부분과 만족정도는 검정고시와 아르바이트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검정고시는 중단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관에서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잘 활용하면서 합격이라는 성공 경험을 기대하게 된다. 기관에서 받고 있는 검정고시와 관련된 지원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다.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검정고시 붙었어요. 이제 대학 생각 해 보려구요. (청소년5)

지금 나오는 이유도 검정고시 공부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하게 되잖아요. 이곳에 오면서 검정고시 공부를 조금씩 하게 되었어요. (청소년1)

② 아르바이트 연결(가온나래)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둔 후 개인적으로 용돈이 필요해서,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생활비가 필요해서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한다.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연결 해 주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아르바이트 자리가 연결 되었으면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제 또 아르바이트 해야 해요. 돈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굉장히 많이 연결해 주었어요. 가끔 하기 싫을 때는 아르바이트 자리 있다고 연락 오면 바쁘게하거나 핑계대면서 안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해야죠. 선생님들이 이곳저곳 알아봐 주셔서 너무 고맙기도 하죠. (청소년4)

그 뭐죠? 가온나래 인가? 몇 달동안 하는 프로젝트 있어요.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 통해서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청소년5)

(8) 현재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세 가지 하위 범주로 구분 할 수 있다. 기관에 또래들이 많이 와서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기관의 프로그램 활동 공간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으며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① 기관에 또래친구가 많았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변의 편견이나 안 좋은 시선 등을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막상 기관에 오면 프로그램 할 때를 제외하고는 또래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다. 기관은 아침부터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하지만 함께 할 친구가 없으니 발걸음이 망설여진다고 하였다. 기관에 바라는 점은 친구들이 기관에 점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저는 주로 여기 맨날 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주로 저 혼자 있어서 너무 심심해요. 친구들이 바글바글 거렸으면 좋겠어요. (청소년2)

② 프로그램 활동 공간 늘리기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시설과 공간에 많은 불만이 있었다.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쉴 수 있는 공간 등이 많아지면 기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더 많을 거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다른 연계기관과 함께 쓰고 있어서 프로그램 도중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여기 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나마 여기서 다른 친구들이 프로그램 하면 우리는 비켜줘야 할 때도 있어요. 운동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도 이런가요? (청소년1)

③ 검정고시 공부 교재 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검정고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교재나 강사부분 그리고 학습방법 부분에서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공부를 하게 해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지원은 사실상 부족한 편이라고 한다. 강사 선생님도 성의 없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교재도 충분치 않아 공부하

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 못했고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 하거든요. 그런데 검정고시는 패스해야 겠고... 여기만 믿고 왔어요. 검정고시 합격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일주일에 수업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교재도 없어서 하나가 지고 여러 명이 보고 다시 선생님 돌려주고요. 그런 거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3)

(9)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은 취업연계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① 인턴십 프로그램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관이 아닌 취업 장소로 직접 나가서 활동하다보니 지역사회에서 도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꾸준한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었다.

직업체험해가지고, 현장이랑 협약해가지고 애들 보내고...(중략)... 저희를 이제, 거기에 보내서 일을 배우게 해요. 꽤 많은 아이들이 갔어요. 반응도 괜찮구요. 정식직원이 되길 바라는 친구들도 많아요. (청소년4)

선생님께서 “놀고있지? 요즘에? 이거 한번 해봐” 그러고.. “이리와, 너 이리와” 이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결해 주세요. 제가 놀고 싶을 땐 어물쩍 넘기기고 하고요. 하하하하. 저는 화장품 가게에서도 해봤는데 맞지는 않았어요. (청소년2)

장소는 많아요. 화장품, 학원이랑 미용실 있었고, 커피샵 주로 커피샵. 그리고 원래는 어린이집이랑 자동차 정비 쪽도 있는 거 같아요. (청소년1)

(10)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및 필요한 지원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및 필요한 지원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교통비와 학원비 등 경제적 지원, 대학탐방과 같은 견학프로그램, 전용 시설 및 프로그램 활동 공간,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이다.

① 교통비 및 학원비 지원

인터뷰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제적 지원부분에서도 교통비와 학원비 이야기를 주로 하였다. 가정 경제 상황 등의 이유로 학원비가 없어서 기술을 못 배우는 경우도 있었다. 현금지원이 안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기술학원에 대한 국비 지원혜택을 늘려주는 방향도 이야기 하였다.

저 가끔 여기 올 때 버스비가 없어서 못 오거든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기 눈치 보이고, 카페야 가도 한번 쓰는데 6천원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버스비가 없어요. (청소년1)

얼마나 좋을까요? 학원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면 다니고 싶은 만큼 다닐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우리는 더 많이 할인을 해 주든지. 사실 할인해 줘도 금액을 내는 건 부담이에요(청소년3).

② 대학탐방 및 견학 프로그램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역상 인근에 대학들도 많고 쉽게 접할 수 있다. 학교를 그만 둔 후 대학과의 거리는 멀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입학을 하고 싶어 하였다. 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대학탐방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었겠지만 학교를 벗어나니 그런 체험들을 못 해서 많이 아쉽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진학정보나 대학탐방과 같은 견학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었다.

저도, 지난번에 학교 다니는 친구가 대학에 다녀왔다는데 조금 부럽더라고요. 그냥 가볼 수는 있지만 직접 설명 듣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강의실도 들어가보고 싶은데... (청소년3)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특성화라 어디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서울에대 이런데 체험가고 그랬는데. 저는 자퇴하느라 못 갔어요. 지금이라도 가보고 싶어요. 이곳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청소년1)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저는 다 가보고 싶어요. 가보면 대학에 더 가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대학가고 싶은 동기도 만들어 질 것 같은데... (청소년4)

③ 전용시설 및 프로그램 활동 공간

인터뷰한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에서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 기관은 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수련관 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등이 갖춰져 있었다.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 단독공간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모두 웅성거리는 시끄러운 분위기라서 자주 안 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제발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락함은 두 번째고 너무 소란스러워요. 정말 수영장.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고, (청소년2)

우리들을 위한 공방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간식도 먹고.. 하하하하..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청소년1)

예전에 요리 쪽으로 진로가 정해진 친구들을 위해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게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다보면 비켜줘야 하고... 그러다가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어요. (청소년3)

여기 청소년을 위했다면, 위할 거면 약간 좀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뛰어놀고 공부하다가 문 열고 수업하면 애들이랑 눈을 마주쳐요. 계속 왔다갔다해가지고...(중략)..차라리 아예 그런 건물을 지어서..(웃음) 그런 게 하

나 필요해요. 여기 애들이 진짜 많고. 어린애들이 진짜 많아요. 공부하는데 리코 더 소리가.. 무슨 노래인지도 맞출 수 있어요. (청소년4)

청소년다운 시설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처음 왔을 때 저도 놀랐어요. 왔는데, 학생이 없고, 어른들이 딱 테이블에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경우지?' 이래서, 나는 여기 '청소년 만나?' 해가지고, 일단 이런 거, 어이없는 거를 많이 당해봐 가지고, 일단 카운터 가서 말했죠. 물어보니까 바로 선생님 연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제대로 찾아온 거 같아' 가지고, 진짜1층만 보면 그 청소년 시설 같은 게 아니라 무슨 진짜 공공장소 온 거 같은 기분이에요. (청소년5)

④ 체계적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

인터뷰한 학교 밖 청소년은 체계적으로 검정고시를 지원해주기 바라고 있었다. 현재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수준별로 학습을 하고 싶고, 전문적인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이 와서... 검고 공부를 하는데 모든 과목에 선생님이 없어요. 7과목 검고를 보는데 뭐 음악은 예체능이라 뺀다 치더라도, 나머지 과목들. 몇 개야? 6개.. 그러면은 쌤들이 4명? 4과목 밖에 공부 안 시켜주고, 이번에는 사회가 들어왔는데. 사회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영어선생님이 과학 좀 고등학교 때 전공했다고 해서 영어 선생님이 과학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청소년1)

학교처럼 시간표가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재도 많이 부족하구요. 그때 언제 더러? 선생님이 바쁘다고 20분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자율학습 하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자주 바뀌니 별로예요. (청소년4)

저는 혼자서 공부했어요. 공부 분위기 조성이 안돼요. 너무 시끄러운 것도 있고... 또 제대로 된 공부방도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요. (청소년5)

2.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1)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와 실무자를 인터뷰한 내용 및 분석된 범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IV-3]과 같다.

표 IV-3.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심층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NO	인터뷰 내용	하위범주
1	중소도시 지역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수준 낮음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활성화 원활한 지역 네트워크 구조 청소년 수 감소 특성하고 학업중단을 높음
2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어려움 슬럼지역 내 집단행동 증가
3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진학 취업준비 의식주 해결 진로와 자아 찾기
4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이용인원 및 발굴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상담 기관홍보(온라인, 홍보 팸플릿)를 통한 발굴 부모님 및 주변의 권유
5	학교를 나온 이유 및 현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관계 어려움 학업성적에 대한 불만족 불규칙한 생활과 비행의 반복
6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 및 관리 시 중점을 두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통화 및 일상생활 관리 정서지원과 생활지도

NO	인터뷰 내용	하위범주
7	기관에서 실행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적 태도 • 수준별 지도를 위한 검정고시 대비 캠프 • 노동가치 인식을 위한 직업인과의 만남 프로그램 • 진로동기, 책임감, 사회성 향상을 통한 통합프로그램 • 기관과 친해지도록 돕는 '밥 데이' 프로그램 • 지역사회 봉사활동(독거노인, 저소득층 대상) • 꿈을 지키기 위한 용돈지원 프로그램
8	기관 홍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 아웃리치(발로 뛰는 홍보)
9	기관의 위치 및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떨어짐
10	지역 내 인지도와 네트워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도 미흡하나 네트워크 순조로움
11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행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멘토의 참여도(인적자원) •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 조성
12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이나 더욱 노력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과의 지속적 관계 형성 • 청소년에게 먹거리 잘 챙겨주기 • 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13	지역규모별 제한점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족 •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체계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
14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지역봉사 • 지역 사업장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인큐베이팅
15	지역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돕는 전문 공간 확보
16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
17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실무자의 처우개선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 지역사회의 재정후원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돕는 전문 공간 확보 • 생활비 지원

NO	인터뷰 내용	하위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취업연계
18	성공모델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종사자의 사명감 지역주민의 관심과 후원

(1) 중소도시 지역의 특성

인터뷰한 중소도시 지역의 특성은 다섯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소도시 지역도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수준은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청소년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역 네트워크 구조가 잘 되어있다. 청소년 수는 점점 감소추세이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지역경제 수준 낮음

이 지역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신시가지에는 아파트 등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 하였다. 하지만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는 주택가에서 빈곤가정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교통비가 없어서 여기를 못 오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가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애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생활 의복도 그렇고, 계절에 따라서 옷이 한두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애들이 있어요. (기관장2)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저희 있는 쪽이 제일 취약해요. (기관장4)

00억 일대가 다 슬럼화. 그니까 이런 거죠. 00시에서 더 이상 못사는 애들이 거기에 다 밀집되어 있는 거고 이주도 많아요. (기관장4)

편부모 가정이 많아요. 편부모 가정이 많다보니깐 경제적인 수준도 두 분이 버시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황이고, 그나마 수급 같은 게 나오면 괜찮은데 수급대상은 안되는데 집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 집에 부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득분위를 따져보면 괜찮아서 지원 못 받는 경우 등도 있어서 힘든 경우가 많아요. (실무자2)

②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활성화

인터뷰한 중소도시 지역의 지자체장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도 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활성화 되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높아졌다고 하였다.

시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의지가 높다' 라는 게 장점이에요. (기관장2)

③ 원활한 네트워크 구조

00시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주변 지역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조가 활성화 되어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지역의 위기 사안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비공식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기관장2)

④ 청소년 수 감소

중소도시 지역인 00시는 매년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었다.

청소년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 안에 1년에 천 명씩 줄어들어요. (기관장2)

00시는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 수는 줄어들었어요. 저희지역은 노인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실무자2)

⑤ 특성화고 학업중단을 높음

00시에는 특성화고에 슬럼가 지역 즉 저소득층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다. 이 때문인지 학업중단율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여기는 주로 특성화고가 두 개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에 동네에 사는 게 아닌 거죠(경기권에 있는 모든). 그렇기는 한데요. 주로 00시 지역 열악한 지역의 아이들이 대거 가는 경우가 있죠. (기관장4)

요 근래에 가장 자퇴율이 높다는 곳이 근처에 있는 **공고거든요. 한꺼번에 4명씩 하기도 하고 남은 학생이 별로 없다고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자퇴를 많이 하긴 해요. (실무자2)

(2)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와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 다음의 두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둔 후에 많은 위기상황에 노출됨으로써 비행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경제적 어려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거주 지역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존에 거주하던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될 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더 시골로 이사를 가거나 혹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곳으로 거주 지역을 옮기기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그 지역 내에서도 가정경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정착하는 경우보다 열악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가능성이 많다.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아이의 경제적인 사정까지 다 나와요. 몇 단지에 사는가만 나오면 다 나와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못사는 애들이 거기에 다 밀집되어 있는 거고 이주도 많아요. 더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평택이나 이런 데로 여기가 주거가 비싸고 그러니까 의식주 해결이 쉽지 않아요. 늘 배고픔에 움직이는 아이들이죠. 우리한테 인사할 때 “배고파요”가 인사예요. (기관장4)

지역경제는 저희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실, 평촌 신도시 만든 것처럼, 여긴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외곽으로 나가면 주택가 조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00시가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나 경제 활성화가 높다고 보여 지지는 않았어요. (기관장2)

② 슬럼지역 내 집단행동 증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보다는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슬럼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슬럼지역 내에서 함께 무리지어 다니면서 위기상황에 노출되고 비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단 속 군중심리로 인하여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즐기는 경향성이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저희 있는 센터 이쪽이 제일 취약해요. 저희는 제일 취약한 작업장입니다. 이 지역 일대가 다 슬럼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로 이 지역에 열악한 지역에 아이들이 대거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아이들 끼리 모이다 보니 무리로 모여서 하는 행동들이 많은데 크게 잘못이라 생각 못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재밌어하고... (기관장4)

(3)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와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는 네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의 삶에서의 직접적 욕구로 의식주 해결을, 미래 삶의 준비를 위해서는 검정고시 합격과 대학진학, 취업준비, 진로와 자아 찾기 욕구를 가진다고 응답하였다.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은 대도시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업이나 의식주 해결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대학진학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부적응이나 공교육 시스템이 싫어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이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진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원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또래들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대학졸업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즘은 대학진학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초기엔 검정고시 합격만 해도 어디냐고 그러더니, 이제는 대학가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진학 동아리가 엄청 잘되고 있거든요. (기관장2)

② 취업준비

이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경제 어려움으로 인하여 취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유흥비에 사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일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얻은 수입으로 학원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돈을 쓰는데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으며, 본인들이 학교

에 다니는 청소년보다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준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취업을 잘하고 싶은 아이. 저희가 잡 동아리, 진로동아리 시작해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욕구가 많아가지고, 동아리 활동 중에 대박난 동아리가 이 동아리라고 지금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런.. 진로 취업에 대한 욕구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조금 더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기관장2)

③ 의식주 해결

중소도시 중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의식주 해결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거주할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방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늘 배고픔에 움직이는 아이들이죠. 우리한테 인사할 때 “배고파요”가 인사예요. 이곳에 오는 애들은 주로 열악한 아이가 많기 때문에 특성적으로도 저소득층이나 부모 돌봄이 없는 아이들. 그렇다 보니 의식주를 많이 원하게 되고.... 그리고 꿈드림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그나마 괜찮은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나마 케어가 되는 애들이 가는 거지요. (기관장4)

④ 진로와 자아 찾기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가 아직 불분명한 것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 뒀지만 또 다른 곳에서 자신의 진로와 자아에 대해 탐구하고 발견한 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싶어 하였다.

제가 느꼈을 때는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목표의식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자기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조차도 아이들이 놓쳐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니깐 학교를 가게 되면 나는 학교를 가는 학

생이라는 어떤 자기의 자아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나는 꿈드림생이라고 하기에... 아직...(웃음)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꿈드림도 하고 뭐를 하는 사람이라는 딱 목적과 정체성, 진로라는 게 명확해졌을 때는 이 아이들이 학교를 나온 게 아무렇지 않은 거죠. (실무자2)

(4)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이용인원 및 발굴과정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과정을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 발굴되거나 기관 자체 내에서 하는 홍보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 그리고 부모와 주변의 권유로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상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기 전 학업중단 숙려제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숙려제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후, 이 기관에 찾아오기가 수월하다. 따라서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학업중단숙려제가 끝나면,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깐 학교에서 우리기관으로 의뢰하시는데 그 아이들이 학업중단을 한다고 말했을 때 자연스럽게 저희와 연계가 되요. “네가 학교를 그만뒀을 때 뭐 필요한 게 있니?”라고 물어보는데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이 저희랑 맞았을 때는 학교에서 그런 걸 좀 원하시는 것도 있고요. 이 아이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좋은 기관에 연계가 돼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깐.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상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육구나 이런 이 아이를 파악하고 나서 바로 개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실무자2)

② 기관홍보(온라인, 홍보 팸플렛)를 통한 발굴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홍보물을 보고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기관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을 통한 홍보 그리고 홍보지를 만들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홍보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홍보물을 보고 전화를 하기도 해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SNS,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꿈드림 전체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거기에 각 지역에 맞는 홈페이지들이 다 연계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저희 기관의 스티커를 만들어 청소년이 자주 찾는 PC방에 붙이기도 해요. 그러면 전화해서 묻거나 그러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요. 꼭 와보라고. (실무자2)

③ 부모님 및 주변의 권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대도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나 친구들의 권유로 기관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학교 밖 관련기관의 많은 홍보로 인해 학교를 그만 둔 후 학교 밖 관련기관을 찾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어머님들은 보통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많이 하세요. 설명해드리면 자녀를 데리고 오는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SNS나 친구들 소개.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보통 자기가 혼자 알아서 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누가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봤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실무자2)

(5) 학교를 나온 이유 및 현재 상황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나온 이유는 대체로 또래관계가 힘들거나

학업성적에 대한 불만족이었다. 이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 불규칙한 생활과 비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또래관계 어려움

학교를 그만 두기까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을 찾는 학교 밖 청소년 중 부적응의 요인으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학령기에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학교에 다니기가 많이 힘들어 질 것이다.

또래관계 부적응이라고 해야 하나요? 친구들이랑 놀기 싫어서요!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고 제가 학교에서 찍히니 친구들과 저랑 안 놀더라고요. 라고 하던 아이도 있었어요. 우선은 선생님들이신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께 찍히면 아이들도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실무자2)

② 학업성적에 대한 불만족

학교 밖 청소년은 다니던 학교에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뭔가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차라리 검정고시를 높은 점수로 합격한 후 대학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한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문계를 다녔던 친구들은 자기 공부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보통 대계 두 가지로 양분화 되는데.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자기가 못 따라가는 학교에서 있어서, 이거를 약간 리셋증후군이라고 하죠. 다 리셋 해버리고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내신점수를 잘 못 맞았기 때문에 나는 그만하고 검정고시로써 다시 하겠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규칙이나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깐 나와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음... 특성화나 이런 테를 갖는데 자기가 선택했던 과랑 자기랑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무자2)

③ 불규칙한 생활과 비행의 반복

학교를 그만 둔 후 청소년들은 기존에 비행을 일삼은 청소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또한 낮 밤이 바뀐 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같은 처지에 놓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둔 후에 어... 좋은 상담자를 만나고, 좋은 연계가 가능하다면(웃음) 좋겠지 만 거의 쉽지 않으니깐. 음... 일단은 비행을 했었던 친구들은 비행에 더 깊게 빠지는 경향이 크고요. 개입이 안됐을 시에는. 그래서 학교를 안가기 때문에 억 지로라도 학교를 갔었을 때는 의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규칙이나 규범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게 아예 없어진다면 그냥 다음날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친구들이랑 밤에 만나서 놀면 되고, 낮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밤에 만나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그런 장면들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밤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실무자2)

(6) 청소년 관리 시 중점을 두는 부분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사례관리는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실무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일상생활 등을 전화로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서지원과 생활지도 및 수용적 태도이다.

① 사례관리 - 직접통화 및 일상생활 관리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를 그만두고도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를 그만 둔 상태로 있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진학을 했더라도 꾸준히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무자들이 많은 관심을 주게 되면 청소년들의 참여와 꾸준함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친구들은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프로그램 후에도 “잘 지내고 있냐~? 어떻게 지내고 있냐~?” 꾸준히 연락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 와서 함께하자고 하면 처음에는 안와요. 그럼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다른 이야기들 하고.. 또 그러다가 놀러 오라고 하고... 아픈 데는 없냐고 묻기도 하고..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묻기도 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편이에요. (실무자2)

② 정서지원과 생활지도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당수는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지원과 함께 생활지도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전화해서 이들을 깨운다거나, 정서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과업달성에 대한 실패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다양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할 때 이들에 대한 정서지원과 생활지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생님들과 저는 특별히 학교 밖 아이들에게 관심과 돌봄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준비된 애들이 오는 게 아니고, 준비를 시키는 거부터 하나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시키는 작업이라 함은 굳이 오고자하지 않는 아이들을 울 수 있도록 독려하는 물밑작업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전화해서 깨우고, 아침에 또 전화해서 깨우고, 안 오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또 달래고 그러니까 전화하는 일이 하루 종일 전화에 매달려 있으신 거죠. (기관장2)

저희가 학교 밖으로 오는 애들 중에 대부분이 복합외상 트라우마를 겪은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손댈 곳이 대개 많고, 사실 장기간 좋은 관계와 많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그 동아리 활동 할 때 보면 각각의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 여기서 또 그런 하나하나를 달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뭉쳐주고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프로그램만 따르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 작업들이 대개 어려운거. 한명, 한명 이야기 들어가며, 돌봐주고 좋은 관계를 다시 만들어 주고... 그게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거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렵지요. (기관장2)

③ 수용적 태도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으로 인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거친 언어를 사용하며 자유분방한 행동특성을 보임으로써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다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그런 시선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지도자가 동일한 시각으로 이들을 대한다면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다. 따라서 관련기관 책임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견의 눈으로 안 보려고 해요. 오는 친구들이 말도 거칠고, 진짜 막 뭐라 그러죠? 가끔은 좀 심한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보통의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야 마음도 열고 자유롭게. 자기들이 못된 말을 쓰는 걸 모르는 애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본인들이 좋지 않는 환경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애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내 눈높이에서 조정하거나 그런 건 안하려고 해요. 사회에서의 인식도 바뀌어야 해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이 되는 거죠. (기관장4)

(7) 기관에서 실행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특화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을 내린

필수영역의 프로그램 외 지역특성과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특별프로그램이다. 여섯 가지 프로그램은 수준별 지도를 위한 검정고시 대비 캠프, 노동가치 인식을 위한 직업인과의 만남 프로그램, 진로동기, 책임감, 사회성 향상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기관과 친해지도록 돕는 ‘밥 데이’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활동(독거노인, 저소득층 대상), 꿈을 지키기 위한 용돈지원 프로그램이다.

① 수준별 지도를 위한 검정고시 대비 캠프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에 합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어떤 장소에 모여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들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친구와 놀기 위해 수업에 빠지는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가 서로 달라서 검정고시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수준별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별도의 검정고시 대비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더 특화시킨 건, 검정고시 캠프인데. 왜냐면 이 검정고시에 대해 애들을 준비를 시켜도 학교 밖 애들의 특성이 학습수준이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A부터 를 못 읽는 애도 있고 진짜 수준이 다양하니까 저희가 10명만 모여도 수준이 달라서 힘든 거 예요. 그리고 이제 멘토링 반을 운영하는데, 제대로 못나오는 거죠. 아침에 깨서, 특히 비행친구들은 정기적으로 나온다는 거 자체가 안 되니까 애들이 이제 한방에 붙을 수 있게, 아예 3박4일을 아예 깊은 산속에 데리고 들어가요. 집중적으로 3박4일 동안 족집게 과외를 해주는.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반 집중운영을.. 왜냐면 비행친구들은 여기에 있으면 친구들의 유혹이 너무 많다보니 멘토링 반은 의지가 충만해도 못 와요. 그래서 애들이랑 술 마시면 다음날 못 오고 그래서 그냥 멘토링을 올 수 있는 애들은 멘토링을 하고, 안 되는 애들은 1대1 집중케어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은 캠프를 데리고 가서 3박4일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시켜서 이제 시험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더라고요. (기관장2)

② 노동가치 인식을 위한 직업인과의 만남 프로그램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탐색, 직업에 대한 이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의 돌봄과 교육 기능이 약할 뿐 아니라 제도권 교육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에서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진로지도에서는 관심 있는 직업을 스스로 찾아보거나 관련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해당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를 돕고, 노동의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노동과 인권, 자기 엄마아빠와 또는 일하는 자기 친척도 괜찮고 그런 사람 인터뷰 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지역에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계획서를 써서 나가요. 그래서 약국도 가고 별 것 다하는 거예요. 저희가 개발해서 가지는 않아요. 애들이 뻘지도 당해봐야 해요. 그래서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 못하기도 하고, 갔다 와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일에 대한 노동의 가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되어있어요. 내가 왜 노동을 해야 하는지, 노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 자기 반경, 학교를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도로도 있고 버스도 있고 무슨 마켓도 있고, 그럼 에이 마트가 있다 그럼 에이마트에는 어떤 노동들이 숨어있는지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을 거고 공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도로는 깔려있지만, 도로엔 어떤 노동이 있을까? 이러며 찾는 거예요. 이런 거 통해서 그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물건 판매도 있고, 나눔 활동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해요. (기관장4)

③ 진로동기, 책임감, 사회성 향상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를 돕기 위하여 진로동기, 책임감, 사회성 향상이라는 다각적 측면에서의 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진로동기와 진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심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이를 탐색하는 과정을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은 청소년에게 사회성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활동 과정 속에서 또래집단이나 지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과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하며 감정을 교류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애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짰던 게 저희 자체 브랜드 “꿈에 엔진을 달아라” 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꿈에 엔진을 달아라” 라는 프로그램이 음.. 어떤 걸로 특성화 되어있다면,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체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사례관리를 1년 정도 잡아요. 아이들이 모집이 되면 그 아이들을 처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한 어떤 동기와 내가 이 꿈엔진을 아.. ‘내 자발적으로, 내 책임 하에 선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인터뷰도 보고...(중략)...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끔 해서, 사회성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1주일정도 하루에 10시부터 3시까지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특별한 거는 저희 실무자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하는 건 실무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외부 강사에게만 맡겨서는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계 맺기가 어려우니까 실무자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고...(중략)...애들이 그 안에서 ‘런닝맨’도 하고, 실컷 놀 수 있는걸 일단은 짝 풀어줘요. 짝 놀 수 있게, 실컷 놀게 하면 이제 친해지고, 마음도 풀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마음 작업을 할 수 있게 사회성 프로그램이 조금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진로나 취업에 관련된 것도 조금 섞어서 놓고 이렇게 해서 5일 프로그램을 마칠 때에는 그 안에 카테일파티 같은 걸 넣어서 애들이 약간 마무리 할 때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처럼 파티 하면서 애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게 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그냥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집단프로그램의 내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들에게 좀 전인격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서 환경구성을 신경을 많이 쓰세요. (기관장2)

취업을 연계해주는 게 다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되요. 아이들의 태도, 노력, 인성 그런 것들도 진로지원 프로그램에서 녹여내고 있어요. 회사는 혼자만 생활하는 곳이 아니니까 맞추면서 가야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면서요. (기관장2)

동아리들을 짝 연습하게 해서 저희가 12월 정도면 이제 '꿈엔진 콘서트'라고 해 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들 발표회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동안 동아리 활동했던 거, 거기에 아이들이 직접기획하고 직접 발표하고, 그래서 부모님들 초청하고, 실무자들 초청하고, 이 꿈엔진 기수들이 있잖아요. 선배 기수들, 선배기수들도 다 오고 이렇게 해서 오면 이제 사전에 했던 애들은 "야, 내가 꿈엔진 했을 때, 저랬는데. 내가 벌써 이런 얘기들을 보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1기애들은 이미 결혼해서 그런 애들도 있어서 얘기 데리고 와요. 얘기 데리고 오는 애들도 있고... (기관장2)

일단 프로그램은 여기(리플렛)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꿈에 엔진을 달아라'라는 브랜드 네임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 정식으로 학교 밖 지원센터가 출범을 해서 운영을 하기 전부터 저희는 2011년도부터 자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 그때는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꿈에 엔진을 달아라'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긴 편이에요. 다른 센터보다...(중략)...

주로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상담지원을 하고 있고. 일대일 상담도 하고 위기상담도 하고 있고 그거는 다른 센터와 동일하게 상담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집단 프로그램을 저희는 해요. 이 '꿈에 엔진을 달아라'라는 게 집단 프로그램 네이밍인데. 기수별로 이제 받아서 이 아이들이 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처음 들어올 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편이에요. 뭐 '나를 알아가는 시간,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시간 등 기수별로 하고 있고요. (실무자2)

④ 기관과 친해지도록 돕는 '밥 데이' 프로그램

또한 형식에 맞춘 프로그램이 아니라 편하게 둘러앉아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기관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 음식도 함께 만들고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이 시간을 통해 기관을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친구들과 함께 기관을 방문한 후 꾸준히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밥 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해요. 그럼 이제 "밥 먹고 가자"라는 의미인데. 그 이렇게 하루 날을 잡아서 선생님들이 직접 밥을 했었는데 옛날에... 지금은 맡겨가지고(웃음) 저희가 서빙만. 퍼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때 무슨 뭐 공

연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했을 때 학교 밖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을 기관에 데려오고 싶은데 약간 뿔뿔하고 뭐 딱히 가서 할 것도 없고 한테, 이런 '밥 데이'를 하니깐 "야 나랑 밥 먹으러 가자."이러면서 가서 밥 먹으면서 신청서 받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아이들이 좀 또 있어요.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밥 데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실무자2)

⑤ 지역사회 봉사활동(독거노인, 저소득층 대상)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김장김치를 지역사회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분배하여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이 활동을 통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며,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혼자서 먹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애들에게 식사와 관련된 먹거리 분배해서 나눠 주기도 하고. 학교나 이런데서 연말 같은 때 김장을 해서 자기들이 농사지은 거, 한 중학교에서 배추농사 짓는 데가 있어요. 학부모가 다하겠죠. 김장한 거 저희에게 제공해주시면 저희가 그러 어려운 친구들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매개자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배달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분배해서 그런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학교 밖 플러스 이제 저소득층, 혼밥족 이런 친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기관장4)

⑥ 꿈을 지키기 위한 용돈지원 프로그램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청소년이 꿈을 지키기 위해 돈이 필요할 경우에 학업수당의 형태로 용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공부만이 학습이 아닌 봉사활동이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이 학습이라는 철학 하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써, 제공된 학업수당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의 개념이다.

꿈을 지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학업수당 형태로 지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돈이에요. 학업수당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배움이다. 와서 너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자원봉사도 그렇고 꿈을 위해 너희가 노력하는 자체가 학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업수당의 명분으로 주고 있어요. 그건 '묻지마! 돈'이에요. 정부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중략)... 별거 아니지만, 이걸 영수증 지출 할 필요 없고, 통장으로 꽂아주고. 돈으로 뭘 하든 상관 없는 돈으로. 그래서 그 장학증서 비슷하게 해서 뭘 하나를 주기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 걸 요구해서. (기관장4)

(8) 기관 홍보 방법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기관의 홍보방법은 주로 청소년 관련기관과 연합하여 아웃리치를 하면서 발로 뛰는 홍보를 한다고 하였다.

① 연합 아웃리치(직접 발로 뛰는 홍보)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들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홍보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SNS를 통한 홍보나 지역일간지에 프로그램 홍보를 겸해서 하기도 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직접 홍보지를 들고 발로 뛰면서 하는 홍보방법이다. 인터뷰한 중소도시 기관의 경우에는 지역의 청소년기관과 협력하여 아웃리치를 하면서 많은 홍보를 한다고 한다.

그... 홍보에도 저희가 직접 발로 뛰는 건 아웃리치 다니는데, 우리지역은 청소년 기관, 유관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분기별로 연합 아웃리치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 저희, 쉼터 뭐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연합 아웃리치를 중심상가에서 크게 해요. 분기별로 할 때마다 또 여기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나눠줄 때도 이렇게 해서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검정고시 접수장, 검정고시 시험장. 이 두군 데가 저희가 아이들은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실질적인 아이들이 진짜 오니깐. 또는 검정고시 접수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어서와. 너 검정고시 보니? 우리 기관 아니?”이렇게 연결을 하

는 거예요. 시험장도 시험 보러 가는 아이들한테 응원하면서 간식주고 나올 때 신청서 받고(웃음)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무자2)

(9) 기관의 위치와 여건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현재 종사하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주변 환경이나 기관내의 공간 활용 등은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위치 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① 접근성이 떨어짐

인터뷰한 기관은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기존에는 건물의 지하에 위치한 소규모 공간이었다고 한다. 이전한 후 활동공간도 넉넉하고 쾌적해진 주변 환경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세권에서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불편해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근데 여기 이제 일단은 자연풍경이 되게 좋으니까 저희도 이제 생각하는 게 밖에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것들, 미세먼지가 좀 없으면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좀 어려운 점은 접근성이 좀 어려워요. 여기가. 옛날에는 역에 내려서 그냥 바로 들어오면 바로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역에 내린 다음에 버스를 좀 타고 한 20분 내지는, 뭐 이렇게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저희가 걱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무자2)

(10) 지역 내 인지도와 네트워크 정도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인지도와 네트워크 정도를 알아봤을 때 지역 내 인지도는 미흡하지만 네트워크는 대체로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① 인지도 미흡하나 네트워크 순조로움

인터뷰한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아직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밖 지원 사업이 아직 3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뷰한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관련기관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관련 사업을 해오던 기관이라서 주변에서 예전의 기관에서 하던 사업이 이어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네트워크 정도는 지역 멘토를 활용하여 청소년과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기관의 협조도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서 매우 순조롭다고 이야기 한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아직 3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를 현재 기관의 선생님이라고 보기 보다는 예전 00청소년 카페 선생님이요.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웃음) 저희가 00청소년 카페에 같이 있다 보니깐 애들도 “카페 쌤”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페 쌤 아니야”(웃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같이 있다 보니깐. 아직 좀 숙제라고 생각해요. (실무자2)

저희가 지역에 있는 멘토 선생님들을 매칭을 해서 그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방이 있다고 하면 거기랑 연결을 한 다던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을공동협의체 뭐 이런 게 있어서. 사회적 기업도 저희랑 긴밀한 관계를 맺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따로 마을공동체 회의를 해서 거기에 공방이나 뭐 이런 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관내에서 좀 청소년들을 위해서 멘토가 되어주고 싶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매칭이 되는 편이고요. 그렇게 매칭이 된 선생님들이 또 소개를 시켜주셔서 오는 경우도 있고. (실무자2)

(11)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행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역 멘토의 참여도(인적자원)와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 조성으로 나타났다.

① 지역 멘토의 참여도(인적 자원)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권 내에 있는 청소년보다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이 얼마나 발굴되어 있는지, 그 자원들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프로그램 실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일단 지역 자원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거 같아요. 그래서 지역 안에 사회적 기업하시는 분들, 또 청소년에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도 '마을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분들이 모여서 이제 '멘토링 활동을 어떻게 해 줄거냐?' 그리고 새로운 멘토가 오면 그 멘토를 또 기존에 있는 멘토가 이 새로운 멘토에게 멘토링을 잘 알려줘서 '멘토는 이렇게 해야 한다' 알려줄 수 있게... 멘토들이 서로 잘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멘토링 간에, 그리고 멘토들이 또 아이들과 연결을 잘 맺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올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에게 직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에 있는 멘토들인 거죠. 그래서 그 멘토들이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에 있는 좋은 어른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지금 동아리 활동 속에도 멘토가 들어가 있고, 애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멘토들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거 같아요. (기관장2)

②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 조성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은 관련기관에 처음 방문했을 때 비자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자발적으로 제도권 학교에서 나온 청소년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권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강제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체로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며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대상을 필요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은 기관을 자주 방문하게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장소도 편안해야 되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건 안 좋아요. “상담을 받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상담을 전혀 안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하는 게 다 상담이에요. 거기서 캐치 되는 게 있는 거고 “앉아서 상담하자” 이런 게 아니고, 삼겹살 썬하나 싸주면서 “야 근데 너 요즘 뭐가 쎄 힘들어? 여자 친구랑 헤어진 거 같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 이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는 거죠. 분위기가 영향을 줄 수 있죠. (기관장4)

(12)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이나 더욱 노력하는 부분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이나 더욱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과의 지속적 관계 형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연결을 하는 것과 먹거리 잘 챙겨주기, 그리고 지역상인 및 지역주민과 활발한 연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① 학교 밖 청소년과의 지속적 관계 형성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학교를 그만둔 이후 약 6개월간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어떤 간섭도 받고 싶지 않고, 특별한 기관에 소속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소속된 곳이 없다는 외로움으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관련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분담을 해서 개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연락을 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애들 중에서 웬지 그 “나중에 같게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는 정기적으로 소식을 알려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1년 뒤에 “선생님~ 갈 때까지 갔는데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 오거든요. (기관장2)

② 청소년에게 먹거리 잘 챙겨주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의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기관 자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주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준비해놓고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먹게 함으로써 기관을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다.

일단 온 애들한테는 저희 진짜 잘 먹어요. 매번 프로그램 때마다 애들은 먹거 때문에 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잘 먹어요. 애들에게 주는 음식은 떨어지지 않게 뭐 매 끼마다 잘 먹어요. 이것도 관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잘 챙겨주는 것! 잘 먹이는 부분 이게 아마 질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관장2)

③ 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일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함께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이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기도 하고, 족구, 농구나 물총놀이와 같은 여가활동에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청소년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비행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필요가 있다면 지역의 어떤 어른들을 연결하기도 해요. 필요하다고 하면 뭐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데를 연결하기도 하고, 지금 예산이 좀 있으면 치과 연계도 좀 하고 싶어요. 하나 또 고민하는 것은 상가변영회나 상인회를 연계해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곳이란 연계를 좀 해볼까. 아르바이트 자리가 좀 나면 그쪽으로 좀 보내는 형태를 해볼 생각이예요. 아직은 못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술집을 오픈해요. 6월에.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선생님이 아는 애들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세요.’ 라고 메일이 왔기에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몇 군데 상인회장님들 아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기관장4)

애들하고 놀자. 희망연대라고 해서 거긴 노동조합이예요. 통신망 설치하시는 주로 그런 분들이 계시는 텐데 남자들이 많겠죠. 거기서 좀 후원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아웃리치를 작년까지 같이 했었어요. 그분들이 오니까 애들이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물총싸움도 여름엔 한번 하고 그러면서 일상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 아들의 친구인데” 이려고, 이런 것도 생기고 자주 오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단골이 되면 애들 얼굴을 아시는 거예요. 가다가 아는 척 하시는 거죠. 이게 면을 넓히는 거예요. (기관장4)

(13) 지역규모별 제한점 및 애로사항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와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지역별 한계와 애로사항은 대도시의 경우와 유사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족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책임자도 대도시의 경우와 유사하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교육, 취업, 문화생활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며 지원의 정도도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비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자원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자원이 없는 거죠. 자원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 자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 재주가 있는데 이걸 좀 키워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전문가를 연결을 해야 해요. 우리가 가르치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지원해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서울이든 어디든 직업훈련을 보내야하는데 그런 직업훈련과 관련된 돈이나 그런 게 있어야 해요.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기관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매번 종사자들이 발로 뛰어야 하는데 힘든 부분이에요. (기관장4)

②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체계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평가는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평가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관련 기관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은 실적 달성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실무자(인력)의 수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실무자의 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

조금 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평가들을 개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전국 표준화

모델로 가버리니까. 예를 들면, 보니까 읍면지역 중 한 곳은 청소년 인구수에 대비 청소년수가 80명이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100명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애들의 실적이 확 뛰는 거죠. 근데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가 1000명인데 실무자 수는 다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 1000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맨 꼴등으로 밀려버리는 거죠. 저희도 조금 조금씩 청소년 수가 줄어드니까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전국 표준화된 모델을 가지고 실적 평가를 하니까 이제 이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관장2)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수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왜냐면 중앙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만큼 수를 채울 수 없는데 그거를 채워야 한다는 게 저희로써는 압박감,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는 거고, 왜냐면 정부평가에 반영이 돼서 실적이 낮으면 어쨌든 지원이 떨어질 테니까 그게 저희가 느끼고 있는 한계점 인거고, 이게 우리지역만의 한계점인지 모르겠지만. (기관장2)

③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에 많이 찾아오게 하고 프로그램을 함께하게 하는 것도 실무자의 역할 중 하나이다. 실무자의 입장에서선 청소년들을 발굴 후 지속성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실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부담 때문에 더욱더 청소년들의 참여정도에 신경을 쓰게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 인원이 적은 부분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밀알줍기 같이 계속...(웃음) 다른 센터는 그냥 막 들어오면 받아주면 되는데, 센터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보다 더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직접 발로 뛰어야 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무자2)

그리고 위기청소년들이라 보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아무리 좋은 걸 해봐도 안 나타나요.(웃음) 잠수타고 사라져요. 이랬을 시에는 내가 내 돈 들여서 프로그램하면 상관없는데 행정적으로 “이 아이가 프로그램을 참석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딱 안 나타나고 그러면 나는 간식을 사다놨는데 애들이 안

나타나면 “이 돈을 왜 이렇게 썼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실무자2)

(14)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동아리활동을 통한 지역 봉사,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형태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있었다.

①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지역봉사

이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을 동아리활동의 형태로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후 이들이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이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지역사회의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온마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안에 디자인 싱킹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 작업을 통해서 작년에 그런 동아리 활동에서 애들이 뭐 자전거 동아리가 있었는데 애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쓰레기 줍기’ 이런 거 하고, 지역 어르신들 찾아가서 뭐 이렇게 도와줄 거 찾고, 캠프도 농촌봉사 활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마을잔치 해드리고, 그림 그려드리고, 각자 와가지고 같이 해드리고, 트로트 불러드리고 했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기관장2)

② 지역 사업장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인큐베이팅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사회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회로 진입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에서는 취업 인큐베이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직장 에티켓교육과 직업교육을

겸해서 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에 성공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무단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취업 인큐베이팅은 저희가 돈을 지급해주면서, 그 사장님이 이 아이를 사회의 취업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들을 다 가르쳐주면서 애가 취업 인큐베이팅 시간을 보내는 거라 사실 정말 의미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작업장은 저희가 바리스타나 대부분은 좀 요쪽으로 아직 다양하게는 못되어 있지만, 그게 좋은 부분들은 사회준비를 시킨다고 해야 하나? 직접 교육, 아이들이 생산적인 주체로써 나가기 전에 그런 준비된 어떤 교육이 들어간다는 거? 취업교육이 진짜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학교 밖 아이들이 사회성이 안 되니까 인사를 하고, 고객대응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성실하게 근무를 어떻게 지켜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자기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애들이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기관장2)

(15) 지역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체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이 취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고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공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①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돕는 전문 공간 확보

학교 밖 청소년을 성공적으로 취업시키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 취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는 것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 내에 전문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외부 자원들이 기관 내로 들어오는 방향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관련기관은 청소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나 규모가 작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취업기술을 알려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립장이라는 전문적인 공간을 만들고 청소년이 이곳에서 다양한 기술을 익힌 후 사회로 진출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저희가 지금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 좀 자립할 수 있는 '자립장을 좀 더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취업 인큐베이션이 중요한 역할인데 이것을 보내놓고 나니, 성공비율이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중략)... 그래서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자립장을 만들어봄으로써 여기 안에서 취업교육을 시키고, 취업에 대한 기본까지 될 수 있게 '아예 여기서 좀 그 자체적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들을 좀 주고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자립장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해줘야 아이들에게 좀 다양하게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앞으로 준비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실무자들이랑 하고 있어요. 장소가 필요 할 텐데, 시랑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랑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런 장소가 마련될 수 있게 해야죠. (기관장2)

(16)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원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제시하였다.

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지역사회에서 재능기부의 형태로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마을잔치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마을축제를 여는 것이나 멘토링 활동 등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10월에 마을잔치를 7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십시일반 다 자

원을 투자해서 같이 해요. 부녀회에서 조금씩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마을모임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세요...(중략)... 진짜 마을 잔치처럼 그냥 해요. 무대도 없고, 자기가 노래 부르고 싶으면 하고, 아기가 자기하듯.. 지역 아동센터나 자기네들이 돈 내서 자기들 것 가지고 같이 모아내는 이런 장을 열어요. 돈 별로 안 들어요. 홍보물 이런 것도 거의 안 만들어요. 모두 지역주민들의 도움이 대부분인거죠. (기관장4)

거기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공모사업 통해서 조금 더 도움 받고, 멘토들 연결해서 대신 멘토들이 멘토비 나가는 게 거의 무료예요 지금. 멘토들은 거의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니까 멘토들이 거의 재능기부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매년 그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멘토비를 많이 못 주거든요. 결국에 사업의 성패는 사람이예요. 사람이 잘 해야 사업의 성패가 나는데 그거에 가장 잘 해주고 있는 멘토비가 사실은 얼마 못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분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멘토비에 상관없이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대개 그런 질적인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기관장2)

(17)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발전방향)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와 실무자는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장 실무자의 처우 개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지역사회 재정 후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돕는 전문 공간 확보, 생활비 지원, 지역사회의 취업연계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현장실무자의 처우 개선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사업은 국가사업과 시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사업의 인건비 관련 지침이 서로 달라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처우가 달라서 내부적으로 실무자들 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계속 정규직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그 안에서의 안정성의 확보 이런 게 정말 중요하고.... 조직의 틀 안에 안정성, 직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아무래도 기관장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신경 쓰이네요....(중략)...인력비 지침이 안 맞아서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어떤 사람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게 똑같은 실무잔데 그 내부적으로 분열이 발생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예요.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인건비 테 이블이 다른 거죠. 이런 게 전체적인 문제일 텐데 저희도 그 문제를 현안으로 안고 있고, 다행이 그걸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참 내심 일은 너무 힘들고 그럴 때면, 그게 생각이 나고 힘들 거예요. (기관장2)

학교 밖 애들은 기본적으로 3-4년을 봐주면서 가야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조직의 틀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정말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른 센터는 이직률도 대개 높고, 그니까 사업의 노하우가 이렇게 쌓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계속 실적에 대한 압박은 있으니 그런 관료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기관장2)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인력난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사실은. 다른 재단이나 그런 데는 인력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에 비해 재정이 없으니가 인력을 가 동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하든가 해야 이런 게 유지 된 다는 거죠. (기관장4)

②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책임자 역시 대도시 지역의 기관장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주민들 대상으로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 이 런 것 들이 정말 저는 교육해야 된다고 봐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선입견 을 없앨 수 있게끔 이 아이들과 면대 면을 좀 할 수 있는 사업개발 이게 좀 필 요해요. 전문가가 하는 이런 거 말구요. 주민들이 개네들 하고 직접 대화도 할 수 있고, 놀이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지요. (기관장4)

③ 지역사회회 재정 후원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지자체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에 비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지역의 후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인건비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거는 어쨌든 그 저희가 CMS 후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정도 후원이 있어야 민간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이에요. 국가의 돈이나 이런 거 없이 CMS 후원이 이정도만 확보가 된다면 이런 사업 얼마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후원을 해줘도 사업비 지원이지 인건비 지원이 안돼요....(중략)... 그래도 CMS후원이 1500 정도 1년에 들어오니까 저희가 운영을 슬림하게 해보니까, 1년에 한 5천만원정도만 있어도 재미나게 정말 돈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하겠다. 많은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관장4)

④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돕는 전문 공간 확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에서 여러 가지 진로체험은 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직업을 경험해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의 사업장들이 많이 제공 된다면 지속적인 직업경험으로 인해 실제로 직장에 들어갔을 때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음... 일단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건 좋은 취업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인턴십 같은 걸 연계해줘도 지속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빠져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런 걸 이해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가 같이 품어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곳이 많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실제로 2019년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작업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근데 그런 걸 실제로 오픈을 하시고“와서 한번 체험해보세요. 배워보세요.”하는 인프라가 딱 구축이 되면 저희는 마음껏 날개를 펴고 아이들이랑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체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아이가 직업을 경험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현장에서 가능한 일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실무자2)

⑤ 생활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 대상이 되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그나마 최저 생활비라도 받지만 더 어려운 형편인데도 물적 지원을 못 받는 가정도 있다. 그런 가정의 청소년들은 때론 끼니를 못 먹고 의복을 제대로 못 갖춰 입을 때도 있다고 한다.

일단 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외에 지원할 수 없는 더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행정적으로 묵이지 않는 머니가 있으면 제가 그런 것들을 실무자 선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실무자2)

⑥ 지역사회의 취업연계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는 인터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부분에서 검정고시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지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검정고시 이후에 생각하는 게 대입과 취업인데 이 기관 아이들은 취업에 대한 열망이 더 높다고 한다.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지만 막상 취업으로의 연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저희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게 잘 하고 갔는데 사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취업을 해서 뭐를 했다는 이런 아이들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런 취업경험, 자격증.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요. 자격증 과정도 어려운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심폐소생술 같은 간단한 자격증이라도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조

금 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위기청소년들에게 그냥 우쭐쪼 해주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어떤 취업이나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서 사회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숙제인 것 같아요. (실무자2)

(13) 성공모델의 요인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성공모델의 요인은 기관에 종사하는 책임자와 실무자의 사명감과 지역주민의 관심과 후원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① 기관 종사자의 사명감

중소도시도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성공요인은 기관 종사자의 사명감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에서 올바른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까지 긴 시간을 가지고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혜택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종사자들의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과 동료들끼리의 좋은 관계 덕분에 기관을 잘 유지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그게 아마 실무자가 바뀌지 않고 가는 것이 업무의 장기적 정책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가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실무자끼리의 사회적 지지가 정말 중요하고 더불어 청소년들에 대한 사명감과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직원들 보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다닐 수 있는 요인은 동료와의 관계와 청소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관장2)

② 지역주민의 관심과 후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가변영회 등에서 지원해주는 인적·물적 지원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지원과

관심들로 인해 여러 프로그램을 잘 시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관심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지역의 관심이죠. 지역사회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느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빵을 저희 조합에 가져다주시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본인 뿐 아니라도 후원하실 곳을 발굴해보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 지역 지자체에서 저희에게 주는 건 한 푼도 없어요. 오직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기관장4)

2)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인터뷰한 내용, 그 내용을 분석한 범주는 다음의 [표 IV-4]와 같다.

표 IV-4.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NO	인터뷰 내용	하위범주
1	학교를 그만 둔 이유 및 그만 둘 당시 하고 싶었던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과과의 불화 • 고등학교 선택을 잘못함
2	학교 그만 둔 후 생활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패턴 불규칙, 나태해짐 • 아르바이트 경험
3	학교 그만 둔 후 힘든 경험과 대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들지 않음 • 학교 친구들과의 연결고리 없어짐
4	앞으로의 목표 및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 자신의 진로 찾아보기
5	목표나 욕구를 위해 필요한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 및 교통비 지원
6	기관을 알게 된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 선생님
7	기관에서 도움 받고 있는 부분과 만족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 취업준비 자격증 공부

NO	인터뷰 내용	하위범주
8	현재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 교통편(셔틀버스 등)
9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	• 잘 모르겠음
10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및 필요한 지원	• 생활비 및 학원비 지원 • 아르바이트 연결

(1) 학교를 그만 둔 이유 및 그만둘 당시에 하고 싶었던 일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이유 및 그만 둘 당시 하고 싶었던 일은 두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비행의 이유로 선생님과의 마찰로 그만 둔 경우 그리고 공교육 시스템의 불만으로 그만 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중소도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① 선생님과과의 불화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교사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터뷰를 실시한 중소도시 인근지역에 있는 학교는 특성화고 또는 공업고등학교이고 이곳은 일반고에 비하여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단속이나 잔소리 등이 많아질 수 있고 청소년들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선생님들이 싫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매번 어쩔 그러던지... (청소년12)

처음부터 선생님은 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싫으니까 학교도 싫어지고 하루하루 안나가다보니 그만 두는 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9)

아이! 그냥 사고 치니까 부모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냥 욕하고 나왔어요. 그만 좀 부르라고, 우리 아빠 그만 좀 부르라고!!하고 나왔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저런 학교 안 다닌다고 욕하고 나왔어요. (청소년8)

② 고등학교 선택을 잘못함

인터뷰한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중 고등학교 선택에서부터 잘못된 선택이라고 이야기 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다.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 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전술했듯이 인근지역학교는 공업고등학교나 특성화고가 많은 곳이다. 중학교 때 학교선택을 한 후 특성화고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와 맞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 둔 경우도 있었다.

저 원래 제과제빵을 했었는데, 1년 하다가 그만두고, 또 반년 다니.. 더 참고 다녔는데 할 공부가 없어가지고, 다른 학교로 좋은 학교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는 전학생을 안받아준다고 그래서, “저는 그럼 학교를 못 다녀요” 이라고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랑 아빠가 자퇴시켜줬어요. (청소년7)

저는 좀 공교육이 대개 싫어서 그런 게 가장 첫 번째였고,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유도에 한동안 빠져있어 가지고 계속 운동이 하고 싶더라구요. 학교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공부하라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찌어찌 그만두게 되네요. (청소년6)

1년 동안 자퇴를 못했어요.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제가 그 학교를 못 가는 건데 추가모집이라고 있는데 그거로 간 거예요. 특성화고인데 추가모집으로 된 거예요. 제가 다리가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 상담을 했어요. 제가 사는 데가 여기잖아요. 근데 안양시잖아요. 멀기도 하고 저랑 안 맞는 게 많아요. 학교가! 그러다보니 선생님과도 힘들어지죠. (청소년9)

(2) 학교 그만 둔 후 생활패턴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둔 후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과 비슷한 생활패턴을 나타냈다. 이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 나태해지거나

생활이 불규칙해졌으며,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생활패턴 불규칙, 나태해짐

학교를 그만 둔 후 낮 동안은 거의 집에서 생활하고 밤이 되면 거리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면패턴이 바뀌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경우는 일상이 불규칙하고 나태해진다고 한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먹고 자고. 아니 먹지는 않았나?
배고프면 일어나서 혼자서 라면 먹고... (청소년6)

처음 일주일엔 거의 잠만 잤나 봐요. 좀 지나서 친구들 만나려고 해 봤는데...
학교 친구들은 죄다 학원 때문에 못 놀고.. 그러다가 저랑 비슷한 친구들 알게 되고 그 아이들이랑은 거의 밤에 놀았어요. 새벽에 들어오죠. (청소년7)

② 아르바이트 경험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학교를 그만 둔 후 제일 먼저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라고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르바이트 후 친구들과 만나면서 놀게 되는 생활이 반복되다보니 규칙적인 생활은 어렵다.

알바하고. 그러려고. 알바먼저 시작했죠. (청소년9)

엄청 많이 해봤어요. 지금 치킨 집에서도.... 배달하는 건 아닌데 형들이랑 돌아가면서 해요. (청소년11)

원래는 제 가장 첫 번째로 해보고 싶었던 거는 알바 해보고 싶었는데 배달. 진짜로 힘들었어요. 아침 11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고 일주일에 1번 쉬고, 배달. 그냥 배달 아니고 대행업체라서. 가게에서도 했었고 대행에서도 했었고, 벌어서 돈 많이 벌었죠. (청소년8)

(3)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든 경험과 대처방법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든 경험과 대처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두 가지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대부분이 힘든 경험은 없다고 하였으나 여자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어진 부분이 힘들다고 하였다. 힘들 때 대처방법을 물었을 땐 특별한 해결방법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① 힘들지 않음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통적인 부분일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가 힘들어서 그만 둔 거라서 학교를 안다니니 힘든 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학교 그만둔 후요? 뭐가 힘들어요? 학교가 싫어서 나왔는데! (청소년10)

학교 다닐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청소년11)

② 학교 친구들과의 연결고리 없어짐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힘든 경험은 없다고 이야기 했으나 일부 청소년들은 기존 학교 친구들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부분을 안타까워 하고 있었다.

저는 좀 하고나서 한 그래도 일주일은 못 느꼈던 거 같은데 일주일 좀 지나니까 점점 그래도 친구들은 그림더라고요. 확실히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연락도 끊기게 되고 그냥 처음에 자퇴할 때는 당연히 연락하고 지내자 이러면서 다들.. 제가 학교를 나왔지만, 그런다고 해도 누가 연락 처음 해줘요. 먼저 연락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안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 상해서 먼저 안하거든요. 저는 가장 힘들었

던 점이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 (청소년6)

저도 애들 많은데 있다가 혼자 있어서 힘든 거? 친구들 다 고3이어서 공부하는데 저는 학교 나오면서 핸드폰 번호 바꾸고 다 연락을 끊어가지고... (청소년7)

(4) 앞으로의 목표 및 욕구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앞으로의 목표 및 욕구는 두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검정고시 합격과 자신의 진로 찾아보기로 구분 할 수 있다.

① 검정고시 합격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도 검정고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청소년은 검정고시로 인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검정고시가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취업을 나가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조건을 갖추려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검정고시 따는 거 그게 먼저죠! (청소년8)

검정고시로 대학을 갈 거예요. 일단 대학이 목표예요. (청소년9)

저는 저도 검정고시로 대학가고 싶어요. (청소년11)

② 자신의 진로 찾아보기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도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기관에서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습득한 후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했다.

여기 그 온 게 좀 뭐냐, 큰 게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고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이거 방송동아리랑 그다음에 잡 동아리랑, 바리스타 자격증 수업이랑 총 3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는 자격증 따는 게 목표예요. 바리스타 그걸로 좀 진로가 확실해져서 자격증을 따면은, 이제 취업이랑도 연결 할 수 있네요. (청소년7)

(5) 목표나 욕구를 위해 필요한 도움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역시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목표나 도움을 위해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라는 물음에 대부분이 경제적 지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① 생활비 및 교통비 지원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도 생활비나 교통비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면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돈. 돈만 있으면 되요. 솔직히 집에서 용돈도 없고 이곳까지 오려고 해도 버스비는 있어야 하잖아요. (청소년10)

(6) 기관을 알게 된 경로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을 알게 된 경로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선생님을 통해 전화연결이나 소개로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 선생님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 기관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기관에 오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이 있는

곳으로 기관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5년 동안 00 청소년 카페지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학교 그만 둔 후 **선생님이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청소년9)

정확히 말하면,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침에,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핵심만. 자고 있는데 아침 10시인가에 전화가 와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처음엔 안 받았는데 또 와요. 031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오더라고요. 집 전화 같은 걸로. 안 받았는데 또 와요.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니까 잠결에 “살짝살짝” 하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 기관이래요. 전 잘못된 거 없는데 왜 그러지? 딱 와보래요. 일단. “누구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 이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알아요?” 하니까.. 그냥 오래요.. 갔는데 그제 ** 선생님 있었어요. (청소년8)

** 선생님이 자퇴한 사람 있으면 얘기 해 달래요. (하하하하) 다 친구들인데, 다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여기 왔잖아요. (청소년12)

저도 전화 왔어요. **선생님한테 . 전화 와서 오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청소년10)

저요? **선생님이 대안학교 애들 여기 많이 다닌다고 해서 왔어요. (청소년11)

(7) 기관에서 도움 받고 있는 부분과 만족정도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에서 도움 받고 있는 부분과 만족정도는 두 가지 하위 범주로 구분 할 수 있다. 검정고시와 관련된 도움을 받고 있으며 취업준비 관련해서 자격증 공부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도 검정고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기관에서 관련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기관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공부시간을 좀 더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검정고시 수업 하고 싶었는데, 학원 안다니고 여기서 해주시는 거 할 수 있고, 시간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시간이라 선생님. 수업 담당해주시는 과목 선생님이랑 궁금한 거 Q&A 하는 시간 갖는 거, 학교는 쉬는 시간에 과목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쌤들은 가시니까 못하는 것도 있고. 저번에는 수업이 짧았거든요. 한 시간 반? 거의 한 시간 반도 안 되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늘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좀 더 길게 해주면 좋겠어요. (청소년7)

② 취업준비 자격증 공부

학교 밖 청소년은 마땅히 직업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 전문기술학원은 수강료가 비싸기도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거의 오지 않는 곳이라 주눅이 든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직업기술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이다. 또한 배우고 싶은 분야를 배우기 때문에 빠른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항상 걱정이었던 게 중3때는 더 심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심했던 게 친구들만 보면 진로가 다 확정이 되가는 거 같은데 저는 너무 불확실한 것 같았어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거든요. 자퇴를 하고나니 더 고민이 되죠. 뭘 할 수 있나 생각해보다가, 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이 너무 따고 싶은 거예요. 카페에 취직해 나중에 내 카페를 하고 싶었고요. 배워놓고 자격증 따면 취업이랑도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해져서 전 도움을 대개 많이 받았어요. (청소년6)

(8) 현재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기관을 쉽게 올 수 있게끔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① 교통편(셔틀버스)

인터뷰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실무자 선생님들과도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이나 공간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에 이주하기 전 기관은 역세권에 있어서 이동이 수월했는데 이주 후 기관을 찾아오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좀 멀어졌어요. 00역 앞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여기 오는 버스가 2개 밖에 없어요. 전철 5분 만에 타고 왔는데 여기 오려고 25분 넘게 30분 버스 안 오면 기다렸다가 와야 하니까 너무 싫어요. (청소년7)

전 어쨌든 00에 사니까 멀지는 않은데 여긴 8단지고 저는 3단지에 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여기를 다녀봐서 아는데 버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냐, 중심상가까지는 걸어 내려온 다음에 또 기다려서 버스를 타고 이리로 와야 되가지고, 저도 교통이 여기 처음에 2시에 시작해서, 한 시간 전에 나와요. (청소년6)

시흥에서 오는 20살 언니. 그 언니는 시흥언니는 집에서 막 7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오는데 거의 한 두 시간 걸리거든요. 전철타고 버스타면 이러면, 00역에 있을 때도 멀었는데 더 멀어진 거예요. 버스비도 더 들고, 원래 일을 00에서 카페에서 일을 해가지고 바로 가면 됐는데 차비도 두 배로 들어요. (청소년7)

(9)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이 있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일부분은 기관에서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잘 모르겠음

인터뷰한 학교 밖 청소년은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은 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받고 있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것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지역이요? 사는 동네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학교를 그만 두면 지역에서도 도움을 주나요? 저는 이곳 기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도 기초수급도 안 해 주더라고요. (청소년12)

(10)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및 필요한 지원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및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비나 학원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과 아르바이트를 많이 연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생활비 및 학원비 지원

인터뷰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비나 학원비를 많이 지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가정 형편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학교를 그만 뒀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용돈 받을 수도 없고 기술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학원비가 없어서 못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만을 위한 경제적 지원정책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요? 전 돈이 필요한데 할 게 많은데 돈이 없네요. 엄마는 나가서 별라고 하세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청소년11)

제가 원하는 걸 사 본 지가 언젠지???하하하하 다른 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용돈도 주나요? 나라에서 주나요? 우리들을 위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걸 사야죠. (청소년9)

어! 기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따게 해주면 좋겠어요. 아니 면허 딸 수 있게 학원비를 지원해 주세요. (청소년7)

저축도 하고, 옷 사거나, 지갑사거나, 컴퓨터 사고, 자취방도 구하고, 자동차 사고. (청소년6, 청소년7, 청소년8, 청소년9, 청소년11)

② 아르바이트 연결

인터뷰한 학교 밖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막상 구해도 학교 안다닌다고 이야기 하면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차라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만들어서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 알바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나이대가 20대부터... 또는 군필자라서 거의 못 들어가요. 나이 속이면 안 되잖아요. 청소년 일자리를 늘려야 되요. 그니까 뭐 위험한 거 아니더라도 술집 말고 그냥 편의점 알바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담배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편의점 알바 잘 할 수 있는데 갈 때마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학 다니냐고 묻기도 하구요. (청소년8)

알바천국 이런 데는 못 구해요. 대부분 20세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에 친구로 소개해서 들어가는데 거기도 학교 안다닌다고 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청소년9)

그냥 청소년들한테 해주지 말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무나 해주면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 알바 하면은 많이 대충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안 뽑으니까 저희같이 학교 밖에 있는 애들에게 더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뭐 학교를 안다니니까 시간도 많고요. (청소년7)

3.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기관책임자,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1)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와 실무자를 인터뷰한 내용 및 분석된 범주들은 다음의 [표 IV-5]와 같다.

표 IV-5.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심층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NO	인터뷰 내용	하위범주
1	읍면지역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음 • CYS-Net 활성화 • 경제적 활동 공간 부족 • 경제적 어려움 • 청소년 시설의 부족 • 청소년 인프라가 별로 없음 • 교통시설의 불편함 • 홍보의 어려움
2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력하고 불규칙한 생활패턴 • 경제적 어려움(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 부모의 무관심
3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을 위한 훈련과 자립 • 검정고시 합격 • 취업연계
4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이용인원 및 발굴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리스트 • 기관 홍보(아웃리치, 팸플릿)를 통한 발굴
5	학교를 나온 이유 및 현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증 및 심리적 문제 • 친구 문제(따돌림) • 위기상황 노출(도박, 성매매)

NO	인터뷰 내용	하위범주
6	학교 밖 청소년 사례 관리 시 중점을 두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통화 및 일상생활 관리 • 청소년과 좋은 관계 만들기
7	기관에서 실행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마체험활동 • 건강관리 프로그램 •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 • 경제관념 및 자립에 대한 교육 • 그린나래 지역사회 봉사활동
8	기관 홍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리치
9	기관의 위치 및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시설 및 활동 공간 필요
10	지역 내 인지도와 네트워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도 미흡하나 네트워크 순조로움
11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행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의 역량
12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 이나 더욱 노력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13	지역규모별 제한점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십 과정 수료 후 창업으로의 연결이 어려움 • 청소년 관련 시설의 부족 •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실적위주의 평가
14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지원 • 지역 내 인적자원의 활용
15	지역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16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십 프로그램
17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준비 및 지원 공간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 건강 활동 프로젝트 전용 공간 •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빠른 대응
18	성공모델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반영

(1) 읍면지역의 특성

인터뷰한 읍면지역의 특성은 여덟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터뷰한 읍면지역은 학교 밖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CYS-Net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읍면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또한 청소년 시설의 부족, 청소년 인프라가 별로 없음, 교통시설의 불편함, 홍보의 어려움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① 학교 밖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음

인터뷰를 실시한 읍면지역은 학교 밖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다는 강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읍면지역의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 밖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니까, 지자체장이 "나도 들어볼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그 장에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군수님이 저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청소년 여기 기관의 아이들과 간담회 좀 마련해 달라". (기관장3)

지자체의 관심, 지자체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많이 있어요. 청소년 사업의 예산도 많이 주는 편이구요. (실무자3)

② CYS-Net 활성화

인터뷰한 읍면지역은 CYS-Net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용이하고, 지역 자원이 많이 발굴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다.

CYS-Net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어요. 활성화 되어있어서, 기관 내에 자원도 많아요. (기관장3)

네트워크가 저희는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턴십을 통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들이 많이 있고,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굉장히 협조적이세요. (실무자3)

③ 경제적 활동 공간 부족

해당 지역은 학교 밖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 내에서 CYS-Net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해요. (기관장3)

00군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취업 시킬만한 곳이 너무 없어요. 지역특색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실무자3)

④ 청소년 시설의 부족

선정된 읍면지역에는 청소년 시설이 한 군 데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이 한 군데 밖에 없다는 것은 서비스의 한계가 있는 거죠. 지역이 넓다보니 나오는 데만 기본 1시간은 걸리거든요. 근처에 또 다른 청소년 시설들이 있다면 청소년들은 가까운 곳에서 많은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좋을 테고 기관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좋을 텐데 말이죠. (실무자3)

⑤ 청소년 인프라가 별로 없음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주변의 도심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00군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밖으로 떠나는 이유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취업까지 자리를 잡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대학이 없어서 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다보니 청소년들은 주변도심을 많이 나가요. (실무자3)

⑥ 교통시설의 불편함

읍면지역은 대도시처럼 교통편이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을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많다.

여기 지역이 너무 넓다보니까 저 멀리 사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교통편도 하루에 버스에 4대 운행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기가 어렵죠. 가까우면 올 텐데... 넓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이 한군데 밖에 없다는 것은 서비스의 한계가 있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끄트머리에서 애들 오려면 되게 멀어요. (실무자3)

⑦ 홍보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홍보를 위해서는 공교육 기관인 학교의 도움도 필요하다. 하지만 읍면지역의 학교에선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홍보하기가 어렵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에 대한 인식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홍보의 어려움, 공교육권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자기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저희 센터를 이용한다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약간 반감을 가지시기도 하시죠. (실무자3)

(2)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와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무기력하고 생활패턴이 불규칙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고, 부모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① 무기력하고 불규칙한 생활패턴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당수는 새벽 3-4시경에 잠이 들어 오후에나 기상을 한다. 이들은 학교에 재학 중일 때 등교시간에 맞추어 등교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키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는 특별히 정해진 일정이 없이 무기력하고 불규칙한 생활패턴을 보인다.

모든 일에 거의 관심이 없어서 다가가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침저녁으로 찾아가고 전화해도 은둔형처럼 방안에만 있으려는 아이들도 많아요. 더구나 돌봄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집 안에서 라면으로 한 달을 보낸 아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낮밤이 바뀌어서 생활패턴이 불규칙해 지는 거죠. (기관장3)

② 경제적 어려움(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초수급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복지사각이라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 그런 아이들은 기초 생활비도 못 받는 가정이다 보니 당연히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해요. (실무자3)

③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한 위기상황 노출 등 이런 문제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부모가 돈이 많아도 방치되어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좀 있고요. 부모가 아이에 돈을 안주는 거예요. 중위소득 70% 이하 이런 게 있는데, 부모 소득은 정말 높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막상 혼자 원룸 생활하고, 진짜 천원도 없고 차비도 없어서 못 나오고... 아니면 부모소득이 높는데 부모들이 매번 사고를 쳐서 빚을 지고, 빚을 지고 아이 이름으로까지 빚을 저놓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진짜 많아요. (실무자3)

(3)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와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는 세 가지 하위범주로 나타낼 수 있다. 취업을 위한 훈련과 자립, 검정고시 합격, 취업연계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취업을 위한 훈련과 자립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받는 인턴십 수준의 경제활동이 아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사회로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 인턴십으로 월 30만원 이런 게 아닌, 최저임금 수준에서의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과 연계되어지는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기관으로도 연계할 수 있거든요. 취업시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학

교 밖을 해보니까 약간은 물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희가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훈련과 자립...이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기관장3)

② 검정고시 합격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그나마 위안을 받는 것은 검정고시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 졸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검정고시에 대한 욕구가 클 수 있을 것이다.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역시 검정고시의 욕구가 우선시 되고 있었다.

일단은 검정고시가 커요. 검정고시는 공통적으로 다 보려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그만두기 때문에 제일 큰 욕구는 검정고시예요. (실무자3)

③ 취업연계

읍면지역은 지역의 경제규모가 적어서 청소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은 더욱 어렵다. 읍면지역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근처의 대도시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역에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취업연계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데려오면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일할 데 있어요? 라고 물어요. 사실 여기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뭐 출산 장려 정책은 항상 1위를 하지만 그 아이가 청소년기를 보내고 취업까지 자리를 잡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이 떠나요. 밖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둘 무렵에 빨리 가서 데려와야 돼요. 놓치면, 그만둔 후에 한참 있다가 연락해보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거나 서울에 나가 살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개네를 데려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취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취업을 시켜주고 싶은데 취업을 할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 어려움도 좀 있고요. (실무자3)

(4)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이용인원 및 발굴과정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등록인원은 150명 정도이고 상시이용인원은 30명 내외다. 읍면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정은 대체로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리스트를 통하는 경우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직접 찾아다니며 발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교육청 리스트

읍면지역 역시 대도시나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리스트를 받아 아이들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발굴하고 있다.

일단 학업중단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명단이 넘어와요. 그럼 그걸 보고 연락을 하죠. 연락이 되어도 모두 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또 회유하고.. 재미있는 것 많이 할 수 있다고 라기도 하고 맛있는 것 줄 테니 오라고 하기도 해요. 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오는 거죠. (실무자3)

② 기관 홍보(아웃리치, 팸플릿)를 통한 발굴

읍면지역은 기관에서 직접 찾아다니며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발굴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역사회로 나가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곳에 홍보물 등을 놓아두고 이곳저곳 수소문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했다.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가서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사회로 찾아다녀요. 어르신들한테 학교 안 가고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물어봐요. 이렇게 홍보를 지역사회로 하다보면, 저희가 PC방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여기에 어디 가지면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화장실이나 이런데 다 붙이러 다니고, 뭐 읍면동 사무소나 지하철 역사나 이런데 리플렛도 비치하기도 하고 현수막도 걸어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채널로 홍보를 해서 교육청, 경찰서 뭐 이런 기관에서 넘어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지역사회 기관에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전화를 주시기도 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은둔하고 안 나오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찾아가요. 가정방문으로.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있어요. (실무자3)

(5) 학교를 나온 이유 및 현재 상황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기관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를 나온 이유 및 현재상황은 두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대체로 개인 심리 정서요인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따돌림 등으로 인한 친구문제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나온 후 현재는 도박이나 사기, 빚 등의 비행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① 우울증 및 심리적 문제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울증이나 심리 정서적인 요인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가 있다. 조현병과 같이 증상이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은둔형 외톨이나 대인기피, 불안 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일단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요. 또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중에 많은 경우가 경계선,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많고... 여기가 임상 대상자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 계신 선생님들 중 임상심리 전문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뭐 조현병 판정을 받은 아이도 있고, 굉장히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깐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뭔가 독특하니깐 따돌림 당하고 이런 순환이 되는 거 같아요. (실무자3)

② 친구 문제(따돌림)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학교 내의 친구문제로 그만 둔 경우도 있다. 소규모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초·중·고를 모두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에게 따돌림 등으로 학교 부적응이 된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것이다.

그... 따돌림. 제가 만나본 경우는 따돌림이 제일 많았어요. 친구랑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다보니 학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예 학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지옥인 경우도 있고요. 몇 번 안 나가다가 그냥 자퇴로 연결되는 경우요. (실무자3)

③ 위기상황 노출(도박, 성매매)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나온 후 위기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일단 학교를 그만 둔 후에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가 이제 도박문제, 도박 빚을 지는 문제. 도박 빚을 지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는 핸드폰을 가입하고 팔고, 가입하고 팔고를 아마 개인당 10개까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통신사 빚이 천만원 정도 쥐어진 청소년이 있어요. 이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성적인 문제에 많이 노출이 되죠. 그리고 00에 일자리가 많이 없다보니 제일 가까운 00 같은 곳으로 많이 나가죠. 00 같은 곳에 나가서 청소년 중에 한 명은 보도방이라는 곳에 뛰었다고 연락이 왔던 아이도 있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임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노출되기도 하고... (실무자3)

(6)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와 관리 시 중점을 두는 부분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관리를 위하여 일일이

전화연결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며 추후 일상관리 차원에서도 꾸준히 직접 통화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할 때 청소년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사례관리 - 직접통화 및 일상생활 관리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 역시 . 인터뷰한 읍면지역은 등록인원이 150명 정도 이므로 실무자 4명이 분배하여 각자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단 저희는 4명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150명 정도 등록된 청소년을 4명으로 나뉘요. 그건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처음 대상자가 오면 팀장님이 초기 컨택을 하시고 그 다음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 4명에 맞는 사람에게 사례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관리 청소년이 몇 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2주에 한 번 필수 연락을 하고요. 그 전에도 자주 연락을 하고. 저희는 사실 아이들이랑 친밀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막 들이대죠.(웃음) 막 친한척하고 엄청 들이대서 아이와 저희와 라포가 형성되도록. 그래야지만 프로그램에 나오거든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의 정을 보고라도 나와줘~”라고 부탁하고 나오게 하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실무자3)

저희 센터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졸업도 했다고 하면 그 아이는 사후관리 대상이 되요. 뭐 취업까지 한 아이가 있어요. 작년에 검정고시 합격하고 올해 취업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이렇게 자주 연락하지는 않고 3개월에 한번 연락하면서 문제는 없는지 보고, 잘 다니고 있으면 사후관리 1년 정도 이후에는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요. 사후관리 1년 동안에 기복이 심하면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사후관리를 하고요. (실무자3)

② 청소년과 좋은 관계 만들기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성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적다. 따라서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의 지지체계가 되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중점을 두고 싶은 게 일단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관계 맺기인 거죠. 프로그램 시작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관계 맺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괜찮다'라는 지지적인 관계 맺기에 중점을 뒀어요. (기관장3)

(7) 기관에서 실행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여가부에서 지정한 영역의 프로그램 외에 승마체험활동과 같은 특별프로그램과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 경제관념 및 자립에 대한 교육, 그런나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있다. 승마체험활동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계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 체력관리와 식단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① 승마체험활동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승마체험활동과 같은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희가 이번에 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승마 체험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마사회에서 역시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과천까지 가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왔다갔다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승마장을 잘 갖춘 곳에 찾아가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에게 배움의 그런 기회들이 제한되어 있는지 인식 하고, 승마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기관장3)

② 건강관리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시간, 식단, 체력 등에서 거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고 있다.

올해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학교 밖 아이들의 건강관리, 체력관리 이것을 지금 유관기관에 스포츠센터와 연계해서 할 예정으로.. 가장 중점으로 하는 건 그런 거죠.. 건강인데 그 건강이 체력관리, 그다음에 일상생활 습관 관리.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아침밥을 해서 먹고, 아이들이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일상습관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점차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기관장3)

③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역시 대표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지원은 일단 아이들에게 학력취득. 사실 저희 사회가 학력취득 없이는 안되니까. 고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를 딸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과정을 다 지원해요. 아이들은 원서 접수 이런 것조차 몰라요. 하물며 중학교를 미진학한 청소년이 있었어요. 중학교를 미진학하고 이제 중졸검정고시를 보는데 OMR카드를 처음 본거예요. 검정고시 국어시간, 첫 일교시를 OMR카드 체크를 안하고 시험지만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격은 했지만 그 정도로 작은 단계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 원서접수부터 대리로 접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도 아이들 모아서 버스 대절해서 같이 가고. 점심 제공하고 그리고 부분합격인 애들은 중간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갔다 돌아와야 하는데 안 돌아오고 시험시간 늦고 그래서 또 못 보고. 그런 아이들 응시 독려 해주고 이렇게 해서 검정고시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고. 그제 교육지원 분야에서 검정고시를 지원하는게 제일 크다고 생각 되요. (실무자3)

④ 경제관념 및 자립에 대한 교육

자립지원이라고 해서 자격증 취득과 취업연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른 이에게 베풀어 주는 교육도 함께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립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 애들이 경제관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해서 자립에 대한 지식, 상식 이런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주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무자3)

⑤ 그린나래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육 및 자립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가 이 공간 안에서 4가지가 가능하잖아요. 요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목공예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그린나래'라는 프로그램인데. 그제 이제 여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하는 것은 '와락 한식 데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한테 나눠주고, '놀이 데이'라고 해서 목공예로 장난감 같은 것을 같이 만들어 본다던가. '간식 데이, 놀이 데이'는 이 공간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외부로 나갈 때는 '배달통'이라고 해서 쿠키 같은 걸 만들어서 어린이 센터 이런 곳에 배달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직접 배우고 또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존감을 되게 높이는 일이지요. 그래서 내가 쓸모가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립기술을 배워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과 자립이 저희 학교 밖에는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실무자3)

(8) 기관 홍보 방법

① 아웃리치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역시 중소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직접 발로 뛰는 홍보를 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곳에 홍보물을 돌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도 함께 한다고 한다.

PC방, 음식점, 술집, 이런데도 홍보스티커 붙이러 다녀요. 아이들이 많이 갈만한 곳을... PC방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붙여 드렸어요. 읍면 사무소나 유관기관들은 다 돌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아웃리치라고 해서 어떤 한 장소에서도 해요. 그 장소에서 체험부스 같은 걸 운영을 해요. 어른들이 오시면 저희는 이리이러한 것을 한다고 아웃리치 행사를 통해서 저희 기관을 알리고 그런 것들을 해요. 처음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란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실무자3)

(9) 기관의 위치와 여건

① 전용 시설 및 활동 공간 필요

인터뷰한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 기관도 모든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열려 있고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에 오면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여기 모이는 것 같으며 그들만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사실 여기가 아이들의 전용공간은 아니잖아요. 모든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열려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만 올 수 있는 전용공간은 사실 부족해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기관은 소수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지자체의 반대가 당연히 있겠죠. 그니까 사실 재학생의 1% 정도가 학

업을 그만두거든요. 1%를 위해서 이 큰 공간을 다 써야 한다고 하면 안 되겠
죠. 그래서 사실 전용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전용공간이 있
으면 사실 저희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만 올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언제
든지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기 오면 초딩들이 다 점령하고 있고 그런데 별로
오고 싶지 않고, 시끄럽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또 막 뛰어다니고 이
럴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만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 따
로, 막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따로. 그렇게 전용공간이 별도로 따로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지트의 느낌을 원하거든요. (실무자3)

(10) 지역 내 인지도와 네트워크 정도

① 인지도 미흡하나 네트워크 순조로움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인지도가 아직은 미흡하나 CYS-Net과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한다. 인지도는 몇 년 전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다. 하지만 학생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
조차 아직 학교 밖 기관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학교 밖 청
소년이 뭐예요? 학교 밖 청소년이 뭐를 의미해요?”라고... 너무 인식이 약해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에 대한 인식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학업중단숙려상담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저희
가 “그럼 그 학생을 숙려상담을 보내겠어요?”라고 했더니 “그거 보내봤더니 다
학교 그만두던데 뭐하러 보내요.”라고 이렇게 약간 안 좋게 인식을 하시는... 일
단 저희가 많이 듣는 말이, 저희 기관을 홍보를 하다보면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
도 지원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지도 나와요. 홍보의 어려움, 공교육권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자기 아이가 학
교를 그만두고 저희 센터를 이용한다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약
간 반감을 가지시기도 하시죠. (실무자3)

제가 여기에서 16년 3월부터 일했는데 그때는 정말 낮았어요. 그때는 진짜 많

이 모르셨어요. 근데 16년도부터 발로 뛰는 홍보를 하다보니깐 이제는“거기서 뭐 학원비도 지원해주신다면서요. 김정고시도 지원해주신다면서요.”라고 전화가 와요. 이런 전화가 16년도에는 거의 걸려오지 않았거든요. 외부에서 먼저 걸려 오는 전화가 없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먼저 전화가 걸려온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 인식이 있다. 라는 것이 생겼고요. 기관에서도 예전보다는, 학업중단속려상담 같은 경우는 16년도에는 7~8명만 들어오는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그 두 배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알려지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들어요. “인식이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무자3)

네, 저희가 잘 되어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무한돌봄센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무한돌봄센터가 할 수 있는 거, 드림스타트센터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각각 나뉘어져 있어요.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상담을 통해 판단을 하고 그 아이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또 다른 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에 동의를 구해서 “혹시 이리이러한 기관에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너의 사례를 공개해도 되겠니?”라고 물었는데 그 아이가 괜찮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자원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네트워크 저희는 잘 형성되어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턴십을 통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들이 많이 있고, 지역사회이다 보니깐 굉장히 협조적이세요. “청소년들, 우리는 괜찮다.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도망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받아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지역사회 환경은 잘 구성되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무자3)

(11)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행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실무자의 역량을 제시하였다.

① 실무자의 역량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실무자는 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와 처해있는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저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저하고는 다를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는 아이들은 모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자원도 사실은 비슷해요. 하
지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데는 실무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실무자의 역량 중에서도 강조되는 역량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긍정
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기관장3)

(12)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이나 더욱 노력하는 부분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타 지역보다 특화되어 있거나 더욱
노력하는 부분으로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제시
하였다.

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가
이들의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학교 밖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학교 밖에 어떤 전체가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중략)... 학교 밖 아이들이 우리 안에서 인턴십을 할 때
우리는 일단은 지지적이잖아요. 아이들도 이해가 되고 하나까. 하지만 고용주라
고 해야 하나?? 그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선입견이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 여
기에서 우리 여기서는 인턴십을 해보고, 저기 센터에서도 인턴십을 할 때 3개월
을 잘해요. 여기서 잠깐의 교육을 하고 '아! 이 아이는 나가도 괜찮겠다.' 하고
보내는데 정말 성공한 사례는 두 케이스 정도. 뭐 여섯 명 정도 인턴십을 고용
했다고 한다고 하면 두 케이스정도가 이제 3개월을 지내는 거죠. 그게 어.. 그
분들도 학교 밖에 대한 인식이 좀 덜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걸 좀 못 버
터하는 게 있고... (기관장3)

(13) 지역규모별 제한점 및 애로사항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턴십 과정을 수료한 후에도 취업으로 연결의 어려움, 청소년 관련시설 부족,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실적위주의 평가체계에 대한 제한점 및 애로사항 언급을 하였다.

① 인턴십 과정 수료 후 취·창업으로의 연결이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검정고시, 취업관련, 문화체험 등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 그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과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 및 인턴십 과정이 있다. 하지만 읍면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턴십 과정을 수료한다고 할지라도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다.

인턴십과 직업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것 까지를 해주면 좋겠어요. 취업연결은 아이들도 많이 원하는데 잘 안되네요. (기관장3)

지금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창업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 청소년들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진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그니까 그 안에는 실패를 해도 괜찮은 어떤 그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들이 마련되어지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관장3)

② 청소년 관련 시설의 부족

읍면지역의 청소년 관련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외에 아직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등이 없어서인지 청소년들이 마땅히 활동할 곳이 없다는.

제가 16년도에 왔을 때 여기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나였어요. 아무것도 없고 딱 한군데. 수련관도 없고. 근데 아이들은 여기 지역이 너무 넓다보니깐 저 멀리 사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교통편도 하루에 버스에 4대 운행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기가... 가까우면 올텐데... 넓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이 한군데 밖에 없다는 것은 서비스의 한계가 있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지고 그래도 이제 많이 멀죠. 저 끄트머리에서 애들 오려면 되게 멀어요. 나오는 데만 한 시간 넘게 걸리고... (실무자3)

③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실적위주의 평가

읍면지역의 특성상 주변에 취업을 연계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니 매년 기관평가의 취업연계 부분 등은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한다. 기관의 실무자는 앞으로는 지역특색에 맞는 평가기준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런 성과라는 것이 숫자로 되어있고, 정부합동평가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공식화해서 내려오거든요. 지표가. 그런데 그게 지역사회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취업연계부분은 그게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이고, 그래서 어디가 잘했고 우리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재는 32명 취업시키는데 너희는 뭐하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실무자3)

작년에 일등 했던 프로그램이 **에서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 30여명을 취업시킨 프로그램이었어요. 당연히 **은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취업할 곳이 많아요. 근데 그걸 저희한테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만큼 취업시킬 곳이 많지 않거든요. 지역특색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게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어느 프로그램이 우수프로그램이어도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실무자3)

(14)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두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저소득층의 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과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①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지원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뷰한 읍면지역은 CYS-Net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중 저소득층에 속하는 청소년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비하여 기관에서 발굴할 수 있는 지역자원에 한계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기관 내에 자원도 많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학교 밖 아이 중에서 그러니까 그 집이 있어야 되는데 월세 이런 게 없어서 자원을 연계해서 드림스타트, 무한 돌봄이나 사회복지 협의회나 이런데 연계해서 개를 추천했어요. 연결해서 도움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가장 큰 거 같아요. 사실은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게. 우리는 그 자원이 한계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센터 내에서는.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서 문화체험을 한다거나, 뭔가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연계 했었어요. (기관장3)

②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의 활용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전거하이킹을 하는 경우에 청소년육성회라는 조직에서 예산과 인력을 보조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롯데월드 문화체험 시 지역사회에서 예산을 지원받거나 주민들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 자전거하이킹을 긴 거리를 했어요. 체력과 연결 되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실무자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또한 요즘은 자전거하이킹도 숙지해야 할 점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자전거를 아주 잘 타는 사람이 가이드를 해야 하구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육성회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하고,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 알려주고, 안전이라든가 함께 하는 거죠. (기관장3)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이 그 롯데월드 문화체험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그런 자원들이 함께 가서, 그분들이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활동비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문화체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기관장3)

(15) 지역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지역연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읍면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CYS-Net 지역사회 협의체나 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이 시급해요. 저희가 이제 운영협의체라는 CYS-Net 안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여기를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지역의 여러 단체장님이나 회사대표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께 계속 학교 밖 사업에 대한 것을 운영회의 할 때 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대한다면 아이들은 훨씬 더 지역사회와 친근해질 것이라고 생각 되요. (기관장3)

(16)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원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원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① 인턴십 프로그램

앞서 이야기 했지만 인터뷰한 읍면지역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네트워크 안에서 교육, 진로, 활동 등의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읍면지역은 CYS-Net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단체장들을 통해 여러 곳에서의 인턴십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우리지역의 CYS-Net의 운영협의회는 형식적이지 않아요. 그거 원래 운영협의회는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회의체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자체가 저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저희 회의운영권을 거의 주세요. 아예. 그래서 회의 구성 디자인을 다 저희가 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학교 밖 청소년을 꼭 넣는 거죠. 거기에서 인턴십을 할 장소를 개발하고 청소년들과 연계 해줘요. 그곳에서 민간단체하고 사업을 연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기관장3)

지금 인턴십은 다 하고 있어요. 저희는 잘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지역 내에. 그런데 인턴십 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카페를 열어보고, 전 사실 여기 카페 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이 배워서 이 카페를 운영 하려고 여기 카페를, 일정한 아이들이 비용을 받아보는 경험, 돈을 계산해보고,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는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관장3)

(17)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발전방향)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와 실무자는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창업 공간을 마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건강 활동 프로젝트 전용공간 마련,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빠른 대응을 제시하였다.

① 창업 준비 및 지원 공간

인터뷰한 읍면지역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턴십 프로그램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턴십 프로그램과는 달리 창업을 꿈꾸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금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창업하고 그런 게 대개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 청소년들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진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그니까 그 안에는 실패를 해도 괜찮은 어떤 그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들이 마련되어지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업지원 공간이 아예 이렇게 공간이 청소년들과 공유되어지는 공간 말고 직업과 창업을 위해서 딱 세팅되어지는 그런 공간이 좀 더 지원되면 좋겠어요. (기관장3)

지역 내에 인턴십 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카페를 열어보고 카페를 운영하고 일정한 아이들이 비용을 받아보는 경험, 돈을 계산해보고,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는 경험을 하게하는 방향으로...(중략)...학교 밖 아이들의 사회적 기업? 이런 논의를 저희 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학교 밖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인턴십과 직업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활용 해보는 것 까지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 장을 좀 마련해주면 지역에서, 암튼 그래서 그렇게 좀 마련되면 좋겠다. 창업의 문까지도. (기관장3)

②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지역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럴 때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편견어린 시선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문제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편견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하였다. 이런 부분의 인식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편견을 좀 가지지 않으시고... “재네 뭐 잘못해서 나온 거 아니냐, 문제 있어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애들한테는 또 한 번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면... 사실 뭐 물적 자원, 외부 자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마련할건데. 인간적인 자원은... 그분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필요한 공간마련 이런 것은 저희가 발로 뛰어서 노력할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변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은 다 문제야.”라는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힘들죠. (실무자3)

③ 건강 활동 프로젝트 전용 공간

읍면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이 없다. 관내에 청소년시설이 한 군데가 있으므로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것이다. 실무자는 굳이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이는 작은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구상 중인 프로젝트도 함께 이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건 활동 공간 지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개선 프로젝트를 올해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들의 먹거리가 불규칙하고 되게 건강에 안 좋은 것만 먹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단체든, 시설이든 그런 게 하나가 있으면... 아님 공간이 있다면 그곳을 건강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텐데요. 그리고 식습관 코칭도 해주고 그런 기관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 건강한 먹거리 먹고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같이 있으면...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식습관 코칭 프로그램을 몇 번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운동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건강개선 프로젝트를 올해 계획 중에 있거든요. 제가 혼자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하러니깐 너무 어려워요. (실무자3)

④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빠른 대응

학교 밖 청소년은 단기간에 빠른 결정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 초등학교부터 학교 부적응 징후를 보이거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상담실을 자주 오가며 힘든 내색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을 초기에 발굴하여 학교를 그만 두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징후를 보이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기관이랑 연계가 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학교 측에서 예를 들면 초·중학교 때부터 학업중단의 징후가 초등학교 때 부터 보여요. 그러면 빨리 그 아이들을 저희 쪽 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학업중단예방을 해야 하는데 이미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몇 달씩 안 나오는 이런 아이를 고등학교로 올려 보내고... 고등학교는 결석률 이런 것을 꼭 지켜야하니깐 그제 서야 뒤늦게 저희한테 연계가 와요. 학교 측에서는 아이가 징후가 보일 때, 뭔가 힘들어 할 때 빠른 조기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개입을 하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나빠질 만큼 나빠진 최악인 상태에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미리 연계를 해주질 않는데, 조금 위험하다, 조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 쪽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러면 개입을 해서 더 이상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게...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상처가 되요. 의무교육이니깐 부모는 학교를 가라고 하지, 이러면서 10년을 참아오고 상처를 받을 대로 받고 너털너털해져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자3)

(18) 성공모델의 요인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성공모델의 요인은 두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반영이다.

① 실무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모든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대상은 기관의 실무자이다. 따라서 실무자가 얼마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직무에 임하는지는 사업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일단 가장, 가장 우선시 되는 성공요인은 실무자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에요. 제가 이 공간을 만들었지만, 이런 사업계획서를 내보자 라고 했을 때 실무자의 자발성과 역량 없이는 힘들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더욱 그러네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성공요인은 실무자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그래요. 같이 이거 해봐요". 라는 어떤 실무자의 자발성과 그것을 밀받침하는 실무자의 역량이고요. (기관장3)

②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반영

인터뷰한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책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서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욕구들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참여도가 낮아지고, 나아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효과성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다른 그런 이렇게 착착착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당사자의 욕구에 기울이고 그 당사자의 욕구가 표현되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거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인식전환 까지도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기관장3)

예를 들면, 학교 밖 아이들이 이 난타를 뭘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욕구를 통해서 난타공연을 했었거든요, 난타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난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봤더니,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허? 학교 밖 청소년이 저렇게도 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 밖 아이들의 인터렉션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물론 장을 마련해주는 것들이 지역이 계속 학교 밖 아이들과 연계되어 질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준 거죠. 진짜 성공요인은 그 당사자의 욕구를 듣고 그 욕구를 표현되어
질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것 같아요. (기관장3)

2)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인터뷰한 내용
및 분석된 범주들은 다음의 [표 IV-6]과 같다.

표 IV-6.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NO	인터뷰 내용	하위범주
1	학교를 그만 둔 이유 및 그만 둘 당시 하고 싶었던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이유 없음, 그냥 다니기 싫어서 •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2	학교 그만 둔 후 생활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규칙한 생활패턴 • 그냥 집에서 지냄
3	학교 그만 둔 후 힘든 경험과 대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들지 않음 • 외로움
4	앞으로의 목표 및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찾기
5	목표나 욕구를 위해 필요한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비 지원 • 체계적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
6	기관을 알게 된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상담 •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선생님
7	기관에서 도움 받고 있는 부분과 만족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대비
8	현재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 또래친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 • 기관에 다양한 동아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 검정고시 공부 전용공간 • 검정고시 프로그램 선생님들의 전문화

NO	인터뷰 내용	하위범주
9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	• 잘 모르겠음
10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및 필요한 지원	• 체계적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 아르바이트 및 취업 연결

(1) 학교를 그만 둔 이유 및 그만둘 당시에 하고 싶었던 일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이유 및 그만 둘 당시 하고 싶었던 일은 두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학교 다니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 둔 경우와 공부하기가 싫어서 학교를 그만 두게 된 경우로 구분 할 수 있었다. 또한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둘 당시에 하고 싶었던 일은 공부가 아닌 다른 관심분야에 대해 더 배워보고 싶다고 하였다.

① 특별한 이유 없음, 그냥 다니기 싫어서

학교라는 곳은 공교육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배우기도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 등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보면 학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야기 하는 학교를 그만 둔 이유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다니기 싫다는 것은 여러 복합적인 어려움이 합쳐진 경우라 보여 진다.

그냥 학교 다니기가 싫던데요? 답임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친구도 없기도 하고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휴학을 했어요. 그냥 학교 다니기도 그렇고. (청소년14)

그냥 다니기 싫어서요. 불편해서요. (청소년14, 청소년18, 청소년20)

②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하는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하고 싶은 경우,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두기도 한다.

그냥 엄마아빠가 공부 안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찾으라고...
(청소년15)

제가 따로 진로를 준비하는 게 있어서 학교 공부랑 안 맞아서 그만했어요. (청소년16)

(2) 학교 그만 둔 후 생활패턴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 불규칙한 생활패턴을 보이거나 그냥 하는 일 없이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불규칙한 생활패턴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다른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업을 중단한 뒤에는 불규칙한 생활패턴 현상이 나타났다. 갑자기 규칙적으로 행해야 하는 생활리듬이 깨지고 밤·낮이 바뀌는 생활 탓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래요. 하는 게 없어요. 대충 새벽 4시에 자고 더 늦게 자면 6시쯤 자고...따로 하는 건 그냥 자격증 공부...그것도 어쩔 수 없으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청소년18)

② 그냥 집에서 지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서 지내는 청소년들도 많다.

집에서 놀아요. 저도 따로 하는 건 없어요. (청소년15, 청소년16, 청소년20)

(3)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든 경험과 대처방법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들었던 경험이 없다고 하거나 외롭다고 하였다.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힘들 때의 대처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① 힘들지 않음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든 경험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힘든 경우보다 오히려 더 홀가분해져서 좋았던 느낌이 더 크다고 하였다.

힘든 것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그냥 똑같은 거 같아요. (청소년18, 청소년20)

처음에는 조금 허전한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로워져서 좋았어요. (청소년14)

② 외로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함께 다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혼자서 견뎌야 할 부분에서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 거주지역의 규모가 작아서 주변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되다보니 집안에서만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져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도 하였다.

반은 힘들고 반은 좋았어요. 학교는 규칙적으로 나가고 끝나고 자기계발 활동할 것 있으면 활동하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나오면 그거를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늦게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그럴수록 달려오는 외로움, 자괴감,

자책감이 생기더라고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고 점점 멀어지다보니 더욱 외로운 것 같아요. (청소년16)

저는 일단 밖에 나가서 나의 얘기를 하려면 학교 그만됐다고 좀 안 좋게 보고... 일할 때 애들이 다 학교 가고 저는 일하러 가고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니 외롭기도 하더라고요. 막 애들이 졸업사진 찍은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자퇴하면서 집에서 지원을 아예 안 받아서 그것도 좀 힘들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혼자서.. 많이 외롭고 짜증나요. (청소년17)

(4) 앞으로의 목표 및 욕구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앞으로의 목표 및 욕구는 검정고시 합격과 자신의 진로 찾아보기다.

① 검정고시 합격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선적으로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부는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검정고시 공부부터 시작하다가 익숙해지면 그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긴 해요. 하지만 일단은 검정고시부터 먼저인 것 같아요. (청소년17)

②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찾기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턴십을 마치고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찾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하였다.

다른 친구들은 인턴십 다 받은 거 같은데 저는 아직 인턴십을 못 받아봤어요. 작년에 해준다고는 했는데 아직 안 해줘가지고..저는 인턴십 마치고 저에게 알맞은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청소년14)

(5) 목표나 욕구를 위해 필요한 도움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게 앞으로의 목표나 도움을 위해 필요한 도움은 두 가지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그것은 학원비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지원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① 학원비 지원

모든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외에 학원비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예를 들면, 취업을 위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등이다.

학원비요. 공부 학원 말고요. 저는 춤, 연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 학원 같은 거는 막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예술이나 이런 거는 지원을 잘 안 해주니까... 네 그런 거가 제일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뭐 들어 주고 하는 것 보다는 솔직히 지원을 해주는 게... (청소년17)

저는 운전면허요. 19살부터 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19)

② 체계적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

읍면지역의 학교 밖 관련기관 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지역 내의 초등학생부터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늘 시끌벅적한 분위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부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저는 그런 건 없고 그냥 검정고시 패스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검정고시를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끄러워 공부도 안 되고... (청소년15)

도움을 주실 거면 검정고시를 세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시는 선생님이 검정고시 전문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검정고시 관련 멘토 선생님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조차도 자주 못 오시니깐. 그래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16)

(6) 기관을 알게 된 경로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을 알게 된 경로는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께서로부터 알게 된 경우와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실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받고 알게 된 경우이다.

①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상담

읍면지역도 마찬가지로 학업중단 숙려기간 중 학교상담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자퇴하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 2주 정도 숙려기간을 주시는데 그때 여기는 아니고 저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에 계셨는데...(중략)... 그래서 2주가 끝나기 전에 급하게 상담을 하고 자퇴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다시 연락이 와서 이러한 준비를 해주고 하니깐 가볼 생각 없냐고 물으시고 그 후로 종종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정도 만나는 거예요. (청소년16)

상담해주는 분들마다 거기 지역에 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청소년14)

②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선생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후 학교 밖 관련기관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고 기관으로 오게 된 경우도 많았다. 처음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학교 밖 관련기관 선생님들께 전화를 받고 기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방문하게 되는 경우이다.

전화가 와서요. 학교 그만두고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왔었어요. 빈둥거리고 있을 때 전화가 마침 왔더라고요. 어딘지도 몰랐는데 일단 한번 가보자 하고 왔어요.
(청소년18)

전 전화가 왔었어요. 여기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청소년19, 청소년20)

(7) 기관에서 도움 받고 있는 부분과 만족정도

① 검정고시 대비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에서 도움 받고 있는 서비스 중 검정고시 준비를 가장 먼저 이야기 하였다. 역시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성과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하였다.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따로 공부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니까 조금 아쉽긴 해요. (청소년16)

(8) 현재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네 가지다. 그것은 많은 또래 친구와의 활동, 다양한 동아리, 검정고시를 공부하기 위한 전용공간, 검정고시 프로그램 선생님의 전문성이다.

① 기관에 또래친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

대도시지역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지만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학교를 그만 둔 후 또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기관에서라도 또래 친구들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지만 이용하는 또래가 별로 없어서 심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는 애들하고 만날 기회가 학교 나와서는 없어서 좀 애들 만날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애들이 많이 오니깐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14)

② 기관에 다양한 동아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기관에서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저는 동아리를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한 네 다섯 개 뿐 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그렇다면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목공, 베이커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꿈이 상담사이거든요. 아직 미숙하지만 상담 동아리 같은 거라도... (청소년15)

③ 검정고시 공부 전용공간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기관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소음 등에 노출되어 공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검정고시 공부를 하러 오기는 오는데요. 공부여건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낮에 일찍 오면 초등생들 시끄럽게 떠들고 막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공부 못해요 공간이 없어서요. 전용 공부방이 있어도 좋을 텐데요. (청소년17)

④ 검정고시 프로그램 선생님들의 전문화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에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지도 않고 가르치는 교사의 수준 또한 낮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있어요. 검정고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정도... 선생님이 오는 기간이요. 한 달은 시험문제만 풀고, 한 달은 이론적인 것만 배우고...여기에 과목별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른 기관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예요. 그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충 수업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구요. 지원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19)

(9)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

① 잘 모르겠음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지원강화, 인턴십 연결 등 받고 싶은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근처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도움이요? 우리가 받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15)

우리는 시골이라 그런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지역에서 특별하게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시가 혜택이 더 많지 않을까요? 좋은 선생님들 계실 것 같고요. (청소년14)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술분야랑 뭐 다른 분야도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바리스타나 이런 데를 지원 많이 해주긴 하는데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범위가 너무 좁아요. (청소년16)

(10)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및 필요한 지원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및 필요한 지원은 검정고시 공부에 대한 지원과 진로 관련하여 인턴십 연결에 대한 지원이다.

① 체계적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합격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았다. 지금 받고 있는 지원이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선생님들에게 체계적으로 검정고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대학에 가는 게 저의 최고 목표라서 검정고시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도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이 검정고시 합격이 제일 큰 바람일걸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학원에서처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청소년16)

② 아르바이트 및 취업연결

읍면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아 취업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진로 관련한 기술들을 배우고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학교를 그만 두고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어 알아봐도 일할 곳이 별로 없어서 집에서 빈둥대다가 기관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저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자동차 관련 기술을 배웠어요. 처음에 업체랑 연결해줘서 한 달을 다니긴 했어요. 원래 3개월 이상은 해야 기술을 더 배울 수

있는데 심부름만 하다 나온 거죠. 뭐. 다른 곳도 가고 싶어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마땅한 곳이 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곳저곳 연결이 잘 이루어 졌다면 저는 벌써 기술자가 되었을 수도...하하하(중략)...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18)

4.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기관 특성 비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 지역의 특성,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기관의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특성

본 연구에서 선정한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지자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지역경제 수준이 낮아서 재정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수준이 낮아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반면 지역별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대도시의 경우 인구대비 기초수급자율이 높아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비행과 학업중단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 인구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학교 밖 청소년 역시 많이 발생하여서 서비스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과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지역의 청소년의 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고 저소득층과 위기 청소년이 밀집되어 있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많다.

읍면지역의 경우 CYS-Net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지역 특성으로 인해 도심지 보다 교통시설이 불편하고, 청소년 관련 시설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위기에 노출되는 청소년도 많은 편이다. 도시 지역보다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공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읍면지역을 떠나 주변의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서 홍보 등의 어려움도 있다.

표 IV-7. 지역별 특성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경제적 지원이 어려움 • 인구대비 기초 수급자율 높음(취약계층 많음)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돌봄을 받지 못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행과 학업중단 • 청소년 인구 많음 • 학교 밖 청소년이 많아서 서비스 받기가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수준 낮음 •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활성화 • 원활한 지역 네트워크 구조 • 청소년 수 감소 • 특성화고 학업중단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어려움 • 학교 밖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음 • CYS-Net 활성화 • 교통시설의 불편함 • 청소년 시설의 부족 • 경제적 활동 공간 부족 • 청소년 인프라가 별로 없음 • 부모의 무관심 • 홍보의 어려움

2) 지역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1)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① 학교를 그만 둔 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유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친구나 선생님과
의 갈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이다.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은 우울·불안 등의 심리적인 이유로 그만둔 경우와, 입시
위주의 학교 시스템에 대한 불만, 또래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다 비행을 저질러서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경우가 있다.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성적의 불만족과 애초에 고등학교를 적성에
맞지 않게 들어가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읍면지역의 경우는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니기 싫어

서 그만 둔 경우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다른 일들을 하고 싶어서 그만 둔 경우도 있었다.

표 IV-8. 지역별 학교를 그만 둔 이유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 우울·불안 등의 심리 정서적 요인 • 입시위주의 학교 시스템 불만 • 또래 친구들과 어울림(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관계 어려움 • 선생님과의 불화 • 학업성적에 대한 불만 • 고등학교 선택을 잘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문제(따돌림) • 우울증 및 심리적 문제 • 특별한 이유 없음, 그냥 다니기 싫어서 •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② 학교를 그만 둔 후 하고 싶었던 일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후 하고 싶었던 일을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청소년들은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읍면지역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지역별 학교를 그만 둔 후 하고 싶었던 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 특별히 하고 싶은 일 없음	• 특별히 하고 싶은 일 없음	• 관심분야에 대한 배움

③ 학교를 그만 둔 후 생활패턴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를 그만 둔 후 생활패턴을 살펴보면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생활패턴이 불규칙해지고 나태해지며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는 아르바이트 경험과 더불어 비행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하는 일 없이 그냥 집에서 지내는 경우와 중소도시 지역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위기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도박이나 성매매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지역별 학교를 그만둔 후 생활패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패턴 불규칙 아르바이트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패턴 불규칙, 나태해짐 아르바이트 경험 비행의 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규칙한 생활패턴 그냥 집에서 지냄 위기상황 노출(도박, 성매매)

④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든 경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 대부분 힘든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힘든 경험을 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그 외에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벗어나 오히려 좋았다는 경우와 힘들 때 도 있었지만 별로 내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양가감정을 나타내는 경향도 있었다.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힘들다고 하고,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외롭다고 하였다.

표 IV-11. 지역별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든 경험과 대처방법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힘들지 않음 학교를 벗어나 좋음 양가감정 대처방법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힘들지 않음 학교 친구들과의 연결고리 없어짐 대처방법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힘들지 않음 외로움 대처방법은 없음

(2)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공통적인 특성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대도시의 경우 이혼가정, 조부모 가정, 한 부모 가정 등 가정의 구조적 기능에서의 문제가 많으며 청소년들의 위기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행동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이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으로 나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구도심권이 슬럼지역이 되면서 이곳에서 문제행동이 발생한다.

읍면지역 청소년들은 가정 내 부모의 무관심을 겪는 경우도 보이고, 생활패턴의 불규칙으로 인해 무기력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IV-12.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어려움 • 위기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행동 증가 • 가정의 구조적 기능 문제(이혼가정,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어려움 • 슬럼지역 내 집단행동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어려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 무기력 및 생활패턴 불규칙 • 부모의 무관심

②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공통적인 욕구는 검정고시 합격과 자신의 진로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었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교통비, 식비, 생활비 등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 및 진학에 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고, 대학진학과 취업의 욕구가 높았으며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취업과 자립을 위한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훈련 뒤 취업이 연계되기를 바라고 있다.

표 IV-13.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 자신이 관심 있는 진로 찾아보기 •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음(그냥 놀고 싶음) • 교통비, 식비, 생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 진로와 자아 찾기 • 대학 진학 • 취업 준비 • 의식주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찾기 • 취업을 위한 훈련과 자립 • 취업연계

③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을 알게 된 경로

학교 밖 청소년 기관을 알게 된 경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선생님을 통하여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도시에서는 친구를 통해서, 보호관찰소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을 알게 된 경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상담기간(선생님) • 친구를 통해 • 보호관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 선생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상담 •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선생님

④ 현재 기관에서 도움 받고 있는 부분과 만족정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기관에서 도움 받고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검정고시

대비이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기관에서 아르바이트 연결을 도움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중소도시에서는 취업준비 및 자격증 공부를 도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는 대도시의 경우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중소도시는 만족도가 높지 않고, 읍면지역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현재 기관에서 도움 받고 있는 부분과 만족정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대비 • 아르바이트 연결(가온나래) • 대체로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 취업준비 자격증 공부 • 만족도가 높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대비 • 만족하지는 못함

⑤ 학교 밖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해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은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지역사회의 도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표 IV-16.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십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모르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모르겠음

⑥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및 필요한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혹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점은 경제적 지원(생활비 및 교통비, 학원비 지원)이었다.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체계적인 검정고시 프로그램의 지원을 원하고 있었으며 대학탐방 및 견학프로그램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시설 및 프로그램 활동 공간 마련을 지역사회에서 마련해주길 원했다.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연결을 원하고 있었다.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도 체계적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을 원하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및 취업 연결을 지역사회에 바라고 있었다.

표 IV-17.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및 필요한 지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및 학원비 지원 • 체계적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 • 대학탐방 및 견학프로그램 • 전용 시설 및 프로그램 활동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 및 학원비 지원 • 아르바이트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 아르바이트 및 취업 연결

⑦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라는 기관 및 시설과 관련된 욕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라는 학교 밖 청소년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욕구에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유사점이 나타났다. 우선 기관 안에서 또래친구를 사귀고 싶은 욕구에 또래친구가 많았으면 하는 욕구를 나타냈고,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혹은 검정고시 공부를 위한 전용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욕구가 나타났다. 또한 검정고시에 대한 욕구로 검정고시 교재 지원과 검정고시 전문 선생님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중소도시에서는 교통편의 부족으로 인해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하는 욕구를 나타냈고, 읍면지역에서는 기관에 다양한 동아리가 있었으면 하는 욕구가 나타났다.

표 IV-18.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라는 기관 및 시설과 관련된 욕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 또래친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 • 프로그램 활동 공간 늘리기 • 검정고시 공부 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편(셔틀버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 또래친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 • 기관에 다양한 동아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 검정고시 공부 전용공간 • 검정고시 프로그램 • 선생님들의 전문화

3)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특성

(1) 기관의 위치 및 여건

학교 밖 청소년 기관의 위치와 여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전용공간 혹은 독립공간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대도시에서는 전체 청소년을 위한 관련시설을 함께 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났고, 중소도시에서는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표 IV-19. 지역별 기관의 위치 및 여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련시설과 함께 쓰는 어려움 • 쓸 수 있는 독립 공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시설 및 활동 공간 필요

(2) 학교 밖 청소년 이용인원 및 발굴과정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용인원 및 발굴과정을 살펴보면 이용인원은 공통적으로 월 상시 이용인원이 30명 정도이다. 그 외 지역별 발굴과정은 대도시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상담과, 교육청에서 기관으로 내려오는 리스트, 그리고 부모님의 권유로 기관을 찾는 경우이다.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상담과 부모님 및 주변의 권유로 기관을 찾게 되는 경우는 동일하나 중소도시 기관에서 자체적인 홍보(온라인, 팸플렛)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기도 한다. 읍면지역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리스트와 기관홍보(아웃리치, 팸플렛)를 통해 기관을 찾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이용인원 및 발굴과정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상시이용인원-30명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상담 • 교육청에서 리스트전달 • 부모님의 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상시이용인원-30명 •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상담 • 기관홍보(온라인, 홍보 팸플렛)를 통한 발굴 • 부모님 및 주변의 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상시이용인원-30명 • 교육청 리스트 • 기관 홍보(아웃리치, 팸플렛)를 통한 발굴

(3)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공부 지원과 자립을 위한 아르바이트 및 취업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서지원과 생활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편견의 눈으로 대하지 않는 수용적 태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공부 지원 • 자립을 위한 아르바이트 및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지원과 생활지도 • 수용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과 좋은 관계 만들기

(4) 기관에서 실행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실행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대도시에서 실행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는 사계절 숙박체험 프로그램, 리더육성 사업, 찾아가는 꿈드림, 1:1 멘토링 프로그램, 학업클리닉 프로그램, 직업탐색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자기계발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서 실행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는 수준별 지도를 위한 검정고시 대비 캠프, 노동가치 인식을 위한 직업인과의 만남 프로그램, 진로동기, 책임감, 사회성 향상을 통한 통합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활동, 꿈을 지키기 위한 용돈지원 프로그램, 기관과 친해지도록 돕는 ‘밥 데이’ 프로그램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 실행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는 승마체험활동, 건강관리 프로그램, 검정고시 지원프로그램, 경제관념 및 자립에 대한 교육, 그린나래 지역 사회 봉사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지역별 기관에서 실행하는 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계절 숙박체험 프로그램 • 리더육성사업 • 찾아가는 꿈드림 • 1:1 멘토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지도를 위한 검정고시 대비 캠프 • 노동가치 인식을 위한 직업인과의 만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마체험활동 • 건강관리 프로그램 •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 • 경제관념 및 자립에 대한 교육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클리닉 프로그램 • 직업탐색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 자기계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동기, 책임감, 사회성, 향상을 통한 통합프로그램 • 지역사회 봉사활동 • 꿈을 지키기 위한 용돈 지원 프로그램 • 기관과 친해지도록 돕는 '밥 데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나래 지역사회 봉사활동

(5)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행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

학교 밖 청소년 기관에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행에 있어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은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에서는 보여줘야 하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 중소도시에서는 지역 멘토의 참여와 편안한 분위기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행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는 실무자의 역량이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지역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행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여줘야 하는 실적에 대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멘토의 참여 (인적자원) •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의 역량

(6)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이나 노력하는 부분

학교 밖 청소년 기관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이나 노력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항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대도시 기관에서 특화된 부분이나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공간의 조성 과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관계형성을 하고, 먹거리 등을 잘 챙겨주며, 지역상인 및 주민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계하는 것이 타 지역에 비해 특화되고 노력하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지역별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이나 노력하는 부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이 부담 없이 올수 있는 공간조성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과의 지속적 관계형성 • 청소년에게 먹거리 잘 챙겨주기 • 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7) 기관 홍보 방법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을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에서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에서는 인근 지역과 기관이 함께 하는 연합아웃리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도 역시 아웃리치로서 기관을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지역별 기관 홍보 방법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관계자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 아웃리치(발로 뛰는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리치

(8)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원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원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의 경우, 지역사회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통해 취업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와 사업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지역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도 제공하였다.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봉사를 하고 취업 인큐베이팅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중소도시에서는 지역주민이 지역연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읍면지역에서는 경제지원을 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취업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표 IV-26. 지역별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및 실습 컨소시엄 • 미인가 대안학교와 사업공유 •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지역봉사 • 지역 사업장에서 취업 인큐베이팅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경제지원 • 지역 내 인적자원의 활용 • 인턴십 프로그램

(9) 지역별 제한점 및 애로사항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느끼는 지역별 제한점 및 애로사항에 있어서 대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족, 현장 실무자에 대한 인력 및 수당 지원 부족, 현장 실무자의 잦은 이직, 연계기관과의 마찰이 지역별 제한점 및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혹은 반영하지 않는 실적에 대한 평가가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그 외 중소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부족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는 청소년 관련 시설의 부족과 인턴십 과정 후 취업까지의 연결 부족을 지역별 제한점 및 애로사항으로 나타냈다.

표 IV-27. 지역별 제한점 및 애로사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족 • 현장 실무자에 대한 인력 및 수당 지원 부족 • 현장 실무자의 잦은 이직 • 연계 기관과의 마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체계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족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실적위주의 평가 • 청소년 관련 시설의 부족 • 인턴십 과정 후 취업연결 부족

(10) 지역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역연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도시에서는 현장 실무자의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서는 취업연계를 위한 전문 자립장소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지역별 지역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실무자의 인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돕는 전문 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11) 지역 내 인지도와 네트워크 정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의 지역 내 인지도와 네트워크의 정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도시에서는 인지도는 좋아졌지만 네트워크는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지도는 미흡하나 네트워크는 순조로운 상태로 나타났다.

표 IV-29. 지역별 지역 내 인지도와 네트워크 정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도는 좋아졌지만 네트워크는 순조롭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도 미흡하나 네트워크 순조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도 미흡하나 네트워크 순조로움

(12)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창업·작업장소의 공간 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개별적으로 대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독립 공간 및 시설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지원, 자치구의 예산지원 확대가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서는 현장 실무자의 처우개선, 지역사회의 재정후원과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비 지원, 지역사회의 취업연계가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는 건강 활동 프로젝트 전용공간 마련,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빠른 대응이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표 IV-30. 지역별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작업 장소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독립 •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지원 • 자치구 예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돕는 전문 공간 확보 • 현장 실무자의 처우개선 • 지역사회의 재정 후원 • 생활비 지원 • 지역사회의 취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 창업 준비 및 지원 공간 마련 • 건강 활동 프로젝트 전용 공간 마련 •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빠른 대응

(13)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성공모델 요인

선정된 각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성공모델 요인에 대해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기관종사자의 사명감이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도시에서는 지역 관내 경찰서와의 연계, 중소도시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상인의 관심과 후원이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는 실무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성공모델 요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종사자의 사명감 • 지역 관내 경찰서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종사자의 사명감 • 지역주민의 관심과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반영

○———— 제5장 결론

- 1. 요약
- 2. 제언: 학교 밖 청소년 지역
사회 지원모델 개발방향

1. 요약

1) 선정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개 지역특성

대도시 ○○구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며 인구대비 기초수급자율도 높아 취약계층이 많다. 다른 구에 비해 청소년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많아 방임되는 청소년이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많다. ○○구 기관에서 하고 있는 홍보 등으로 인해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는 편이나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아직은 미흡하다. 반면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관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를 수용하기는 아직 힘든 실정이다.

중소도시인 ○○시도 지역의 경제수준은 낮은 편이다. 신도시가 생긴 뒤 개발지역과 미개발 지역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은 미개발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편이다. ○○시의 청소년 수는 점점 감소추세에 있고 오히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미개발 지역은 저소득층과 위기상황에 노출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많고 이 지역의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에게서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한다. 중소도시 ○○시 또한 대도시의 ○○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은 활성화되어

9) 이 장은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있고 지역기관과도 원활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 밖 지원센터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읍면지역인 ○○군도 다른 대도시 지역이나 중소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의 CYS-Net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위기청소년이나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반면에 읍면지역의 특성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시설이 부족하고 청소년 관련시설의 수도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읍면지역을 떠나 주변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청소년 관련 인프라가 별로 없다. 또한 대도시처럼 교통시설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아서 기관을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교통의 불편으로 인한 홍보의 어려움 등으로 기관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취약한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비교적 활성화되었다. 교통편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대都市는 좋으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지역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1)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대도시의 경우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심리정서적인 이유와 또래 및 교사, 학교와의 관계 갈등,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 둔 후의 생활패턴을 보면 대도시 지역을

비롯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불규칙한 생활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 둔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내는 경우도 많지만 이러한 경우도 늦은 오후 출근에 새벽퇴근이라서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둔 후 힘든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한다. 학교 규칙에서 자유로워졌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유로는 학교 내 또래관계의 어려움, 선생님과의 불화, 성적에 대한 불만족으로 학교를 그만 두게 된 경우이다. 애초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진로결정의 오류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경우도 있었다. 그만 둔 후에는 비행행동의 반복으로 지내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대도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학교 다닐 때보다 많이 나태해졌다고 한다. 힘든 경험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학교 친구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은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읍면지역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학교에 다니기 싫고 공부하기가 싫은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두거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 학교 친구들의 따돌림 문제 등이다. 그만둔 후에도 위기상황에 빠져서 도박이나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를 나온 후 힘든 경험은 특별히 하지 못했으나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 단절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① 지역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학교 밖 청소년의 대표적인 환경적 특성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위기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가정경제가 어려워져 사설 검정고시 학원은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기관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선정된 대도시 지역은 가정에서는 가정불화 및 부모의 무관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나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중단율이 높다고 한다. 이런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후에도 비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도시의 청소년들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은 대도시와 동일했다. 이 지역의 청소년들은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비행행동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사회협동조합형태를 한 기관의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에 비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의식주마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의 청소년들이 많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끼리 모여 무리를 지어 다니며 하는 행동들에 대해 크게 잘못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비행행동을 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남자 청소년들은 배달 아르바이트와 같이 고소득의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고 아르바이트 후 발생하는 소득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 써버린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 역시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과 마찬가지로이다.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대도시나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과 마찬가지로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거의 모든 일에 관심이 없는 무기력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부모의 무관심과 돌봄이 없이 집에만 있는 은둔형도 있다.

② 지역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대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후 하고 싶어 하는 일이 특별히 없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학교 밖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기관을 찾게 되고 본인의 진로와 진학, 자립과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는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이 제일 우선시되었다.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학교를 나왔지만 그들에게겐 검정고시 공부와 합격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요건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직 진로에 대한 정보와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경우도 있다. 검정고시 공부와 더불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경험해보고 살펴 본 후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기관을 찾는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원비, 교통비, 생활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을 이용하면서 시설에 대한 욕구도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관련 청소년 시설과 공간을 함께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청소년들은 독립된 시설과 프로그램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불어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검정고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소홀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전용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중소도시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그만 둔 후에는 걱정되는 것도 없었고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고 하였다. 시간이 지난 후 청소년들이 바라는 욕구는 대도시 지역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 합격, 대학진학, 취업연결, 진로 및 진학에 대해 목표의식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 등을 바라고 있었다. 중소도시 OO시의 기관은 기존 역세권에서 좀 더 조용하고 넓은 지역으로 시설을 이전하였다. 이전한 후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욕구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교통편이 많이 불편해진 탓에 기관을 찾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셔틀버스 등을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기관은 이 기관을 찾는 청소년의 특성상 지역 내에서도 아주 열악한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라는 욕구는 오로지 의식주 해결이 먼저 라고 이야기하였다.

읍면지역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검정고시 지원과 경제적 지원의 욕구를 갖고 있다. 검정고시가 끝난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청소년에게겐 분명히

직업적인 것과 연계된 창업활동요소가 있어야 한다.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욕구는 취업을 위한 훈련과 취업을 통한 자립이었다. 지역의 특성상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힘든 실정이다. 또한 대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경험해보고 살펴 본 후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시설에 바라는 바는 기관의 또래들이 많아져서 또래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하는 것이다. 기관에 동아리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 청소년들도 기관을 많이 찾게 되므로 기관에 다양한 동아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보면, 우선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학교를 그만 둔 후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비행을 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원하지만 지역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나 다른 이익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기도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이들이 당장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는 검정고시가 최우선이다. 이외에 취업이나 독립된 공간 등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제대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들은 전문성을 갖춘 검정고시 교사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학교 밖 청소년을 가르치는 경우가 적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3) 지역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특성

(1) 지역사회의 지원 현황

대도시의 ○○구는 지역 상인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취업 및 실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인턴십 장소로 바리스타

기술을 배우고 활용해 볼 수 있는 카페 등을 지정해 두고 있고, 청소년들이 인큐베이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도움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자치구의 미인가 대안학교와 사업 및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연합아웃리치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함께 지원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중소도시인 ○○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연계시킨 후 지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업 인큐베이팅이라는 지역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직장 관련 기본 에티켓과 여러 가지의 직업교육들을 겸해서 훈련하고 있다. 그 외 지역주민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연결시켜 멘토와 멘티가 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도움과 정서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을잔치 등을 벌여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게 하고 있다.

읍면지역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CYS-Net의 무한 돌봄 기관이나 사회복지 협의회 등을 연계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CYS-Net을 통해 지역 단체장들과 소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기관에서 활동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종사자의 역량을 벗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지역 내의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연계하고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지원 현황¹⁰⁾

대도시 지역은 월 상시 이용인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주로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기간에 기관을 알게 되어 온 경우이거나, 교육청에서 리스트를 받아 기관 실무자들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청소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이다. ○○구는

10)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외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원도 포함하여 기술함

지역의 관할 경찰서와도 연계가 잘되어 있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기관과 연계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경우는 미리 기관을 이용하는 친구의 소개나 부모님의 권유 등으로 기관을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게 기관에서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학교 간담회를 실시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알리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도시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함께 숙박을 하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사계절 숙박체험 프로그램, 사회적응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리더육성사업,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대학생과 1:1 멘토·멘티를 연결하여 학업 및 진로 관련 상담 및 지원 등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하여 특화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후에도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청소년들이 지속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전화통화를 하며 일상생활 관리도 꾸준히 하고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을 알게 된 경로는 기관 실무자의 역할이 제일 컸다고 한다. 실무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게끔 기관을 찾게 하였다. 그 밖에도 온라인이나 홍보지를 통한 아웃리치를 통하거나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을 통하여 기관을 알게 된 경우나, 부모님의 권유로 오게 된 경우도 있었다. ○○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검정고시를 대비하여 숙박캠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진로 및 진학을 위한 꿈을 키워보는 프로그램, 12월이 되면 콘서트 형식으로 발표회를 하며 청소년들에게 성취감과 성공경험을 심어주기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 중소도시 지역도 프로그램 후의 청소년 관리는 전화통화를 통해 꾸준히 하고 있었다.

○○시에는 사회적 협동조합형태를 보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도 있다. 이 기관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일정한 틀이 없고 함께 모여 먹거리 등을 나누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도 가급적 지역 내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하여 거주 지역 근처 상가 등을 찾아다니며 직접 체험하게하며, 매년 지역에서 김장나누기 등을 하며 봉사활동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수당 형태로 용돈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후원금에서 오는 것이다. 용돈은 청소년들에게 지출내역을 묻지 않고 그냥 필요한 곳에 쓰라고 주는 형태이다.

읍면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중단 숙려제의 상담을 통해 기관을 알게 되거나 교육청 리스트를 받아서 기관 실무자의 전화통화에 의해 오는 경우가거나 아웃리치 홍보를 통해 기관을 찾아온다. ○○군은 올해 들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하고 있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 자립에 대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에서 배운 내용과 재능 결과물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을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읍면지역은 지역사회의 자원이 부족하여 이러한 지원이 어렵다. 읍면지역에서는 꿈드림센터와 CYS-Net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3) 제한점 및 애로사항

대도시 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은 많은데 비해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기관마다 영역에 맞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건 학원비·교통

비와 같은 경제적인 지원인 것이다. 이런 욕구를 해결해주지 못해서 청소년들의 기관이용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실적으로 연결되고 실적은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다보니 경제적 지원 부족이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장실무자가 행정업무와 현장업무를 함께 진행하다보면 초과근무가 이뤄지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인력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그로 인해 현장실무자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대도시 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먼저 시작한 다른 기관과의 갈등구조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으나 다른 기관을 이용하던 학교 밖 청소년이 본 기관으로 오는 경우 타 기관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들도 실적경쟁에서 오는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도시 지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평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였다. 실무자는 한정되어 있고 지역마다 학교 밖 청소년 수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많은 지역은 실적평가에서 상위를 하게 되고 청소년 수가 점점 줄어드는 ○○시 기관 같은 경우는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실적평가에서 밀리면 지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평가는 ○○시 지역에서 큰 제한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발굴 후 기관이용을 하게 하면서 지속성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실무자의 입장에서선 청소년들 관리가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직접 발로 뛰며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는 것과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이런 부담들이 실무자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기도 한다.

중소도시 내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지역자원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관도 지원이나 지역자원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형태의 기관은 고정적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다보니 매년 종사자들이 발로 뛰며 운영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였다.

읍면지역은 농어촌 및 관광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이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후 인턴십으로의 연결은 가능하지만 더 나아가 취업으로의 연결이 어려운 것이 애로사항이다. 또한 지역에 청소년 관련시설이 부족한 것이 지역의 한계다. 넓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기관이 한군데 밖에 없다보니 원거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시설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읍면지역도 대도시,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현장실무자들의 업무과중과 인력부족에서 오는 어려움,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실적위주의 평가가 큰 애로사항이라고 하였다.

제한점 및 애로사항을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많지만 관련기관이나 종사자 수는 적어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도시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종사자 수와도 관련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도 하기 바쁘게 실적평가까지 담당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읍면지역에서는 중소도시의 제한점 및 애로사항과 더불어 청소년 관련 시설의 부족이 문제다.

(4)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성공모델 특성 발굴

대도시 지역의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관은 선생님, 또래들과 편하게 이야기 나누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일 것이다. 물론 개인의 다양성 때문에 모든 욕구를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욕구를 갖춘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 맞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대도시 기관은 청소년들의 욕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검정고시 공부와 자립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관내 경찰서와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러 다니며 부족한 부분을 들어주고 기관으로 오게끔 하거나 다른 기관과 연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기관 내에 잘 정립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관종사자의 사명감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도시 ○○시는 실무자의 청소년에 대한 사명감과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더불어 실무자와의 사회적 지지 역시 기관의 성공을 위한 주요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처음 기관을 방문했을 때 비자발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사자들의 관심과 돌봄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아침에 깨우고 일상이야기를 나누고 기관에 오는 시간을 알려주고 중간에 또 전화하는 등의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을 찾는 아이들에게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한다. 간식거리들을 늘 준비해두고 기관에 와서 부담 없이 먹게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중소도시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기관은 넉넉하진 않지만 지역주민의 관심과 상가번영회 등 개인 기업체에서 후원해주는 인적·물적 자원들로 인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금전적인 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활동하는 것으로도 청소년들은 소외감을 덜어낸다고 하였다. 더불어 지원이 부족한 기관일수록 기관종사자의 사명감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혜택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편견의 시선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언어와 행동들을 어른들의 시선에서 조정하려 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며 다가가고 있다고 하였다.

읍면지역 기관의 성공요인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다른 집단에서도 좋은 관계 만들기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대화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낯설어 하고 어색함을 느낀다고 한다. 기관 종사자들이 먼저 다가가 좋은 관계를 만들기엔 중점을 다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어색함을 덜고 기관 이용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지역연계기관 운영진 협회 등에 참석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전환을 통해 지역 전체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전환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읍면지역 역시 성공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실무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사명감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요인이라고 하였다.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역주민의 관심과 후원,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여 성공모델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2. 제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방향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역별로 공통적인 특성과 욕구를 보이기도 하는 반면,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은 지역별 학교 밖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도 마찬가지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은 각각의 지역별 인적자원, 물적 자원, 지역사회의 분위기,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등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지역별에 따른 차별화되고 맞춤형의 정책이 아니라 일률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은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공통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지역별로 다르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을 지역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공통점에 근거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 모색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이들의 욕구도 교통비, 식비, 생활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관련이 있다.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청소년들이어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주 5회 이상 결식률은 아침 45.3%, 점심 30.8%, 저녁 29.6%로 나타나 기본적인 식생활조차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윤철경 외, 2017: 124). 이들은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현재 경제적 지원은 꿈드림센터에서 진로/자립지원프로그램의 하나로 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의 이야기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모든 경제적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교 밖 청소년의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를 연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2) 학교 밖 청소년에게 쉼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태함, 무기력함, 불규칙한 생활패턴이다. 이들은 학교, 가정, 사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이 상처가 낫기 전에 자꾸 무엇인가를 하라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놀고 싶다는 것은 이러한 상처 때문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가고 싶은 공간이 이들에게 필요하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대안학교와 더불어 징검다리를 지원하고 있다. 징검다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아직 자신의 진로를 정하지 않았을 때 갈 수 있는 곳으로 프로그램이 있지만 참여여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결정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징검다리와 같은 곳에서 청소년들은 쉬면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패턴에 맞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오후 늦게부터 일과를 시작한다면 프로그램도 그에 맞게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비행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에 비해 위기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비교하여 볼 때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비행으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실제 일부 연구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도박이나 성매매 등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조제성·김상균,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더욱이 비행을 제지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비행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 많은 수의 청소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진로지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정고시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막막함을 경험하며,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졸업장을 취득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장소에 모여서 학습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며, 학업성취도 또한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집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일은 개별 기관에만 그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을 뿐 지역사회나 지자체,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는 미비하다.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되, 국가, 지자체 및 지역사회

차원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취업처를 찾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로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이나 결정이 미비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는 보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과 진로지도를 병행하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대비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 방문하였을 때, 이와 함께 진로지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진로동기를 향상시키고 진로를 준비, 결정하는 전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권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에 실패하였고 이들이 가진 내적, 외적 자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진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자신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탄력성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5)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해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유 중 하나는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정서적 요인과 대인관계 문제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후에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외로움이다.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그들의 발달에 중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면서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고 친구들을 사귄 기회가 적어진다.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하여금 더 많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게 한다. 이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관련기관에 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심리적 안정을 얻고 사회성도 발달시킬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이들에게 검정고시나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이들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관련기관에서는 상담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풍이나 캠프를 가고 싶다고 한 것은 바로 친구가 필요해서라고 본다.

2)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차이점에 근거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기관이용률 증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관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은 대도시나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대도시는 학교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기관 홍보를 하고 있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온라인 홍보, 연합 아웃리치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 차별화된 접근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발굴과 기관이용률 증가 방안 모색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많다. 학교 밖 청소년 중 58%가 대도시에, 중소도시에는 31.1%, 읍면지역에는 11.6%가 있다(윤철경 외, 2017: 34).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거주지 유지

율이 높다(윤철경 외, 2017: 3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이용인원은 지역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월 상시 30명 정도이다. 이는 대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수에 비해 이용비율이 적은 반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이용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해당 기관에 더 많이 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약 60%가 대도시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이용인원과 비슷하다면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조직적인 발굴지원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명단을 받아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한 두 번의 연락 후에는 다시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명단만 배부 받는 것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기가 어렵다(박승곤·김수정, 2017). 이러한 원인 외에 실무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다든지 혹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다른 지역보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지역사회 자원이 다양하다든지 또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후 분석된 원인에 따라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창출해야 한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는 아웃리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이용율이 낮은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많은 것에 비해 관련기관의 인력이 부족해서 제때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련기관을 외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도 대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경우 상담을 받으려면 대기인원이 많아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대도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비행까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대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단순히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비행청소년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관련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 제고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대부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등을 이용하면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 갈 수 있다. 반면,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읍면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읍면지역은 대체로 지역이 넓으면서 대중교통이 대도시만큼 발달해 있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통비를 마련하지 못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셔틀버스와 같은 교통편 제공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함께 있었던 경우라면 청소년수련관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접근성 등의 이유로 기관에 오는 것이 어렵다면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사례처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지역별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과 상관없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는 학원비, 생활비, 교통비를 정부에서 모두 지원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청소년들에게는 신속하게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자립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는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이전의 과도기적 시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르바이트는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감이나 성취감 등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중요한 경험이다. 궁극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이들의 비행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방안을 지역에 따라 차별화시켜야 한다.

① 대도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방안 모색

대도시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예: 가온나래). 이것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이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연결하는 일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보다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거주지 유지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굳이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떠날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②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지역사회 내에 자립을 돕기 위한 전문 공간 설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연계할 수 있는 지역자원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지역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혹은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 내에) 별도의 전문 공간(작업장)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본 연구의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기관 책임자 면접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하여 지역사회에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을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일이 매우 어렵다. 학교 밖 청소년을 성공적으로 취업시키고 자립을 돕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원이 필요한데 기관 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역의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내에 전문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외부 자원들이 기관 내로 들어오는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검정고시가 주를 이루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을 포함한 취업이다. 이외에 소풍, 수학여행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있다. 지역별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에 차이가 있어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① 대도시: 자치구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대도시에서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사업공유가 가능하고 인턴십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많기도 하고 다양한데 이를 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이 모두 담당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운영방식의 다양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매사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도 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도시의 경우, 구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구에서는 직업체험이나 인턴십으로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B구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A구에 살지만 요리를 배우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이 B구에 가서 요리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전문적인 강사에게 검정고시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해당 과목을 가르칠 강사가 없어서 수업내용이 달라진다는 불만도 토로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대도시의 어느 지역이든(혹은 2-3개의 구가 연계해서) 가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듣게 하면 이들의 많은 불만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②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 검정고시 대비 집중프로그램 개발·운영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기적으로 어떤 장소에 모여서 학습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교사를 모집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 어렵게 교사를 모집하고 과정을 개설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학업성취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대비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대비를 위한 캠프 형태의 집중프로그램을 우선 개발,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되, 이 프로그램 속에 전인교육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한편,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해당 중소도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대도시나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관계없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역사회가 작을수록 크다. 대도시에서는 같은 지역사회 주민이라고 해도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적다. 중소도시는 대도시보다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겠지만 읍면지역보다는 적을 것이다. 결국 읍면지역은 특성상 인구가 적고 밀집해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잘 알게 된다. 이것이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들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걱정 어린 혹은 부정적인 시선일 수 있다. 이것은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유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① 대도시: 캠페인이나 공익광고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하여 넓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아주 좁은 범위의 지역주민(이웃, 친구, 친척 등)이거나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주로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대도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지역주민 간 교류(공동사업)를 통한 부정적 인식 개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 지역사회 주민과 학교 밖 청소년이 함께 모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잔치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마을축제를 여는 것이나 멘토링 활동 등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마을축제를 기획하여 운영한다면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고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마주칠 경우에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묻게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행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지역별 차별화된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 성공요인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이 잘 운영되는 곳을 1곳씩 총 3개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각기 다른 조건과 환경을 가졌지만 선정된 3개 기관은 성공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개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성공요인은 기관종사자들의 사명감이다. 그 외에 지역별로 성공적인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에는 차이가 있다.

① 대도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대도시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지역사회 자원이 많은 편이다.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 종사자들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잘 활용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CYS-Net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지역 내의 경찰서, 대안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대도시에는 많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이러한 자원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계해 줌으로써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도시: 지역주민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냄

중소도시에서는 대도시보다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해서 인지 오히려 CYS-Net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는 CYS-Net이라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관심과 후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체제를 만든다면 대도시보다 지역사회 자원이 다소 부족하여도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③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

읍면지역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읍면지역은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CYS-Net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을 것이 부족하고 아르바이트도 쉽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이들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읍면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인할만한 요소가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읍면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맞춤형 서비스, 일대일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등은 읍면지역에서 필요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읍면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시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8). **교육기본통계**.
- 박승곤, 김수정 (20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종사자의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4(2), 233-257.
-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 박예슬, 윤희문 (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은주 (2014). 통치와 잉여: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싼 질문들.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 331-332
- 조제성, 김상균 (2018). 학업중단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경험 경로 연구. **한국범죄 심리연구**, 14(1), 133-146.
- 구청 인구통계 (2016.12월 기준) (2018.9.20. 인출)
- 시 인구통계 (2016.12월 기준) (2018.9.22. 인출)
- 군 인구통계 (2016.12월 기준) (2018.9.22. 인출)
-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www.flyyouth.or.kr) (2018.9.20. 인출)
- 꿈드림센터 홈페이지(www.kdream.or.kr) (2018.9.5., 2018.9.10. 인출)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allnet.org) (2018.9.15.,
2018.9.18.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8.9.28.
인출)

○ —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기관 책임자)
3.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실무자)
4.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청소년)

2.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기관 책임자)

◆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기관 책임자) ◆

인터뷰 일시		성 명	
근무 기관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근무 기간		생년 / 나이	

1. 귀 기관에서 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2.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자체개발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귀 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5. 귀 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6. 지역기관과 연계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7. 지역기관과의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8. 귀 기관이 타 지역 학교 밖 지원센터와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은 무엇일까요?
9. 귀 기관이 타 지역 학교 밖 지원센터보다 더욱 노력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0. 귀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11. 귀 기관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요?
12. 귀 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요?
13. 더욱 발전하는 기관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4. 지역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발전방향을 위해 개선이나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1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실무자)

◆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실무자) ◆

인터뷰 일시		성 명	
근무 기관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근무 기간		생년 / 나이	

1. 현재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 기관이용 연령대
 - 학업을 중단한 시기가 가장 많은 교급
2. 현재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발굴되었는지요?
3. 현재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개인(정서불안-우울, 자살 시도 등)
 - 가정(경제적상황, 부모관계 등)
 - 학교(학교부적응, 학교폭력, 친구관계, 획일적 교육내용, 학교 시스템, 대안교육, 교사관계 등)
 - 사회(비행-음주, 흡연, 약물중독, 그 외 일탈행동-성비행, 사이버비행)
4. 현재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온 후 경험하는 위기상황들은 무엇인가요?
 - 부모와의 갈등, 주위의 시선, 학생이 아닌 신분에 대한 모호한 정체성,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 등
5. 현재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상황정도는 대략적으로 어떤지요?
6. 귀 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홍보하고 있는지요?
7. 현재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8.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9. 귀 기관의 위치와 시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10. 지역의 각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11. 귀 기관은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어떤가요?
12. 귀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13. 관할지역의 특성이나 규모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비스하기 어려운 점은 있었나요?
14.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15.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방안은 무엇일까요?
16.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은 무엇일까요?
17.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가장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18. 지역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까요?
1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청소년)

◆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청소년) ◆			
인터뷰 일시		성 명	
거주 지역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최종학교 중단시기	(년) (학교 학년 때)	생년 / 나이	

1. 가장 최근에 그만 둔 학교는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나요?

- 학교를 중단할 때의 학년과 상황
- 학교를 중단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나 사유
- 학교를 중단할 당시에 상담 등 도움을 받았던 사람, 기관 등

2. 학교를 그만둘 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나요?

- (없다) 목표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 (있다) 구체적인 목표
- (있다) 목표를 가지게 된 이유나 동기

3. 학교를 그만둔 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 하루일과(기상시간, 취침시간)
- (검정고시준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종류나 시간
- (무업) 주로 무엇을 하며 쉬는지

4. 학교를 그만둔 후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5. 힘들 때 ماذا 어떻게 대처했나요?

- 도움 받는 사람이나 기관?

6.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이나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7. 그렇다면 하고 싶은 활동이나 경험해보고 싶은 것을 위해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 있나요?

8.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이나 경험해보고 싶은 것을 위한 도움을 받고 있나요?

9. 현재 다니는 기관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10. 현재 기관을 이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나요?

11.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받고 있는 지원에 만족하나요?

12.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요?

1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받고 싶은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1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models match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by accounting out-of-school youths' characteristics and their needs by metropolitan, small to medium-sized, and rural regions, regional resource features, challenges of managing out-of-school youth centers, and exemplary cases through interviews with out-of-school youths, staffs and managers of out-of-school youth centers.

To realize this aim, we devised a research plan and selected regions of study through expert consultation meeting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out-of-school youths, staffs and managers of out-of-school youth centers, along with professional consultation meetings. Afterwards, we analyzed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bout out-of-school youth characteristics and needs, regional resources and development directions. Additionally, we applied the overall experts' opinions on community-based out-of-school youth support models into our research.

This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hree selected regions are all economically disadvantaged. The metropolitan regions have weak networks whil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have active networks. Second, youths have in common that they experienced lethargy and irregular living patterns once they dropped out of school. Youths in metropolitan areas often worked in part-time positions and those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often were involved in delinquent behaviors. Some youth in rural areas barely did anything

but staying at home. Out-of-school youths in all regions commonly face economic difficulty, living in irregular schedules and involving in delinquent behaviors. On the one hand, they share a common interest in passing the high school qualification exam; on the other hand, some youth work in part time positions but others may not be able to work even if they wish due to regional conditions. In particular, rural areas have limited job availabilities that youths tend to move out of towns to cities for seeking part-time jobs. Third, out-of-school youth centers located in metropolitan, medium-sized and small cities utilize community resources to support the youths, whereas centers in rural regions hinge on their own centers and CYS-Net with limited community resources. Challenges and limitations are associated with the growing number of out-of-school youths in metropolitan regions when there are handful of centers and staffs. We heard of concerns about overloaded work for out-of-school youth caring, case management, and preparation for evaluation from those center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hich are also shared by workers in rural centers, let alone to mention limited infrastructure for rural youths. Success factors of out-of-school youth centers are associated with utilization of community resources for metropolitan centers, interests and supports of residents for small and medium-sized city centers, and susceptibility of youth needs for rural centers.

With these findings, we provide 10 suggestions for developing community-based out-of-school youth centers models based on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We begin with our suggestions based on the commonalities shared by out-of-school youth centers and affiliated institutions. First, we advise to devise financial supports for

out-of-school youth; second, open spaces for relaxation and recovery; third, strategies for preventing their involvement in delinquent behaviors; fourth, proper career guidances for out-of-school youth; and fifth, means to help their psychological issues.

We move onto our suggestions based on the differences among out-of-school youth centers and affiliated institutions. First, we recommend to devise a plan for finding more cases of out-of-school youths and out-of-school youths' frequent access to centers; second, supports for financial independence of out-of-school youth; third, program development based on needs of out-of-school youth and implementation; fourth, strategies to tackle the stigma associated with out-of-school youth; and fifth, we also provide detailed developmental directions that are differentiated by regions as a successful strategy for youth centers.

Keywords: out-of-school youth,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community-based out-of-youth support model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이창호·김민
-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백혜정·김은정
-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백혜정
-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강경균·강소영·김혁
-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황여정·김승경
- 18-R05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이윤주
- 18-R0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 임희진·문호영·정정호
-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
-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 정은주·김정숙
-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성윤숙·박상현
-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최인재·염유식
- 18-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

- 18-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
- 18-R13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Ⅹ : 사업보고서 / 하형석·이종원·정은진·김성은·한지형
- 18-R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
- 18-R14-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 18-R14-2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모상현·진성화·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모델 개발연구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이동훈 (자체번호 18-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임정아·이지연·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김기현·배상률·성재민 (자체번호 18-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수 시 과 제

-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연보라
-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송태진
-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희진

-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김승혜
-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김기현·김인규
- 18-R24 청소년 통일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외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해정
-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욱
-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현·김태성
-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3 아동·청소년의 적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현·이윤주·최정원·유설희
-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
-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황여정
-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력(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정제영
-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 I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오해섭·윤철경·임하린·윤혜지
-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서보람·윤철경·양수빈·이지혜
-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박상진·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1/22)
-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2/28)
-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4/20)
-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5/25)
-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6/15)
-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까요?(7/18)
-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11/19)
-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S 2016) 결과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58-02

연구보고 18-R16-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인 쇄 2018년 12월 21일

발 행 2018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19-3 94330

979-11-5654-217-9 (세트)



연구보고 18-R16-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ISBN 979-11-5654-219-3
ISBN 979-11-5654-217-9 (세트)